

21세기의 정원은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로써의 역할,
저비용으로 지속가능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가보고 싶은 정원 100



가보고 싶은 정원 100

나는 유감스럽게도 쉽고 편안하게 사는 법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그건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헤르만헤세,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

가보고
싶은
정원100



국립수목원
Korea National Arboretum

가보고 싶은 정원100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처 국립수목원 전시교육과

발행인 국립수목원장 이유미

집필 진혜영, 송정화, 이정희, 김영재, 이해주, 윤정원, 안태현,
송유진, 최우경, 정재련, 이은주, 남춘희

사진 이정근, 정재련, 송유진, 가드너들

주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415

디자인 임파컴

ISBN : 979-11-87031-67-3 93520

©국립수목원 2016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무단복제나 전제를 금합니다.

가보고 싶은 정원100

책을 펴내며

우리나라에서 정원(庭園 garden)에 관한 공식적인 행사는 2010년 경기 정원박람회를 시작으로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2014년 코리아가든쇼, 서울정원박람회 등이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즉 지역별로 정원에 관한 크고 작은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국민들이 점차 정원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정원법)」의 제정을 가능케 하였고, 앞으로 국가는 국민이 정원을 가꾸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 갈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 조상이 일상생활에서 정원을 가꾸며 살아왔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충남 외암리 민속마을의 경우 집집마다 꽃을 감상하고자 만든 정원부터 채마밭까지 다양한 모습의 정원을 담장 너머로 볼 수 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정원에 대한 잠재성을 자극하고 정원을 가꾸는 사람끼리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립수목원에서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우리 꽃 야생화 활용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전국의 정원을 조사하였다. 이중 정원사가 직접 정원을 가꾸는 곳, 누구나 정원을 방문해서 감상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가보고 싶은 정원 100'을 추천하였다. 이곳에 소개되는 정원은 개인 정원부터 기관, 카페, 레스토랑, 펜션 정원까지 다양하다.

여러분이 전국의 각양각색 정원을 방문해 식물과 정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정원에서 받은 영감이 여러분의 삶을 이롭게 하는데 이 책이 기여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며 얻는 즐거움과 행복이 경험의 소통을 통해 방문자에게도 확산되었으면 한다.

2016년 12월
국립수목원장

일러두기

1. 「가보고 싶은 정원 100」은 정원을 주제로 한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정원을 좋아하고 가꾸는 사람에게 영감 및 커뮤니티 활동 유도, 오픈가든 활성화, 정원가꾸기 문화를 대중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2. 정원의 선정은 가드너가 있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정원, 누구에게나 공개 가능한 정원, 영감을 줄 수 있는 정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3. 문화재로 등록된 전통정원, 문화재 건축물이 있는 정원이나 사찰 정원, 수목원, 국가정원·지방정원·민간정원으로 등록된 정원은 제외시켰습니다.
4. 상업시설(카페, 레스토랑, 펜션 등) 정원은 가드너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한정했습니다.
5. 정원관련 잡지, 전문가 추천, 검색, 순천과 경기 오픈가든 등 150개 정원을 답사하고 가드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14일 전문가 5명의 심사를 거쳐 100개 정원이 선정되었습니다.
6. 책에 나온 100개 정원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 100곳을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원은 취미의 영역이기에 순위를 매길 수도 없고 순위를 넘어서는 가치들이 많습니다.
7. 정원 소개는 찾아가보기 쉽도록 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8. 책에서 언급한 식물소재는 국립수목원 「국가표준식물목록」, 「한국의 재배식물」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목록에 없는 식물은 유통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차례

책을 펴내며 4

일러두기 5

서울

서울시립 지적장애인복지관 10

한겨레신문사 옥상, 하니동산 14

서울숲 오소정원 18

푸르너스가든 서울숲점 24

블뤼테 Blüte 28

한국관광공사 청와대사랑채 32

경기

모현의료센터 보니또 정원 38

허브빌리지 42

혜세의 정원 46

산들모임 50

뽕뽕 뜰, 샬롬 54

아이노스 58

명지병원 건강보험 검진센터 숲마루 62

고당 66

산귀래벌서 70

파머스 가든 봄 74

마이알레 My allée 80

유니스의 정원 86

야생화 테마정원 90

햇살정원 94

머내골이야기 98

식물원 K 102

플로라하우스 106

아모레퍼시픽 스토리가든 110

아내의 정원 114

향여제 정원 124

유년의 뜰 128

들꽃의 향기가 머무는 뜰 132

성안드레아 병원 136

마음의 정원 140

강원

동구래마을 146

들꽃이야기 150

자한재 야생화정원 156

미술관 자작나무 숲 160

살바토레 펜션 166

오경야 정원학교 170

설악문화센터 174

충청

전원 민들레 180

허브힐 184

초원의 집 188

꿈에 그린 정원 192

뿌리 깊은 나무 196

마노하우스 200

아미미술관 204

근흥중학교 208

전라

상하농원 214

천치산방 218

다임찻집 222

죽화경 226

하늘마루 정원 230

금성명다원 234

영산나루 카페 238

효산리 정원 242

쌍산재 246

수련산방 250

순천복음교회 254

홍매화집 258

잉꼬정원 262

손자를 위한 정원 266

옥천 동백정원 270

다심정가 274

스토리가 있는 한국정원 278

음악이 있는 정원 282

징광문화 286

한상훈 선생님댁 290

뜰에서 숲으로 진화한 죽암농장 정원 294

꽃님이네 펜션 298

꽃밭 415 302

갈릴리 장로교회 306

해창주조장 310

경상

시크릿가든 316

비슬문화촌 320

다강산방 茶康山房 324

꽃자리 328

목언예원 332

명가원 정원 336

어머니의 정원 340

산청울수원 344

개미와 베짚이가 정답게 사는 정원 348

비채움정원과 시원時園 352

연꽃인연 356

주말의 힐링정원 360

소담수목원 364

산방산 비원 山芳山 秘園 370

무심정원 374

소담정원 378

카사벨라 정원 382

오륙도 가원 386

흙시루 식물원 390

통영맛집 정원 394

제주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400

카멜리아힐 404

청재설현 408

오설록 정원 412

갤러리&카페 테라 416

7그루 진굴나무가 있는 제주정원 420

애월 파라다이스 426

춘부의 정원 430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들꽃정원' 434

선흘꽃밭 438



서울시립 지적장애인복지관 10



한겨레신문사 옥상,
하니동산 14



서울숲 오소정원 18



푸르너스가든 서울숲점 24



블뤼테 Blüte 28



한국관광공사 청와대사랑채 32

서울

서울시립 지적장애인복지관

위 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
 면 적 약 300평
 조 성 2010
 가드너 김태준, 최선자, 정옥주 교수님 연구실

20년된 보리수나무를 그대로 살려 긴의자를 두고 휴게실을 만들었다.



정원 왼쪽 끝에는 서울대학교 조소과 학생 장한나씨가 기증한 「하나」라는 조각품이 놓여있다.

서울시립 지적장애인복지관 뒷마당에는 수수한 정원이 숨어있다. 2010년도에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정옥주교수님이 그린트러스트의 제안을 받아들여 재능기부로 정원을 설계·시공한 후 지금까지도 두 달에 한번씩은 학생들과 함께 찾아와 꾸준히 돌보고 있다.

정원에는 1986년에 식재된 수형이 멋진 보리수나무가 정원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보리수나무를 중앙에 두고 빙 둘러 긴 의자를 배치해 휴게공간을 만들었는데, 나무줄기에는 뽕뽕하게 나뭇가지로 만든 “휴게실”이라는 글씨가 매달려있다.



복지관 건물을 나오면 건물과 접한 식재공간이 이어지고 전체 공간을 산책할 수 있도록 판석으로 길이 나있다. 건물과 인접하여 자작나무가 짙게 시원하게 뻗어있고, 6년 된 화살나무는 독립수로 잘 자라 아름다운 수형을 자랑한다. 우리가 정원을 찾았을 때에는 노란 색으로 물드는 자작나무 잎과 붉은색의 화살나무 단풍이 좋은 가을이었고, 지피식물로 산국과 참억새, 수크령이 흐드러지게 피어 잘 익은 들판을 상기시켰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는 텃밭정원이 있어 103명의 발달장애 복지관 식구들이 상추, 토마토, 깻잎, 호박, 오이 등을 함께 가꾸어 먹는다고 한다. 정원이 생긴 후 서로 이야기거리도 풍성해지고 학부모들도 아이들을 기다리며 함께 정원에 대해 이야기한다. 보리수나무를 타고 오르는 덩굴식물 후추는 어느 학부모가 갖다준 것을 심은 것이라고 한다.

복지관에서는 매년 식물을 구입하거나 기부 받아, 정원을 만든 정육주교수님과 상의하여 끊임없이 정원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전문가의 도움과 전문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정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즐겁고 편안한 복지관의 뒷마당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한겨레신문사 옥상, 하니동산

위 치	서울 마포구 효창목길 6
면 적	약 300평
조 성	2005
가드너	채규조(한겨레신문사 시설 관리팀 직원)

하니동산은 아파트단지와 주택, 사무실로 빼곡하게 둘러싼 회색빛의 동네에서 녹색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보인다. 도심의 생물서식처라는 단어가 하늘에서 보니 더 선명하게 들어온다.



작년에는 배추를 분에 심었고, 올해에는 콜라비를 시도했다. 청소하는 분들이 가꾼다고 한다.

한겨레신문사 9층 옥상에는 야생화정원이 있다. 2001년에 사육을 지으며 만든 정원은 2005년 녹색문화재단·한겨레신문사·환경운동연합·LG환경사랑카드의 지원으로 생태정원으로 재탄생했다.

정원을 조성할 때 주안점은 도심에서 생물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도록 자생식물 위주로 식재하였고, 초지와 습지를 만들고 벽에는 덩굴식물을 식재했다. 정원 오른쪽에는 S자형 산책로가 있어 생물과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을 분리하였다. 논흙과 자연습지의 흙을 옮겨와 조성한 습지에는 송사리와 개구리, 우렁쉥이 등이 살고 있다고 한다.



옥상에는 빗물 저장탱크가 있는데, 수도꼭지를 틀면 탱크에 저장된 빗물이 순환하여 식물과 습지에 공급된다. 이는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다.

옥상에 놓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본 옥상 정원은 아파트단지과 주택, 사무실로 빼곡하게 둘러싼 회색빛의 동네에 녹색 생명이 움트는 공간으로 보였다. 이론적으로만 들었던 “도시소생물권(Biotop)”이라는 단어가 쉽게 이해가 된다. 정원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생들의 환경교육의 장으로 종종 활용되기도 한다.

늦가을에 찾은 정원에는 산국이 노란색으로 만개하여 꽃을 피우고 있었고, 쭉부쟁이가 이에 질세라 보라색 꽃을 피우고 저 멀리서 역새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구절초, 시달어가는 원추리 잎과 옥잠화 잎, 그리고 두메부추 꽃은 저물어가는 계절을 여실히 보여주며 더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가을을 보랏빛으로 물들인 쭉부쟁이와 꽃이 지고 있는 새끼꿩의비름

서울숲 오소정원

위 치	서울 성동구 뚝섬로 273(서울숲공원 주차장 옆)
면 적	약 300평
조 성	2015
가드너	서울숲 도시정원사



‘오소’정원은

한자어로 풀면 나 오(吳), 웃을 소(笑), 즉 ‘내가 웃는다’라는 의미이고, 편안하게 한국어로 발음하면 오소~누구나 환영한다는(Welcome의) 뜻이 담겨있다.

서울숲공원 입구 주차장 옆의 버려진, 잡초가 무성했던 땅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탈바꿈했다. 정원을 만든 사람은 서울숲에서 가드닝 교육을 받은 서울숲 도시정원사 1,2기 수료생들로, 버려진 땅이었던 이곳은 정원 수업의 현장 실습 장소가 되어 학생들이 만든 다양한 정원들로 채워졌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자발적으로 모여 꾸준히 정원을 가꾸고 있다.

배우는 학생들이 만든 정원이라고 우습게 볼 것이 아니다. 하는 일이 다르고 나이도 성격도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생각과 고민을 함께 교환하여 정원의 주제를 정하고 그 생각을 공간과 식물에 고스란히 담았다. 특히 도시정원사 김장훈 가드너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완성한 정원은 2016년 ‘꽃 피는 서울상 콘테스트’에 대상을 받았고, SNS에 입소문을 타면서 웨딩촬영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빨강머리 앤의 사계

오소정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정원으로 앤의 감성을 떠올리기 위해 주홍색 칼라를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분홍색과 붉은 색 잎을 가진 휴케라 ‘카산드라’, 주홍색 꽃이 피는 에키네시아, 오솔길 옆 작은 벤치 주변으로는 붉은 튼플, 동자꽃을 식재하였다.



정원은 1, 2기 기수별로 만든 2개의 정원과 모두 함께 만든 오소정원, 총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지만 실제 정원은 별다른 경계없이 하나의 옷은 정원, '오소정원'으로 읽혀진다. 식물이 커가는 모습을 관찰하며 정원의 현장감을 익히려는 의도대로 다양한 식물을 심었기에 지금 정원은 사계절 꽃을 피우는 다채롭고 풍성한 모습이다.

오소정원의 봄풍경.

식물들이 새잎을 올리며 다채로운 색감을 펼치기 시작한다. 황금자주달개비는 밝은 노란색을, 큰꿩의비름은 에머랄드 빛, 자엽안개나무는 검붉은색을 띄고 서로 대비를 이룬다. 거기에 더해 무스카리, 튤립 등 구근의 꽃들이 포인트가 된다.



일곱 계절의 하늘.

변화무쌍한 하늘 빛을 담고자 했던 정원에는 글라우카김의털, 램지어어, 알케밀라 등의 식물이 식재되어 있고, 다양한 푸른빛을 보여준다.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보라색 꽃이 연중 피어나고 풍성하게 모아심은 역새 ‘그라실리무스’의 부드러운 덩굴은 이국적이다.



정원의 가을.

수크령 ‘허브츠자우버’ 하얀 꽃술과 페로브스키아의 보라색 꽃과 이제 막 피기 시작하는 구절초. 에키네시아의 분홍색 꽃 등이 어울려 가을의 시작을 알린다.

선생님은 땀싸리를 보면 학생들이 떠오른다고 한다. 정원을 배우던 첫 해, “노란 것은 개나리요 붉은 것은 진달래”라고 하던 초심자들이 식물을 직접 길러보면서 정원 소재로서 식물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내어 심은 식물이라고 한다. 여름의 형광빛 부드러운 잎과 가을의 붉은 단풍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를 만드는 땀싸리는 아름다운 정원 소재이다.

푸르너스가든 서울숲점

위 치 서울 성동구 서울숲2길 46-9
 면 적 약 50평
 조 성 2003, 2013
 가드너 안계동(동심원 조경설계사무소)

녹음이 가득한 정원 아래에는 수호초, 맥문동, 바위취, 무늬동굴레 등 다양한 질감의 녹색 잎이 정원을 가득 채우고 있다.



서울숲 북동쪽 출구를 나오면 정원 문화공간을 만날 수 있다. 서울숲과 인접하여 공원의 연속이라 여겨질 만큼 경계없이 나무가 가득한 이 공간은 서울숲 공원을 설계한 '동심원 조경설계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정원 관련 전시·세미나·아카이브 공간이자 카페이다.

식재디자인을 보면 언뜻보기에 자연스러운 숲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다층구조로 디자인된 공간이다. 교목층에는 인접 대지와 경계를 허물어 서울숲의 숲 경관을 연장하여 단풍나무, 미국산딸나무, 쪽동백나무 등 반음지에서 생육이 양호한 수목을 식재했다. 그리고 하부에는 시선이 적절히 차단되도록 화살나무, 철쭉, 생강나무 등을 자연스럽게 혼식하여 정원의 틀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피식물로 수호초, 맥문동, 소엽맥문동, 호스타류, 아주가, 임파첸스 등 음지성 초화류들을 식재하였다. 이른 봄에는 숲 속에서 수선화, 튜립 등의 구근들이 올라와 봄의 시작을 알린다.



언뜻 앞에는 애기백문동을 지피식물로 식재하였다.

1층 정원은 현대적 건물에 어울리는 모던한 감성으로 접근하였고, 언뜻 보기에 규모는 작지만 정원의 요소들은 가득 담겨 있다. 언뜻, 포장재, 플랜터, 벽면 트렐리스, 가장자리 재료, 음지성 초화류 등 다양한 정원재료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정원에는 수경요소가 꼭 필요하다”고 말한 정원 디자이너(안계동 소장)가 자랑하는 공간은 필로티 아래 삼각형으로 만든 “다슬기 언뜻”으로, 1년 내내 청소를 하지 않아도 다슬기 덕분에 깨끗한 수질을 유지한다. 그 비법은 바닥에 자갈을 깔고, 다슬기를 넣은 후 물을 채우고, 물을 한 방울씩 언뜻으로 흘리고 겨울에도 물을 빠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언뜻을 청소하지 않아도 사계절 내내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물에 손을 넣어 자갈을 만져 보아도 미끈거리지 않고 깔끔하다.

화단에는 5cm정도 되는 스틸 선이 중첩되어 현대적인 감성을 더하는 지피화단의 디자인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 경계가 식물의 유지관리를 편하게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면을 가득 채우는 초화류는 스틸 경계 안에서 덩치만 커질 뿐 다른 영역으로 번지지 않는다. 또 하나 눈여겨 볼 것은 벽면을 활용하여 만든 수직 정원으로, 목재 트렐리스를 가로로 길게 디자인하여 능소화, 인동, 으아리 등의 덩굴 식물을 식재하고, 때로 화분을 매달아 장식하기도 한다.

1층 카페는 정원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카페 한쪽 벽에는 푸르너스 가든 설계도가 그려져 있는데, 정원 설계도가 어떻게 그려지고, 구성되는지, 설계가의 필체는 어떤지, 도면의 선이 실제 정원에서 어떻게 시공되었는지 도면과 실제 조성된 정원을 비교하며 둘러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이다.

1층 카페 안쪽으로는 정원 디자인, 역사, 식물관련 책과 최근 가드닝 잡지 등 다양한 정원 관련 책들을 볼 수 있는 서재가 있다. 2-3층은 갤러리로, 조경설계 도면 전시, 대학생 우수작품 전시, 미팅룸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정원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언제든 쉽게 찾아올 수 있는 편안한 문화공간이다.



005

블뤼테 Blüte

위 치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14길 12
면 적 약 300평
조 성 2015
가드너 송진화(대표)



독일어로 “꽃”이라는 뜻의 “블뤼테”는 플라워 카페로, 독일에서 플로리스트 공부를 하고 온 송진화 대표가 운영하고 있다. 홍대 극동방송국을 지나 골목 안쪽에 위치한 블뤼테는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영국 시골 정원 같은 느낌의 정원이다. 더욱 놀라운 건 이렇게 풍성하고 자연스러운 정원은 조성한 지 1년밖에 안됐다는 것이다. 대표님의 특기가 금방 만들어도 오래된 느낌이 나는 정원을 연출하는 것이라고 한다.



벽돌 계단을 올라서면 자작나무가 가득 심겨진 데크 쉼터가 있는데, 나무 그늘 아래 테이블이 놓여 있어 야외에서 차를 마실 수 있다. 그리고 정원에는 라벤더, 로즈마리, 타임, 멕시코세이지, 체리세이지 등 허브 식물과 에키네시아, 아스틸베, 휴케라, 호스타류 등의 초화류가 가득 심어져 있다. 정원의 끝에 작은 노란색 오두막집이 하나 있다. 안을 들여다보면 노란색 장미꽃이 천장을 가득 메워 동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환상적인 공간이다. 실내 카페에는 드라이플라워, 관엽식물 등이 곳곳에 가득하여 운치를 더한다.

늦가을 해가 저물 무렵에 찾은 정원에 아직까지도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꽤 많다.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사진이 잘 나오는 장소로 벌써 입소문을 많이 탔다. 정원에서는 때때로 잡지 촬영, 광고, 하우스 결혼식, 기업체 행사, 파티 등의 다양한 행사가 열리기도 한다.

가을 정원에 푸른 보라빛 멕시코세이지가 자작나무의 흰 수피와 강한 대조를 이루며 화려함을 뽐낸다.

“정원에서 정해진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누구나 스스로 그냥 느끼면 되는 것이지요. 정원의 매력은 시간마다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오는 손님들이 꽃을 통해서 찰나의 기분 좋은 에너지를 느꼈으면 합니다. 한 순간의 인상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거든요.” 라고 말씀하시는 주인의 정원에 대한 생각이 인상적이다.

한국관광공사 청와대사랑채

위 치	서울 종로구 효자로13길 45
면 적	약 300평
조 성	2014(석가산 정원), 2016(한국 정원)
가드너	청와대 시설관리팀장

장대석포장 가장자리로 꿀풀과 큰평의비름을 식재하였다.



청와대사랑채는 역대 대통령의 발자취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관광홍보관이다. 청와대 앞에 위치한 청와대사랑채는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으면 둘러보는 필수 관광코스이지만 우리에게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청와대사랑채를 찾아 전대통령의 발자취와 생활공간, 한국의 세계유산 등의 상설전시와 전통음식, 공예작품 등 기획 전시를 둘러보며, 앞마당에 조성된 자생식물 정원도 함께 감상하길 권한다.



국립수목원에서는 2014년도부터 5월에서 8월
까지 3개월간 야생화를 주제로 실내·외 전시
를 3년째 해오고 있다. 2014년도에는 우리 산
에서 피는 아름다운 야생화를 소개하는 전시
「우리 땅 우리꽃: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하였
고, 2015년에는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온 민속식
물을 주제로 한 「야생화, 우리 삶 속에 피다」,
2016년도에는 전통 복식에 표현된 야생화를
소재로 「우리 꽃, 우리 옷에 스미다」 라는 주제
로 전시를 하였다.

실내 전시와 연계하여 사랑채 앞마당에 석가
산을 만들었는데, 중국인에게 인기가 많아 존
치했으며, 2016년도에는 한국정원을 조성했
다. 북악산을 배경으로 전통재료인 장대석으
로 낮은 기단을 쌓고(월대), 네모난 연못(방지 연
못)을 현대적 재료로 틀을 짜서 주변의 풍경을
담고, 기단의 가장자리에는 자생식물을 식재
하여 기존의 석가산과 야생화원을 연계했다.



모현의료센터
보니또 정원 38



허브빌리지 42



혜세의 정원 46



산들모임 50



비뵤 뜰, 샬롬 54



아이노스 58



명지병원 건강보험
검진센터 숲마루 62



고당 66



산귀래별서 70



파머스 가든 봄 74



마이알레 My allée 80



유니스의 정원 86



야생화 테마정원 90



햇살정원 94



머내골이야기 98



식물원 K 102



플로라하우스 106



아모레퍼시픽
스토리가든 110



아내의 정원 114



향여제 정원 124



유년의 뜰 128



들꽃의 향기가
머무는 뜰 132



성안드레아 병원 136



마음의 정원 140

경기

모현의료센터 보니또 정원

위 치	경기 포천시 왕방로 210
면 적	약 1000평(대지면적)
조 성	2011
가드너	미소가득 화초봉사단



왼쪽 하단 가장자리에는 노란색 솔잎금계국과 플록스, 큰뺨의비름이 식재되어 있다.

포천에는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에서 운영하는 말기암 호스피스 환자들과 어르신 요양을 위한 병원이 있다. 병원 내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자들 뿐 만 아니라 환자 가족들을 위해 미소가득 화초봉사단이 만든 “보니또 정원”이 있다. 보니또(Bonito)는 스페인어로 “참 좋은, 예쁜”이라는 뜻이고, 우리말로 “보니 또 보고 싶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미소가득 화초봉사단”은 올해로 6년째, 한 달에 두 번 꾸준히 정원을 찾아 꽃을 심고 가꾸어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봉사를 한다. 수녀님과의 인연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된 신현자 단장은 1층 로비 실내정원을 새롭게 단장하는 것부터 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관리되지 않아 화단 밑으로 물이 새고 화초들이 시들어 있는 실내정원에서 죽어가는 식물들을 보면서 환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우울해질까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선뜻 사비로 실내정원부터 바꾸기 시작했다. 순수한 마음으로 묵묵히 봉사를 원하는 주변 사람들을 모아 자원봉사단을 꾸리고 치유를 위한 공간에 몇 개의 정원을 함께 가꾸고 있다.



보니또 정원은 환자들이 거니는 길과 기도하는 성모마리아상, 휴게공간으로 구성된다. 봉사단은 병원으로 들어가는 길, 성모마리아상으로 향하는 동선 주변으로 꽃을 심기 시작했다. 그리고 휠체어, 이동침대를 탄 환자들을 위해 울퉁불퉁했던 길을 매끄러운 포장으로 정비했고 휴게공간을 마련하였다. 하나씩 정원의 틀을 마련하고, 꽃을 심으면서 공간이 조금씩 화사하게 변하고 있다. 외출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도록 개화시기를 고려하여 식물을 선택하고, 밝고 따뜻한 색상의 꽃을 주로 식재한다고 한다.

병원에 들어서니 환자분들, 수녀님들이 봉사단을 웃으며 반긴다. 정원에 다양한 색이 들어온 것만큼 환자들의 반응도 다채로워 졌다. 환자들은 “감사하다, 예쁘다”는 말과 함께 “이 꽃의 이름은 뭐예요?” 등의 질문도 하며 주변에 관심을 가진다.

※ 봉사를 원하거나 봉사단의 활동이 궁금하시면, 다음 카페 “미소가득 햇살고운 집”를 방문해보시길... <http://cafe.daum.net/misogreen>

백일홍이 여름 정원을 가득 채우고 있다.

허브빌리지

위 치	경기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222
면 적	약 17200평
조 성	2006
가드너	박경원(마리오허브빌리지 직원)

화이트 가든. 수반의 물과 임진강물이 하나되어 흐른다.



윈드가든. 모빌과 역새는 바람을 눈과 귀로 느끼게 한다.

임진강변에 자리한 허브빌리지는 허브를 주제로 한 고요하고, 사색하기 좋은 정원이다. 수반의 물줄기가 임진강의 물과 하나되어 흐르는 ‘화이트가든’은 장소를 반영한 디자인의 진수를 보여준다. 이곳에 오면 늘 “디자인은 이렇게 장소를 반영해서 영감을 주어야 한다”고 느끼고 돌아가게 된다.

정원으로 들어와 처음 마주하게 되는 곳은 ‘윈드가든’이다. 바람이 불면 한 방향으로 눕는 역새의 선과 어우러져 돌아가는 모빌은 보이지 않는 바람을 시각과 청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



윈드가든 뒤로는 경사면에 라벤더 정원이 자리하고 있다. 늦봄에 일렬로 짝 펼쳐지는 보랏빛 물결은 최근 안젤로니아가 식재되어 분홍빛 향연으로 변모하고 있다. 펼쳐진 들판을 뒤로하고 산책로를 따라가면 화이트가든을 만나게 되고, 오르막길을 오르면 허브가든, 들꽃정원을 만나게 된다.

또 하나의 인상적인 공간은 허브 온실이다. 이 온실 안에는 8개 정원과 중앙의 썬큰 연못, 파머스테이블 음식점이 자리한다. 웅장한 5그루 올리브나무와 라벤더, 로즈마리, 체리세이지 등의 100여 종류의 허브가 균식되어 사계절 내내 허브향이 가득하고 가재보 쉽터, 토기 화분 등의 이국적인 소품이 난대식물과 어우러져 로맨틱한 분위기를 풍긴다.

정원은 2015년 12월 ㈜마리오허브빌리지가 인수하여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허브온실. 올리브나무와 아이비, 아래에는 라벤더와 로즈마리가 풍성하게 식재되어 있다.

헤세의 정원

위 치 경기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550-111
 면 적 약 10000평
 조 성 1986(송추농원), 2014
 가드너 조원장



북한산 자락에는 정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헤르만 헤세’의 이름을 딴 정원이 있다. 이곳은 1700년대에는 은퇴한 환관들이 살며 양잠을 하던 곳으로, 오래된 뽕나무들이 운치있게 자리하고 있다. 30년간 송추농원이었던 이곳을 2014년 정원으로 오픈하였다.

정원의 배경이 되는 북한산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정원을 만들고자 하는 주인장은 부모님과 아내와 함께 정원을 가꾸고 있다. 작은 텃밭과 꽃밭은 어머니의 취미 공간으로 텃밭의 채소들은 레스토랑 식재료로 손님들에게 제공한다. 넓은 잔디밭 가장자리에 식재된 가이즈까 향나무나 소나무 등은 송추농원의 흔적을 보여준다.



주인장은 오래된 나무들을 베지않고 자연스럽게 존치해 놓아 정원에 세월을 담았다. 또한 눈이 오는 날 사람들의 발자국이 많이 남겨진 곳에 보행로를 만들었다고 한다.

정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정원을 둘러보며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즐거움을 주기위해 아까시나무, 일본목련, 라일락 등을 식재하였다.

정원의 안쪽 북한산과 접해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눈에 띄는 하얀색의 투명재질로 된 버블 형태의 텐트가 있고 밤에는 빛나는 별을 볼 수 있다. 이곳에 머물며 하룻밤을 보내면 자연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이 들 것 같다.

새로운 것과 옛것이 잘 어우러진 공간에서 양잠으로 이용했던 뽕나무들과 옛날 송추농원의 흔적들을 찾아 보는 것도 정원을 감상하는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 같다.

010

산들모임

위 치 경기 파주시 파주읍 새봉암길 51-1
면 적 약 150평
조 성 2005
가드너 조원희



파주읍의 새봉암길 주택지에는 꽃이 많은 집으로 소문난 산들모임 정원이 있다. 낮은 돌담과 하얀 울타리 사이로 정원이 한눈에 보이는 이곳은 이웃에 열린 정원이다.

이 아담한 정원에는 자생종, 원예종의 구조류, 다육식물 등이 다채롭게 식재되어 개인정원이라기 보다는 ‘산들모임’이라는 이름처럼 산과 들의 식물이 모여 있는 작은 식물원 같은 느낌이 든다.



길 가장자리에는 채송화가, 중앙에는 빨간 사루비아 꽃이 가을정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다.

정원에는 작은 향아리와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배치되어 있어 주인장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손으로 직접 쓴 글귀들이 눈에 띈다. '마음이 아름답게 변하는 문'이라는 트렐리스에 적힌 글귀는 주인장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다.

정원 한가운데는 반송이, 그 주변으로 사루비아, 돌단풍, 세덤류, 바위솔, 채송화, 봉선화, 제비꽃 등이 식재되어 있다. 정원은 바깥에서는 한눈에 다 보이는 것 같았지만 안에 들어와 길을 따라 정원을 둘러 보면 디테일 하나하나에 시선을 빼앗겨 시간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게 된다. 그리고 집과 붙어 있는 온실에는 빨간꽃이 인상적인 브라질아브틸론이 벽면을 감싸고 있고 언제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화분에 다양한 식물이 식재되어 따뜻하고 다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현관 입구 삼단 선반에는 다육식물을 모아 화분에 전시하고 있다. 집에서 먹는 채소들을 기르는 텃밭과 산림조합에 납품하는 식물들을 재배하고 있다.

물확에는 부레옥잠이 담겨있다.



비비 뜰, 샬롬

위 치 경기 파주시 아동동 면산말길 33
 면 적 약 78평
 조 성 1995
 가드너 권혁임

감나무 아래 왼쪽으로 보라색 배초향과 수레국화가, 오른쪽으로 노란색 다알리아와 주황색의 란타나가 식재되어 있다.



한적한 주택가 사이에 유독 눈이 가는 집이 있다. 낮은 담벼락 너머로 꽃과 나무들이 한가득 하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담벼락을 따라 만든 쉼터에는 노란 자전거와 노란 벤치가 놓여있다.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이 들게 한다. 정원을 들어서는 대문옆에는 ‘샬롬’이라는 문패가 보인다. 정원을 찾는 모든 이들이 샬롬(히브리어로 안녕이라는 뜻)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진다.

안주인은 정원에서의 행복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누구든지 정원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꽃씨를 따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며 언제든 지 사람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소통하기를 바란다.



“야생화연구회”에 가입하고 우리꽃의 아름다움에 대해 알아가면서 조금씩 심어 놓은 식물들이 벌써 100여종이 넘었다. 남편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돌계단과 돌담 그리고 자그마한 연못을 만들었다. 옥상에는 ‘겨울정원 온실’을 만들어 겨울철에 식물을 이곳으로 옮겨 놓는다. 20년이상 정성들여 가꾸어 온 정원에는 부부의 추억과 인생이 담겨져 있다. 부부에게 정원이란 소유하는 공간이 아닌 인생을 함께 하는 동반자 같은 곳이라고 한다.

아담한 집을 중심으로 정원에는 약 100여종의 초화류(단풍나무, 매화나무, 살구나무, 후박나무, 대추나무, 왕보리수, 해당화, 붓꽃, 금낭화, 꽃범의꼬리, 말발도리, 노루귀, 투구꽃, 노루오줌, 백일홍, 봉선화, 맨드라미, 채송화 등)와 나무들이 가득하고 정원과 나이가 같은 오래된 살구나무가 인상적이다.



연못에는 연꽃과 수련이 가득하고, 가장자리에는 붓꽃류가 식재되어있다.

012 아이노스

위 치 경기 파주시 돌곶이길 182
면 적 약 200평
조 성 2014
가드너 이영희

자춧빛 맨드라미와 백일홍이 정원에 색을 더한다.



붉은꽃인동덩굴(셈페르비렌스 인동, *Lonicera sempervirens* L.)

경기도 파주 심학산 둘레길 자락에 위치한 아이노스는 원형의 독특한 건물을 정원이 둘러싸고 있어 지나가는 방문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주인장은 바리스타이고, 이태리 요리사인 자녀들과 함께 카페 겸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정원은 식물의 크기, 색, 질감 등을 고려하여 배경이 되는 식물들을 바탕으로 화려한 일년초가 매년 다르게 식재되어 매년 분위기가 바뀐다. 봄에는 꽃양귀비와 작약이 가득하고, 여름엔 수국, 가을엔 국화류가 정원을 한가득 메운다. 우리가 찾은 9월에는 맨드라미, 다알리아, 비비추, 붓들레아, 돌단풍, 수국, 데이지, 금잔화, 국화 등이 어우러져 있었다. 카페 한쪽 벽면에는 풍선덩굴을 식재하여 9월에 열매가 대롱대롱 매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정원의 한켠에는 파라솔과 테이블이 있어 차나 음식을 먹으며 정원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정원은 작은 오솔길을 따라 둘러볼 수 있다. 정원을 자유분방하게 거닐고 있는 화려한 닭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또 하나의 재미이다.

주인장은 나무와 꽃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하며 '동네 정화운동'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이웃들에게 꽃씨나 식물을 나누어주기도 한다. 인터뷰하는 내내 정원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정원을 사랑하는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명지병원 건강보험 검진센터 숲마루

위 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 명지병원(M관 4층)
 면 적 약 150평
 조 성 2012
 가드너 이왕준(이사장), 송경석(시설관리팀장)



“명지병원 건강보험 검진센터 숲마루”는 2014년도 드라마에 나온 병원으로, TV에서는 병원이 아닌 일부러 만든 세트장처럼 보였던 공간이다. 이곳 실내 정원에는 계류를 따라 물이 흐르고, 벽천에서 시원하게 물이 떨어지고, 편백나무 숲길도 있다. 실내정원임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식물 구성이 돋보이는 공간이다. 실내에는 알로카시아, 치페루스 등 관엽식물과 배롱나무, 낙엽송 등 교목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



시설관리팀장 송경석 선생님과 인터뷰를 통해 식물의 유지, 관리 방법을 들어보았다. 천장이 통창 유리로 되어 있어 햇볕이 실내까지 들어오고 공기를 순환시키는 냉난방 순환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한다.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정원을 만든 것인데 평소에 자연과 정원에 관심이 많았던 이사장님의 생각이 병원을 녹색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실내 정원에는 메타세쿼이아 숲길, 화산석이 깔린 편백나무 숲길 산책로, 벽천 앞의 낙우송 숲, 의자가 놓인 쉼터에 후박나무, 아왜나무, 금목서, 배롱나무 등의 교목과 산수국, 꽃댕강나무, 백정화 등의 관목류를 비롯한 20여종의 나무들이 식재되어 풍성한 숲을 이룬다.

산석으로 만든 벽천에서 흘러내린 물은 계류로 흐르고 연못으로 모인다. 벽천에는 이끼와 풍란이, 그 앞으로는 토란과 속새가, 연못에는 노랑어리연꽃, 물양귀비, 물칸나 등이 식재되어 있다. 숲과 물이 있으니 새도 정원에 모인다.

정원에는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 뿐 만아니라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도 눈에 띈다. 옆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도 자주 정원을 찾는다고 한다. 검진을 받으러 온 사람들, 환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종종 정원을 찾으니 누구든지 자유롭게 정원으로 와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신다.

014

고당

위 치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121
면 적 약 600평(대지면적)
조 성 2006
가드너 이혜정·김병렬(부부)



‘한옥에서 마시는 커피’로 알려진 카페 고당은 88칸 전통 사대부집으로 지어진 한옥,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정원이 있다. 주차장에서 소나무가 식재된 마당을 통과하여 솟을대문에 들어서면 마당을 좌우로 가르는 허리 높이의 담이 있는데 이를 경계로 오른쪽에는 행랑채와 아래 정자가, 왼쪽에는 안채와 별당, 정자가 자리한다. 전통 주택정원에서 마당은 비워 다양한 생활공간으로 활용하듯이 한옥에서도 마당은 비워놓고 담장 주변으로 식물을 식재하였고 여성들의 공간인 안채 뒤에는 화계로 구성된 뒷마당이 자리한다.



돌단풍



조팝나무류

전문 도편수가 감독하여 5년에 걸쳐 만든 한옥과 정원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정성을 다해 지어졌고, 정원 역시 구성의 원칙은 전통적인 방법을 따랐다. 화계는 2단으로 구성되며 외편굴뚝 2개가 양쪽으로 균형을 잡고 자리하고 있다. 뒷마당 화계의 왼쪽에는 장독대와 석빙고가 있어 발효음식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또 하나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안채와 행랑채 사이에 자리한 허리 높이의 담이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마당 안에 구성되는 담장은 안팎의 시야와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그 높이를 정교하게 조정하며, 문양을 새기어 장식하거나 의미를 담는다. 꽃담 앞에는 왕벚나무와 산수국, 매화나무, 옥매, 화살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고, 계절마다 초화류를 달리 식재하여 분위기를 때때로 바꾼다. 우리가 찾았던 여름에는 풍접초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모란, 작약 등의 전통적인 소재에서 벗어나 신선함이 느껴졌다. 정원의 식재는 부인 이해정씨가 담당하고, 남편은 공간을 기획하고 정원관리를 한다.

뒷마당 화계에는 외편으로 만든 굴뚝이 있고 반송, 조릿대, 범부채, 기린초 등 다양한 식물이 식재되어 있다.

산귀래별서

위 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길 205
 면 적 약 1800평
 조 성 1995
 가드너 박수주, 이백길

한여름 정원에는 주황색의 참나리가 돋보인다.



‘청미래덩굴의 덩이모양 뿌리’를 뜻하는 ‘산귀래(山歸來)’ 정원은 사슴장이었던 곳을 20년간 정원으로 가꾼 곳이다. 목왕 2리 박수주 이장님과 25년 함께 일한 이백길 새마을지도자가 생활하는 공간으로, 이장님은 오랫동안 우리 들꽃의 아름다움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재배가 쉽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야생화를 보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연석, 비누만들기, 자연놀이, 요리교실 등 식물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왔다. 현재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공간을 공유하며 넓은 잔디밭에서 야외 결혼식이나 산귀래문학상 등의 행사를 한다. 주인장은 수필을 쓰는데, 매년 꽃이 가장 좋은 날에 정원에서 좋은 사람들과 산귀래문학상 행사를 한다.

집 뒤로 펼쳐진 정원에는 중앙에 너른 잔디마당이 있고, 그 둘레로 산책할 수 있는 경사진 길이 있다. 잔디밭의 가장자리, 산책로 주변에 초화류가 식재되어 있는데, 이른 봄 수선화, 무스카리 등 구근류와 복수초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여 봄에는 피나물, 매발톱, 돌단풍이 꽃을 피우고, 여름이 되면 참나리, 백합류, 호스타류, 맥문동, 벌개미취 등이 끊임없이 피고진다.



산책로를 거닐다 보면 트렐리스, 차를 마실 수 있는 정자, 그네 등을 만나게 되는데 천천히 여유롭게 식물과 대화하며 산책할 수 있는 길이다. 많이 높지 않은 산책로의 정상은 울창한 숲으로 나무의 자가 테이블과 함께 나란히 잔디밭을 향하고 있다. 시원하게 펼쳐진 푸른 잔디밭. 그리고 하얀 집이 나뭇잎 사이로 들어온다.

잔디밭과 산책로가 만나 생긴 중앙 사면에는 스탠드를 두고, 산석을 쌓아 연못을 만들었다. 연못으로 떨어지는 물은 냄비가 받아 거북이에게 전달한다. 냄비에 물이 채워지면 아래로 내려가 철과 부딪힌다. 딱.딱.딱... 연못에 물을 채우는 방법은 고요한 정원에 리듬과 웃음을 준다. 정원의 의자, 테이블, 트렐리스, 정자, 연못 등의 모든 시설물은 박수주 이장이 디자인해서 이백길 지도자가 만들거나 직접 디자인해서 완성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볼 수 없는 독특한 것들이 꽤 많다.

파머스 가든 봄

위 치	경기 양평군 강상면 강남로 729-45
면 적	약 20000평
조 성	2013
가드너	곽상용

가우라 ‘윙링 버터플라이’와 리기다베베나가 혼합 식재되어 있다.



입구 사면에는 띠와 역새가 군락으로 식재되어 있다.

정원 입구에서 바라보면 두 동의 단순한 목재 건물이 가로로 길게 놓여있다. 부드러운 곡선을 그은 건물 아래에는 역새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어 마치 초원 위에 배가 떠 있는 듯하다. 정원에 대한 첫인상은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시원한 느낌을 주었다.

오르막 길 끝에는 레스토랑 건물이 보이고 중간쯤, 오른쪽으로 난 길을 따라 내려가면 입구에서 봤던 목재 건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갤러리로 활용되는 건물에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건물 끝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있다. 갤러리 앞에는 움푹하게 파인 여백의 공간, 잔디밭이 있어 가끔 음악회가 열리기도 한다.

오르막길 끝에서 마주하게 되는 레스토랑 ‘꽃’에서는 텃밭 정원에서 재배한 채소들로 건강한 음식을 만든다.



파머스 가든 봄의 명소이기도 한 '텃밭 정원 (Kitchen Garden)'은 텃밭이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텃밭 정원의 가장자리는 주목으로 생울타리를 둘러 아늑한 느낌을 주었다. 그 안에 점토벽돌로 식재공간을 낮게 구획하여 각종 채소와 허브류, 식용 꽃, 과일나무들을 식재하여 식물별로 가지런히 식재를 했다. 저 멀리 식재공간에는 대나무로 트렐리스를 만들어 방울토마토를 심어 두었다. 가을 정원에서 두두둑 떨어지는 토마토를 하나 집어 입속에 머금는다.

텃밭정원에는 무와 같은 쌈채류, 블루베리 등의 유실수와 함께 가장자리에는 천일홍 등의 상생 초본식물이 식재되어 별레를 쫓는다.



오래된 벚나무를 배경으로 주목생울타리를 두른 텃밭정원이 있다. 텃밭정원에는 체리세이지, 한련화 등 벌레를 쫓는 상생식물이 함께 식재되어 있다.

레스토랑에서 나오면 양쪽으로 오래된 벚나무가 줄지어 만든 운치있는 길이 있는데, 길을 따라 가면 갑자기 남한강을 만나게 된다. 이 벚나무는 65년 전에 동네 분이 어린 묘목들을 마구잡이로 땅에 심고, 반듯하게 자란 나무는 팔려나가고 구부러지고 못한 나무들만 남게 되었는데, 시간과 자연이 예상롭지 않은 나무의 포스를 만들어냈다. 여름에는 꽃양귀비가 군락을 이뤄 여러여리하면서도 화려한 꽃밭을 볼 수 있다.

주인장은 귀농을 했고, 흙을 만지고 자연에서 느린 삶을 즐기고 있다. 문화가 있는 여유로운 농촌을 꿈꾸며 편안한 정원에 머무르며 자연 속에서 그림과 조각 작품을 보고, 공연도 즐기고, 맛있는 음식과 차를 통해 여유로운 삶을 사람들에게 권한다. 매년 변화하는 정원을 선보이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정원 일을 하고 있다.



마이알레 My allée

위 치 경기 과천시 삼부골3로 17
 면 적 약 2600평
 조 성 2008, 2014(카페 오픈)
 가드너 우경미·우현미 (자매)



숲 속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작은 유리온실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

‘내 집처럼 즐기라’는 뜻의 ‘마이 알레’는 조경·정원·플라워·인테리어 등의 디자인을 모두 하는 토털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 회사를 기반으로 한 농장이자 레스토랑이다. 사실 농장은 마이알레의 아카이브이자 실험실로 2008년에 만들기 시작했다. 기존의 소나무와 참나무 숲은 그대로 보존하고, 최소한의 공사를 했다.



마이알레의 디자인은 자연에서 비롯된다. 해외에서 여러 가지 묘목을 들여와 국내의 기후에 맞는지 농장에서 시간을 갖고 지켜보고 실제 조경 현장에 적용한다. ‘스카이로켓’으로 유통되는 연필모양의 스코폴로룸향나무 ‘스카이로켓’은 마이알레에서 겨울을 잘 견디는지 실험 후 정원에 식재하였고, 국내에 유행처럼 심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래스류와 허브류, 덩굴식물 등 다양한 식물이 실험용으로 심어진 덕분에 마당은 풍성해졌다. 유행을 좇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이끄는 마이알레의 뒤에는 끊임없는 실험과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2014년에는 농장에 레스토랑을 오픈하여 사람들과의 소통을 시작하였다. 1층에는 먹을 수 있는 식물로 만든 ‘셰프의 정원’에서 기른 재료로 요리하는 건강한 레스토랑이, 2층에는 가든용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있다.

옥상에서 보면 다양한 식물이 식재된 하나의 작은 숲이다. 옥상에서도 스코폴로룸향나무 ‘스카이로켓’은 단연 눈에 띈다.



2F 가든용품 매장에는 다양한 정원소품을 판매한다.

우경미 대표는 “정원의 최고봉은 온실이에요”라고 하시며 올해 오픈한 온실, 윈터 가든으로 안내한다. 밖과 안의 풍경이 경계없이 넘나드는 유리온실이 정원의 끝에 길게 자리하고 있다. 사계절 푸르른 상록의 다양한 식물이 테이블과 함께 감각적으로 배치되어 식물 속에서 차를 마신다.

마이알레에서는 다양한 전시, 마켓, 수업 등이 기획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종종 만든다. 매년 봄에는 식물을 주로 판매하는 그린마켓을, 가을에는 짚단을 활용하여 신나게 뒹굴고 노는 축제 개념의 헤이마켓을 열어 정원 용품, 패션, 리빙 상품을 판매하고 공연과 행사를 즐긴다.

우현미 소장은 농장을 “게으른 정원”이라고 소개한다. 우리는 가드너의 게으름은 잘 모르겠고, 정원에서 가드너의 세련된 감각만을 느낀다. ‘게으르다’는 것은 관리를 적게 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은 적당히 자연스럽다. 가드너는 즐겁게 정원을 즐기고, 섬세하게 자연을 느껴보라고 권한다.

“자연에는 식물 뿐만 아니라 거미, 벌, 새 등이 만드는
섬세한 감각이 숨어 있고, 사계절,
아름답고 감동적이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온실에서는 떡갈잎고무나무 등의 관엽식물과 만병초, 금굴 등의 난대식물이 풍성하게 식재되어 있다.

018

유니스의 정원

위 치 경기 안산시 상록구 반월천 북길 139
 면 적 약 3000평
 조 성 2003, 2007(레스토랑 오픈)
 가드너 지승현



한 핑크색 바탕에 연두색으로 정원의 이름이 칠해져 있는 레스토랑 건물을 보고 들어선다. 레스토랑 앞에는 허브정원이 있는데 등나무 덩굴과 어우러진 조명 등의 장식이 하늘을 덮고 있어 들어가는 입구가 아늑하고, 야경이 인상적이다. 체리셰이지, 멕시칸셰이지, 로즈마리 등의 허브식물은 분홍색의 목재로 된 낮은 울타리 안에 식재되거나 울타리를 이루기도 하면서 향긋한 향을 풍긴다. 조명장식, 울타리, 안내판, 벤치 등 모든 것이 손으로 깎고, 칠하고, 속세질하여 직접 만들어져 반듯하진 않지만 정감있다.

안산 반월천 옆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정원은 주인장의 할아버지 선산의 버섯재배지였다. 정원은 기존의 지형을 최대한 살려 조성했다. 30년 전 배나무 과수원 자리에 묘목을 심고 가꾼 것이 지금은 숲이 되었고, 그 숲을 배경으로 취미로 정원을 가꾸다가 2007년 레스토랑을 오픈했다.





“유니스eunices”는 주인장의 세레명이다. 어릴 적 친구 집에 놀러갈 때 ‘oo네 집’에 간다고 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정원이 불릴 수 있도록 이름 붙였다고 한다. 이름처럼 친근하고 따스한 손길이 느껴지는, 편안한 정원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고 한다.

허브정원에서 나오면 꽃을 따는 공간이 있는 건물이 보인다. ‘이로운 풀’이라는 뜻의 ‘이풀’이라 이름 붙여진 건물은 산을 깎아내는 대신 언덕의 경사를 그대로 살려서 지은 건축물이다. 실내정원으로 들어서면 양쪽으로 정원 용품, 디자인 소품, 수공예품, 허브용품을 살 수 있는 ‘가든 센터’와 국내외 정원관련 서적과 교양서가 있는 ‘읽는 정원’, 그리고 베이커리가 1층에 자리하고 있다.

건물의 중앙에는 냇물, 언덕, 식물, 바위 등 외부 자연환경을 담고 있는 온실, ‘걷는 정원’이 있는데, 건물의 한가운데에는 시원하게 계류가 흐르고, 휠체어와 유모차도 관람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따라 지그재그로 오르막길을 산책하며 작은 정원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산책을 하며 3층으로 가면 공간이 좁은 실내에서도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는 가드닝을 제안한 벽면 녹화 방법과 작은 정원이 전시된 ‘즐기는 정원’이 있다.

건물을 나오면 소나무 정원이 있는 숲 산책로로 연결된다. 30년 이상 된 큰 나무들이 만드는 그늘 아래 완만한 산책로를 걷다보면 ‘계류 정원’과 닭장, 나무로 만든 각기 다른 모양의 새집이 있는 ‘새들의 쉼터’ 등을 만나게 된다. 중간 중간에 쉬었다 갈 수 있는 나무 의자가 놓여 있어 여유로운 산책을 이끈다. 유니스의 정원은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가꾼 아기자기한 정원이었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이었다.

야생화 테마정원

위 치 경기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592-8
 면 적 236평(대지면적)
 조 성 2005
 가드너 유금명·송정섭(부부)

정원 입구에는 반송과 홍공작단풍, 들나물과 식물이 풍성하게 식재되어 담장 역할을 하고 있다.



현관에 놓인 댕싸리 빗자루와 물들고 있는 담쟁이덩굴이 자연스러움을 더한다.

‘벚꽃마을’이라는 마을의 이름처럼 이 마을에는 벚나무가 가득해 봄에 장관을 이룬다고 한다. 무릎 높이의 낮은 자연석 담장 가장자리에 심긴 나무가 자연스럽게 담 역할을 하며, 우직하게 생긴 개가 집을 지키고 있다. 자연석 사이사이에도 들나물과 식물을 식재하여 꽃밭을 거닐 듯 3단의 돌계단을 오르면 디딤돌이 놓여있는 잔디마당을 마주하게 된다. 집을 중심으로 가장자리 사방으로 가득, 다양한 식물이 식재되어 있다. 현관입구에는 댕싸리로 만든 빗자루가 정겹게 놓여있다.



앞마당 가장자리 화단에는 안주인이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라면서 보았던 식물을 주로 식재하였다. 봉숭아, 채송화, 파리, 맨드라미, 감국 등을 심었는데, 봄에는 마가렛, 가을에는 구절초가 특히 장관을 이룬다고 한다. 우리가 찾았던 가을에는 해국, 산국, 감국, 흰감국, 구절초 등 국화와 식물이 주로 눈에 들어왔고, 산국을 배경으로 핀 파리의 빨간 열매가 조화롭고 아름다웠다.

부엌과 바로 통하는 뒷마당에는 텃밭과 허브정원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주로 심었다. 텃밭에는 고추, 토마토, 상추, 파, 호박 등을, 가장자리에는 모과나무, 감나무, 매화나무 등 유실수를 식재하였다. 떨어진 감을 새의 먹이가 되도록 놓아둔 모습이 정겹다. 딸이 관리하는 허브정원에는 애플민트, 페퍼민트, 초코민트, 로즈마리 등을 심고 정성스레 손으로 식물의 이름을 적어두었다. 뒷마당의 가장자리에는 물이 흘러들고 속새, 노랑꽃창포 등 습지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을 식재하였다.

테라스에 앉아 앞마당을 바라보며 정원에서 따서 만든 산국 차를 마시는 소박한 전원생활의 여유로움이 부럽다.

가을의 정원. 산국의 노란 꽃과 파리의 주황 열매가 조화롭다.

위 치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고기로 779
 면 적 약 1500평(대지면적)
 조 성 1999
 가드너 이복임·신주식(부부)



바라산을 품은 정원의 이른 봄, 메타세콰이어 신록과 벚나무가 한 폭의 그림같다.

“정원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주인장은 경기정원문화대상에서 상을 받고, 그 모임을 통해 친구가 된 신현자 선생님과 만나 서로 공감하는 대화를 나눈다. “정원은 인생 최고의 동반자이고 삶을 풍성하게 해준 친구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신다.

17년 전 아파트 생활을 접고 바라산 아래 집을 짓고 가꾸기 시작한 정원은 지금 풍성해졌다. 호미질로 변하는 아름다운 공간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 주인장은 탄천에도 꽃을 심고, 집으로 들어가는 마을길에도 꽃을 심었다. 호미를 들고 꽃을 심는 것이 일상이 되고, 여행을 가도 정원이 아름다운 곳을 찾게 되며 주인장은 점점 정원에 중독되어 갔다.

햇살정원은 바라산으로 둘러싸인 붓골재 골짜기에 자리한다. 산 속 깊숙한 곳에 자리하니 계절에 따라 산이 변화하는 풍경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신록이 올라오고, 벚꽃이 피는 봄 풍경은 한 쪽의 수채화라고 한다. 이 풍광 좋은 곳에 만들기 시작한 정원은 최대한 자연을 존중하여 만들고자 했기에 지금 정원에 가면 무엇이 식재한 나무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물길에 계류를 만들고, 물이 모이는 곳에 부정형 연못을 뒀으며, 큰 나무 아래 데크 쉼터를 만들었다. 산을 오르는 산책로에는 좁은 폭으로 길을 내어 주변에 식물을 심고, 온실을 만들었다. 온실에는 월동되지 않는 식물 뿐만 아니라 분재로 만든 식물들이 꽤 많다.

집 앞으로 정원을 집중적으로 만들었다. 큰 느티나무 아래 데크 쉼터를 만들고, 쉼터 앞 잔디밭에는 조각품을 놓았다. 처음에는 정원에 별다른 주제가 없었는데, 정원을 알아가면서 주제를 갖춘 정원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지금 정원에는 소나무를 중심으로 여름에는 마가렛, 수국백당, 조팝나무 등 하얀색 꽃이 피는 화이트 가든도 있고, 그래스를 주제로 한 정원도 있다. 잔디밭을 둘러싼 사면에는 올해 암석정원을 만들었다. 사초류와 용담 등의 키가 작은 식물과 화산석, 향아리, 마사토 등으로 구성된 암석정원은 올해 정원 일의 이슈였다고 한다. 내년에는 장미원을 만들거라고 하신다. 매년 변화하는 정원이 주인에게는 큰 낙이다. 주인장은 “지금 여기에서 정원을 만드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신다.

머내골이야기

위 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동원로 7
면 적	약 300평
조 성	2009
가드너	김종명·조숙현·김경자(가족)

연못에는 수련, 물옥잠이 가장자리에는 노랑꽃창포와 가우라 ‘월링 퍼터플라이’가 식재되어 있다.



분당 동원동에 위치한 수제 바베큐 전문점 “머내골 이야기”의 ‘머내’는 동원동의 옛 지명이다. 도로와 면한 1층 식당 가장자리에는 1m 정도 녹지공간을 두어 자작나무, 히어리, 화살나무 등을 풍성하게 식재해 놓았는데, 이는 주변에 사는 이웃과 정원을 함께 나누기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 내부 정원을 암시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정원의 주요 공간은 식당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 정원 가장자리에 있던 감나무, 은행나무, 밤나무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나무를 더 뻗뻗하게 심어 정원을 아늑하게 했다. 정원의 오른쪽에는 잔디를 심고 비워두어 아이들이 편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했으며 왼쪽에는 연못, 데크, 온실, 개집, 사슴장 등의 요소들을 시원시원하게 배치하였다.

정원의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반듯하게 생긴 연못에는 한줄기 폭포가 솟아오르고, 사각형의 징검돌이 있어 연못을 건널 수 있도록 했다. 연못에는 잉어가 살고 있고, 어리연꽃과 연꽃이 뺨뺨하다. 연못의 가장자리에는 털부처꽃, 억새, 구절초, 가우라, 띠 등이 자연스럽게 식재되어 있다.

연못 왼쪽으로는 긴 데크길이 이어져 정원의 중심을 잡고 있고, 데크 길의 왼쪽에는 개집과 온실이 나란히 위치해있다. 주인장은 동물을 좋아해 현재 정원에는 개 4마리, 사슴 2마리, 토끼 10마리, 닭 3마리, 두더지, 다람쥐, 잉어가 함께 살고있다. 나무로 만든 개집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가 사는데, 온실과 디자인을 통일하여 섬세하게 설계되었다.



연못 뒤 흰색 프레임의 온실은 장모님의 취미 공간이다. 온실 안에는 가운데 동선을 제외하고 뺨뺨하게 식재된 식물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식물원 K

위 치 경기 용인시 포곡읍 옥현로 65번길 238
 면 적 약 60평(실내정원)
 조 성 2008, 2012
 가드너 송용호



‘식물원’과 ‘Kitchen’의 합성어인 “식물원 K”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 이 곳은 숲 속에서 식사하는 느낌을 실내에서 받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다. 테이블 사이 기둥과 바닥부터 높은 천장까지 벽면을 빼곡하게 식물로 덮어 만든 월 가든(wall garden)이 이 곳의 특징으로 사계절 내내 푸릇함을 준다.

주인장은 벽면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그린 와이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9년 전 월 가든(wall garden)의 쇼 룸(show room)으로 항공기 격납고를 재활용하여 건물을 만들었는데, 테이블을 하나, 둘 놓기 시작하면서 레스토랑으로 용도가 바뀌게 되었다.



벽면에는 나한송, 송악, 녀줄고사리, 남천, 팔손이, 영산홍, 야생화 등 약 35종의 식물이 식재되어 푸릇푸릇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 남천, 팔손이, 송악 등 남부 지방에 자생하는 우리식물도 눈에 띄는데 충분한 빛을 받지 못하는데도 식물이 의외로 잘 자라는 것은 독창적인 기술로 특허를 받은 자동관수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시간을 설정해두면 자동으로 관수되므로 손쉽게 식물을 관리할 수 있다.

주인장은 실내에서 함께하는 식물을 ‘반려식물’이라고 칭했다. 식물이 실내에서 사람들과 늘 함께 지내면 사람들은 식물의 변화를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고 더 잘 보살피게 된다. 그러면서 사람과 식물은 편안하게 친해지고, 교감하게 된다고 하며 삶에서 함께하는 식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식물이 삶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지는지 식물과 사람이 공생하는 생활 속의 정원을 방문해서 느껴보길 바란다.

플로라하우스

위 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목리 408
 면 적 약 600평
 조 성 2003
 가드너 윤선자·양해용(부부)

현관으로 들어가는 앞마당에는 자연스러운 마운딩 사이에 작은 길을 만들고 잘생긴 소나무를 식재하였다.



하천의 물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계류를 만들었다.

정원은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는 것처럼 깔끔했다. 하지만 정원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법하다. 주인 부부는 정형화된 정원이 싫어 전문가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정원을 만들자고 다짐하고 척박했던 모래땅에 3년 동안 정원을 위한 땅을 만들었다. 트럭 2500대 분량의 흙으로 부어 마운딩을 하고 800대 분량의 마사로 땅을 만들었다. 집 뒤에는 굴암산이, 집 앞으로는 용덕사천이 흐르는데, 부부는 주변의 자연과 어울리는 정원을 만들고자 했다.



뒷마당에는 넓은 잔디밭을 두어 손자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했다.

산을 배경으로 한 집으로 들어가는 앞마당은 자연스러운 언덕 사이로 놓인 디딤돌과 군데 군데 잘 다듬어진 반송이 인상적이다. 뒷마당은 꽤 넓은데, 가운데는 잔디밭이 자리하고 한 쪽으로 냇가의 물을 이용해 계류를 만들었고, 가장자리로 식물을 빼곡이 식재하여 굴암산과 연결했다. 넓은 잔디밭임에도 밋밋한 느낌이 들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마운딩도 한 몫을 하는 것 같다.

집 앞에 놓인 데크는 작년에 정원에서 있었던 딸 결혼식을 위해 직접 만든 것으로 흰 페인트로 그린 큰 꽃무늬는 꽤 인상적이었다. 집과 연결된 데크에는 의자와 테이블을 두어 휴식하는 공간으로, 데크 한쪽으로 식재를 하여 아늑함을 더했다. 정원에서 치른 딸의 결혼식에서 계류를 지나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걸어 들어오는 감동적인 장면을 설명해준다. 햇살 좋은 날, 정원에서의 결혼식은 상상만해도 낭만적이다.

집 뒤로는 아기자기한 정원과 온실을 두었다. 안주인은 화려하지만 우아한 색감의 수국을 좋아해 산수국, 아나벨 수국 등 다양한 수국을 모으고, 월동이 안되는 식물은 겨울에 온실로 들여놓는다. 정원이 너무 깔끔해서 남의 손을 빌리지 않는지 궁금했는데, 소나무 전지만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한다.

플로라하우스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보이지만, 오랜 시간 부부의 보이지 않은 정성이 가득 들어간 정원이었다. 정원은 부부가 좋아하는 식물로 채워지는 취미 공간이자 손자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가족을 위한 공간이었다.



집 뒤에는 화산석과 키가 작은 식물로 조성된 작은 정원이 있다.

아모레퍼시픽 스토리가든

위 치 경기 오산시 가장산업동로 37
 면 적 약 25158평
 조 성 2012
 가드너 한권영·김종문 (조경팀 직원)

※이곳은 화장품을 생산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한다.
 정해진 관람 시간에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실내공간 및 외부공간을 둘러볼 수 있다.



원료식물원에는 매실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자원식물들이 식재되어 있다.

아모레퍼시픽 오산공장은 화장품을 생산하는 공장과 기업 역사와 제품을 홍보하는 스토리가든, 예술작품이 전시된 갤러리, 화장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식재해 놓은 정원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입구에 들어서면 큰 거울못에 한 손을 짚고 스케이트를 타는 파란색의 ‘더 스케이터(The Skater)’ 라는 미술작품을 볼 수 있다. 건물로 들어서면 기업의 역사와 화장품 이야기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스토리가든’을 관람할 수 있다. 외부공간에는 ‘메모리얼 가든’과 ‘원료식물원’이 있다. 메모리얼 가든은 수원과 김천 공장이 통합되면서 수원 공장에 있었던 느티나무와 단풍나무, 김천공장에 있었던 소나무, 은행나무를 오산공장으로 옮겨와 건물 측면 잔디밭에 식재하여 만들었다.



원료식물원은 화장품의 원료가 되는 70여 종의 허브식물과 200여 종의 자생 약용식물이 식재된 디스플레이 가든과 보태닉 가든, 재배·연구용 온실로 구성된다. 정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도 하지만 연구원들이 식물의 생육과정을 보고, 꽃을 통해 영감을 얻기도 하고, 식물학자와 꽃의 효능을 밝혀내기 위해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첫 번째 갤러리 뒤에 위치한 디스플레이 가든은 직사각형 식재공간에 자생 약용식물과 허브식물이 열맞춰 식재되어 있다. 갤러리를 지나면 자작나무가 군식된 인상적인 길이 나오며 재배온실로 이어진다.

길의 오른쪽에는 수생식물이 가득 식재되어 있는 큰 연못과 두 번째 갤러리가 자리하고 있다. 재배·연구용 온실에는 정원 식물을 증식, 재배하는 이동식 공간이 가운데 자리하며 가장자리에는 경사진 동선을 따라 난대 식물을 배치해 놓았다. 온실 옆에는 ‘마몽드 존’이 있어 마몽드 화장품의 연료가 되는 4종류 식물(인동덩굴, 연꽃, 동백나무, 수선화)의 세밀화, 화장품을 만드는 과정, 종자, 꽃, 향기, 제품화 된 화장품을 감각적으로 디스플레이 해놓았다. 현재 원료식물원에는 647종의 식물(교목 52종, 관목 44종, 자생 약초 427종, 허브식물 83종, 곡류 36종)이 있어 식물원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아내의 정원

위 치 경기 오산시 서랑로 148
 면 적 약 3000평(대지면적)
 조 성 1996
 가드너 안홍선·양위석(부부)



전문가의 소개로 찾아가던 정원은 ‘들꽃 정원의 어머니’ 안홍선 선생님이 가꾸는 정원이었다. 1977년부터 산에서 자라는 야생화를 정원소재로 사용하여 연회동에서 정원을 가꾸은 안주인은 한국 최초의 초원풍 정원을 선보이며 1987년에 내무부 주최 ‘아름다운 가정’ 부문 대상을 받았고, 야생화 정원의 물꼬를 트신 분이다. 선생님은 고향이 함경도인데, 어린시절 집 울 안에 피어있던 꽃들을 기억하며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 병을 얻어 시아버님이 살던 공기 좋은 오산 시골집으로 내려와 정원을 가꾸며 살게 되었는데, 호숫가 야생화 정원은 2006년 경기도 녹지재단이 주최하는 ‘제1회 가정 정원가꾸기’ 부문에서도 대상을 받았다.



정원은 서랑호수를 바라보며 호수와 맞닿아있는 곳으로 시원하면서도 고독한 호숫가 정원의 매력을 느끼게 해준다. 3번 정도 찾아간 정원은 매번 다른 모습을 보였고, 계절마다 어떤 풍경을 보일지 궁금해지는 매력이 있다.

호숫가 정원에는 500여 종의 식물이 계절별로 피고지며 풍성하고 자연스러운 풍경을 만들고 있었다. 별개미취, 원추리, 마타리, 부처꽃, 자운영, 꽃양귀비, 달맞이꽃, 창포, 붓꽃, 제비꽃, 접시꽃 등 들에서 자라는 식물이 가득하다.

대문에서 정원을 지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슬레이트 지붕에 시멘트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시골집을 일부 고쳤다. 집 앞에 나무 패널을 대고, 덩굴 식물 '등'을 올려 휴게공간을 마련하였는데, 지금은 등이 무성하여 봄에 꽃이 필 때나 가을에 열매를 달 때 꽤 운치있는 풍경을 만든다.

안주인은 하루 온 종일 정원에 있을 때도 있고, 밤에 자다가 잠옷차림으로 정원에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정신없이 잡초를 뽑는다. 연락도 없이 정원을 두 번째로 불쑥 찾아간 날에도 기척도 못 느끼시고 집중해서 잡초를 뽑고 계셨다.

안주인은 세계적인 퀼트 작가로, 꽃이 저버린 겨울이나 밤에는 조각 천으로 꽃을 만들며, 꽃 그림을 누비고 꽃에 대한 글을 쓰신다. 바깥주인은 안주인이 가꾼 정원과 퀼트 작품을 사진으로 열심히 기록한다. 두 분은 지금 정원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집을 준비 중이시다. 자연과 더불어, 부부가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것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왔다.

이른 봄. 서양 이스라지 아래 튤립이 화사하게 피어있다.



여름. 점시꽃과 자귀나무는 시골집을 떠올리게 한다.



가을. 안개낀 아침. 국화과 식물(쑥부쟁이, 구절초, 개미취, 산국)이 어우러져 있다.



오월의 정원, 꽃양귀비와 수레 국화가 조화를 이루고 그 뒤로 흰색의 팔루고숨 국화 '미니어 처 마저리트'가 식재되어 있다.



봄. 마가렛과 백장미가 우아하게 피어있다.



유월의 정원, 노란색 솔나물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다.



팔월의 정원, 털부처꽃과 팔루고숨 국화 '미니어처 마거리트'가 조화를 이루고있다. 왼쪽 아래에는 금불초가 식재되어 있다.



구월의 정원, 빨간 맨드라미와 국화과 식물이 식재되어 있다.



향여제 정원

위 치 경기 평택시 안골길 50
 면 적 173평(대지면적)
 조 성 2014
 가드너 원연희·서재원(부부)



앞마당의 경계에는 억새 '그라실리무스'와 측백나무가 식재되어 아늑하게 정원을 감싼다.

부부는 2014년 '향여제'를 짓고 시골 생활을 시작하였다. 전문가가 설계한 정원의 틀에 부부는 심고 싶은 식물들을 가득 심고 정원가꾸기에 여념이 없다. 158종의 식물이 정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대단한 안주인은 매일 정원의 모습을 기록한 정원 에세이집을 준비 중에 있다.

정원은 크게 앞마당과 뒷마당으로 나뉜다. 앞마당은 잔디로 비워두고, 두 그루의 단풍나무만 포인트로 붙여 심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식물을 가득 식재하고 장독대를 두었다. 오르막길을 올라 집에 들어서는 길에서 정원으로의 시야를 막기 위해 가장자리에는 서양측백나무 '에 메랄드그린'으로 울타리를 두르고, 그 옆으로 억새 '그라실리무스'를 심어 주변의 들판과 연계했다. 키가 큰 식물을 넓지 않은 정원의 가장자리에 식재하면 정원이 다소 좁아보일 것 같지만, 오히려 억새 덕분에 시원한 느낌을 받는다. 억새 옆에 수수꽃다리, 공조팝나무 등 관목으로 정원의 틀을 만들고 그 앞으로 초화류를 다양하게 식재했다.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단풍나무가 멋진 수형을 자랑하고 있다.

정원에는 층꽃나무, 기린초, 쑥부쟁이, 깽깽이풀, 등심붓꽃 등 계절별로 다양한 초본식물이 피고 진다. 부부는 뒷마당의 폭이 좁은 화단에도 베로니카, 달맞이꽃, 아스틸베, 호스타류 등의 식물을 빼곡하게 심고, 집으로 들어오는 입구에도, 사면에도, 장독대 틈 곳곳에도 꽃을 심었다. 정원을 가꾸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정원에 심어진 식물의 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원과 식물에 대해 말씀하시는 즐거운 표정을 보면 정원에 대한 열정과 재미가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정원은 공조팝나무와 붉은조팝나무가 꽃이 피는 5월 중순이 가장 화려하지만 6월부터 10월 까지 꽃이 실재없이 피고지어 항상 아름답다고 안주인은 자랑하신다. 물확에는 청개구리가 놀고 가기도 하고, 새가 앉아 물을 마시기도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신기한지, 그리고 주변에 심어진 아까시나무의 꽃향기가 코 끝에 스칠때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를 즐겁게 말씀하신다.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는 말을 실제로 느끼고 있다는 지금, 부부는 행복하게 웃으며 정원을 가꾸고 있을 것이다.



공조팝나무가 꽃을 가득 피우는 5월의 정원이 가장 화려하다.

유년의 뜰

위 치 경기 평택시 청북읍 토진2리 64-18
 면 적 약 2100평(대지면적)
 조 성 1986
 가드너 임영재·김지향(부부)



현재 정원이 위치한 자리는 안주인이 어린 시절 살던 마을에서 꽤 알려진 부잣집이었다. 그래서 늘 동네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집과 정원을 구경하곤 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이 이야기를 들은 바깥주인은 조경공부를 시작하면서 아내에게 현재의 집과 마당을 사서 정원을 가꾸고 선물했다. 그리고 정원 이름을 ‘유년의 뜰’이라 붙였다.

바깥주인은 조경이 학문으로 자리매김 하기 전 일본에서 조경공부를 한 ‘한도 선생님’의 제자이다. 선생은 자연철학을 바탕으로 둔 한국의 멋을 강조하셨고, “여백 속에 여유로움이 있고, 그 안에 정이 있다”고 하신 선생의 뜻을 새겨 “정을 나눌 수 있는 정원, 위로받는 공간”을 정원에 만들하고자 했다. 오래된 한옥집은 그대로 두고 건물에 어울리는 한국적인 정원을 만들어 나갔다. 선생이 강조하신 여백의 멋을 소중히 생각하여 중앙에는 잔디밭을 만들어 비워두고 가장자리에 식물을 가득 식재하였다. 그리고 조각품, 자연석 등의 사물의 위치를 섬세하게 결정하여 놓았다.

정원은 30년의 세월이 지나 식물과 많은 정원소품로 채워져 풍성해졌는데, 주인장은 ‘정원이 늙었다’고 표현하신다. 정원이 점점 숲이 되어가니 본래 만들었던 구조를 식물이 점점 가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엔 풍성하고 오래된 느낌이 좋았다.



바깥주인은 오랫동안 석창포를 수집하고 연구해 한국의 선을 찾으려고 했다. 석창포는 정신을 맑게 하고, 눈을 맑게 하고, 부드러우나 강인해 옛 선비들이 높이 평가하여 문방오우라 부르며 귀하게 여긴 식물 중 하나로, 강희안은 「양화소록」에서 9품을 매겼다.

바깥주인은 석창포의 '반려식물'로서의 가능성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신다. 입구와 온실 등 정원 곳곳에 석창포가 가득하다.

들꽃의 향기가 머무는 뜰

위 치 경기 안성시 서운면 신촌리 156
 면 적 약 617평(대지면적)
 조 성 1996
 가드너 김형극·김정수(부부)



정원에는 100년이 넘는 5그루의 감나무가 있는데 주인장은 이 감나무에 반해서 20년 전 오래된 한옥을 구입한 후 한옥을 중심으로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도로가로 난 정원의 입구에는 대문이 없고 항상 열려있어 언제든지 이웃과 정원을 공유한다. 입구부터 펼쳐지는 굽어진 길 옆으로 펼쳐진 잔디밭의 가장자리에는 식물을 풍부하게 심어 자연스럽게 담장의 역할을 하도록 했으며, 잔디밭 사이 사이에 원형으로 식재 공간을 만들었는데, 원형의 식재 공간은 '평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굽어진 길을 따라 걸으면 한옥집 앞에 놓인 큰 감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오고, 곡선 길을 돌면 3그루의 감나무 아래 테이블이 놓여있는 중심 공간을 마주한다. 감은 여전히 매년 주렁 주렁 열려 가을이 되면 풍요로움을 선사한다. 가을에 찾은 정원에는 감나무 뿐만 아니라 대추, 모과나무가 익어 풍성했다.

올해는 경기문화대상 수상자들과 함께 갔던 일본 정원투어에서 영감을 받아 주인장은 드라이가든(dry garden)을 만들었는데 눈향나무, 바위솔속, 세덤속 식물 등 키가 작은 식물로 우리나라의 산과 바다를 암석과 모래, 식물로 표현했다.



뒷마당의 구석에는 텃밭이 있다. 텃밭에는 채소(파, 배추, 상추, 치커리, 겨자 등)와 유실수(보리수나무, 매실나무, 아로니아, 모과나무, 블루베리 등), 약용식물(도라지, 둥굴레 등)을 가득 식재하여 식탁의 재료로 활용하고 있다.

올 가을에는 지인들을 초대하여 음악이 있는 가든파티를 열었다. 주인장은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정원에서 보낸다. 정원을 만들고, 가꾸고, 또 배워가면서 매년 정원은 새로운 모습을 전하는데, 그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다.

성안드레아 병원

위 치 경기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320번길 109-84
 면 적 약 40000평(대지면적)
 조 성 1990, 2015(노티나무 숲터 조성 및 식재)
 가드너 김선규(원장 수사님), 미소가득 화초봉사단

※정원의 방문은 언제든지, 누구든, 종교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단, 정원을 관람할 때 환자분들을 사진촬영해서는 안된다.
 사진 촬영을 원한다면 사전에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성안드레아병원은 환자의 인권 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방형 정신병원으로 대한민국인권상을 수상한 곳이다. 1990년에 조성한 병원에는 넓은 잔디밭과 산책로,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작은 예배당이 있어 환자들 뿐 만 아니라 보호자들도 이 곳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병원에는 환자들을 위한 50가지의 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원예치료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기존 정원은 큰 나무 위주로 식재된 정적인 녹색 공간이었다면 작년부터 「미소가득 화초봉사단」이 자투리 공간에 꽃을 심기 시작하여 아기자기한 정원이 병원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다.



예배당 가는 길 계단에는 울마, 흥꽃나무, 아주가 '메탈리카 크리스파', 덩굴장미 등이 식재되어 있다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꽃을 볼 수 있도록 건물 입구에 화단을 만들고, 꽃을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았다. 큰 느티나무 아래에는 의자를 놓고 그 주변으로 화사하게 꽃을 심어 '느티 쉼터'를 만들었다. 쉼터는 조경 디자이너 문현주선생님의 재능기부로 설계되었으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장소가 되었다.

환자들이 꽃길을 걸으며 성당에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예배당으로 가는 길에도 꽃을 심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상 앞에는 정원의 꽃으로 꽃다발을 만들어 종종 놓아둔다. 직원들의 식사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직원 식당 전면 자투리 공간에 꽃을 심었는데,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공간에 아는 사람들만 아는 공간이라 '비밀의 정원'이라 이름 붙였다.



식당 앞 정원 돌틈에 꽃이 지고 보랏빛을 띄는 아주가 '메탈리카 크리스파' 잎이 지피소재로 멋스럽다. 길 입구에는 가우라 '시스키유 핑크'가 흐트러진다.

중증 환자를 위한 폐쇄병동의 실내에는 목재 플랜터에 관엽식물을 심어 실내에 푸른 기운을 더했다. 목재플랜터는 원장 수사님이 직접 만드셨다.

봉사단이 선물한 정원에 심긴 식물의 이름을 궁금해 하고, 봉사단에게 말을 먼저 걸어오는 환자도 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작게 시작한 봉사가 풍경과 사람의 마음을 점차 바꾸면서 미소가득 화초 봉사단은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봉사는 일주일에 한번 계획 하에 진행된다. 재능기부를 비롯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를 원하거나 봉사단의 활동이 궁금하시면, 다음 카페 "미소가득 햇살고운 집"를 방문하면 된다.

마음의 정원

위 치 경기 안성시 일죽면 서동대로 7381-32
 면 적 약 500평(대지면적)
 조 성 2001
 가드너 이상민·김영옥(부부)



멀리 땅이산이 보이는 언덕에 자리한 정원은 사람을 좋아하는 바깥주인의 성격을 반영하듯 많은 지인들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진 정원이다. 주인은 정원을 찾아오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정원이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는 장소로서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한다. 바깥주인은 은퇴하고 고향집 근처에 집을 짓고 귀농하였는데, 어린 시절 추억을 생각하며 정원을 구상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오르막길로 올라 정원에 들어서면 앞마당에는 키가 큰 소나무 3그루가 중심을 잡고 그 아래 영산홍, 삼색조팝나무, 황금조팝나무, 찔레꽃과 바위솔, 세덤류 등 키가 작은 식물을 식재하였다. 가장자리에는 계류를 만들어 물을 흘리고, 꽃창포 등 습지에서 자라는 식물을 심었다. 담장 앞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어 상추, 고추, 토마토 등의 채소를 심고, 얼마 전 휴식을 위한 쉼터를 갖다 놓았다.

건물 옆 마당은 가장 공들여 만든 곳으로, 모자상(母子像)과 장독대가 어우러진 ‘어머니의 동산’이 있다. 모자상은 어린 시절 새벽에 성당을 나갈 때 언제나 단정하게 갑사 치마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으셨던 어머니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며 만들었다고 한다. 장독대에 사발을 올려놓고 간절히 소원을 빌던 어머니의 마음과 틈날 때마다 하얀 무명 행주로 장독대를 닦던 어머니의 손길이 스며있다. 모자상 옆에는 수령이 120년이나 된 보리수나무가 있는데, 불교를 상징하는 보리수나무엔 불심이 지극했던 장모님에 대한 추억이 깃들여있다.

자연석과 나무가 조화를 이룬 뒷마당은 아내를 위한 정원으로, 홍단풍, 미스김라일락, 무스카리, 튤립, 별개미취 등 식물을 가득 심어 봄부터 가을까지 다양한 색상을 만들고 있다. 주인의 마음처럼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이 담겨있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정원이었다.





동구래마을 146



들꽃이야기 150



자한재 야생화정원 156



미술관 자작나무 숲 160



살바토레 펜션 166



오경아 정원학교 170



설악문화센터 174

강원

동구래마을

위 치	강원 화천군 하남면 호수길 333-1
면 적	약 12000평(대지면적)
조 성	2003
가드너	이호상(촌장)

7월의 정원에는 서양튤립이 만개해 있다.



온실 앞 언뚝에는 수련과 선물수세미가 가득하며, 가장자리에는 노란꽃창포가 식재되어 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들꽃이 사는 '동구래 마을'

북한강을 따라 좁은 도로를 지나다 보면 형형색색의 들꽃으로 흐드러진 동구래 마을을 만날 수 있다. '동그란'의 어원에서 유래한 동구래라는 이름에는 모든 사물의 시작인 동그란 씨앗과 꽃의 의미가 담겨있다.

촌장 이호상 님은 황폐한 땅인 이곳에 2003년부터 정착하여 야생화를 심기 시작했다. 이곳에서는 야생화 뿐 아니라 화천 도자기 공방이 있어 도예 교실, 야생화 분재 만들기 등을 체험 할 수 있다.



동구래 마을의 정원은 정감이 넘치고 사람 마음을 푸근하게 만든다. 잔대, 구절초, 모데미풀, 깽깽이풀, 패랭이꽃, 할미꽃, 범부채, 참골무꽃, 산국, 감국, 갯쑥부쟁이 등 우리꽃과 어디선가 날아와 단단히 뿌리 내린 이름 모를 들꽃도 소소하게 피어 정원에는 500여종 식물이 있다.

들꽃이야기

위 치 강원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632
 면 적 약 300평
 조 성 1997
 가드너 김명진·곽은숙(부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성황림'을 지나서 치악산 상원사와 남대봉으로 오르는 성남계곡으로 가는 길에 자리 잡고 있는 '들꽃이야기'는 이름처럼 입구부터 자생식물이 가득하다. 금낭화, 매발톱, 별개덩굴, 구절초, 쑥부쟁이, 병아리꽃 나무 등이 계절별로 꽃망울을 터트리며 입구를 화사하게 하고 있다. 솟대와 정겨운 손글씨로 쓰인 간판을 보며, 사립문을 들어서면 돌담으로 둘러싸인 마당이 있는 시골집이 보인다. 담장의 돌담은 능선의 형태를 따라 북쪽은 높고 동남쪽 낮게 만들어, 측광이 들어오도록 배치했다. 또한 담장 사이사이에 식물을 식재할 수 있도록 단을 두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산에서 주워 온 돌로 하나하나 손수 쌓은 돌담은 몇 년 째 천천히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마당에는 2개의 시골집이 있는데, 식당과 찻집으로 활용되는 살림집은 화전민이 살았던 곳으로 다 쓰러져 가는 흙집을 손질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왼쪽에 자리한 작은 별채는 건조지에서 잘 자라는 개부처손을 지붕에 올렸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지붕 녹화 방법이지만 식물의 생태적인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시도한 것이다. 그것은 오랫동안 ‘영월자연식물연구회’ 활동을 통해 자생식물을 많이 보고 배운 주인공의 노력이 바탕이 되었다.





마당에는 복수초, 바람꽃류, 금낭화, 나리류, 팔꽃나무 등 900여종의 야생화가 있어 계절을 달리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피고 지기 때문에 정원을 찾을 때마다 다른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특히 마당에 높이 전시해 놓은 100여개의 분경은 씨앗에서부터 증식하여 기른 것으로 주인장의 야생화에 대한 애정이 보인다. 입구 돌담 안쪽에는 작은 연못이 있어 털부처꽃, 노랑어리연꽃 등의 습지식물이 50여종 자라고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정원도 사실은 이 자연스러움을 위해 식물의 자생지를 가보고, 생태적 환경을 고려하여 고민하여 배치한 결과이다. 우리나라 시골의 마당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여 잔디를 깔기보다는 바랭이류가 자연스럽게 마당에 지피식물로 들어오도록 했다. 정원의 잡초는 망초, 개망초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어 자연스러움을 유지했다. 그래서인지 아늑하고 더 편안한 느낌이 드는지도 모르겠다.

자한재 야생화정원

위 치 강원 영월군 수주면 두산길 8-76
 면 적 약 1000평(대지면적)
 조 성 1996
 가드너 황대석·김순자(부부)



문산에서 온 45년된 구상나무가 인상적이다.

해질녘 주천강 강물소리가 정원을 넘어 경계 없이 어우러진 야생화 정원 ‘자한재自閑齋’.
 해발 800m가 넘는 하늘과 맞닿은 매봉산과 배향산이 둘러싸여 있으며 주천강 물길이 집 앞
 으로 휘돌아 흐르는 이곳에 정원 터를 잡았다. 자연과 경계 없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어디
 까지든 인간이 조성한 공간이고, 어디까지든 자연의 힘인지, 무엇이 식재된 식물이고 무엇이
 자연이 만든 식물인지 서로 동화되어 분간이 잘 안된다.

정원을 만든 주인장 황대석은 건축을 전공하고, 여생을 보낼 통나무집을 직접 설계하여 1997년 영월에 완성한다. 그리고 지난해, ‘한가로움이 듬뿍 묻어나는 집’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영월에 터를 잡게 된 것은 뒤로는 산이 감싸고 앞으로는 강이 흐르는 터, 좋은 소나무가 많은 것도 좋았고, 석회암지대 식물을 비롯하여 자생식물이 많이 자라는 지역도 마음에 들어서이다. 주인장은 젊은 시절부터 야생화에 관심이 많았다. 회사를 다니면서 취미로 식물 공부를 시작하면서 ‘한국자생식물협회’ 활동을 하였고, 이 곳 영월에 살면서 영월의 자생식물을 널리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영월자원식물연구회’를 만들어 운영했다. 자생지에서 식물을 관찰하고, 종자를 가져와 정원에 식재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생식물에 대한 강의도 하며, 관심있는 사람들과 식물도 공유하는 활동을 했다.

집으로 들어서는 길 곳곳에도 야생화가 한가득이다. 마당에 들어서면 통나무 집 가장자리로 식물원을 차려도 될 만큼 많은 자생식물이 어디서 왔는지 이력을 갖고 있다. 마당 정면 가장 자리에는 문산의 지인으로 부터 분양받은 45년 된 구상나무가 늠름하게 자리하고 있으며, 암공작고사리, 돌창포, 뽕나무, 만병초, 꼬리진달래, 각시붓꽃, 자란, 분홍바늘꽃, 등칫, 도깨비부채, 개병풍 등 다양한 지역에서 수집된 자생식물들이 양지, 반음지, 습지 등 자생지 환경에 맞게 식재되어 있다. 식재했던 식물은 세월이 흘러 왕성하게 성장하여 어느 덧 집 뒤의 숲과 어울려 하나의 작은 숲을 이루고 있다.



주인장은 요즘 서각에 빠져 있다. 정원의 한 구석에 위치한 오두막집에는 그림, 글씨 등 주인장의 정성스러운 작품들이 빼곡하다. 은퇴 후 자연을 차분히 즐기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시골 생활을 만끽하시는 선생의 고요한 삶이 존경스러웠다.



정원에서 볼 수 있는 자생식물

- 1. 종덩굴
- 2. 동자꽃
- 3. 진피리잔대
- 4. 함춘살풀
- 5. 하늘말나리
- 6. 석장포
- 7. 털동자꽃
- 8. 산부채

미술관 자작나무 숲

위 치	강원 횡성군 우천면 한우로 두곡5길 186
면 적	약 10000평(대지면적)
조 성	1991, 2004(미술관 오픈)
가드너	원종호



여유롭게 사색하는 정원 ‘미술관 자작나무 숲’

주인장 원종호 관장은 자작나무를 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이자 가드너다. 관장님은 백두산 장백폭포 앞의 자작나무에 반해서 고향 땅에 자작나무 묘목 12000주를 사다 심기 시작했고, 자작나무 숲을 찍는 사진가가 되었으며, 지금도 자작나무에 흠뻑 취해 계시다. 미술관에는 관장님의 상설전시공간이 있는데, 회화작품 같은 다양한 자작나무 사진들을 볼 수 있다.

정원은 산책로를 따라 거닐도록 되어 있으며, 사람의 손때가 하나하나 묻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것들로 자연스럽게 채워져 있다. 관장님은 정원을 각자의 방식으로 그냥 느끼고 가라고 하신다. 정원을 거닐다보면 두 동의 전시장과 스튜디오 갤러리이자 카페를 만난다. 전시장은 지키는 사람이 없어 관람객이 불을 켜고 들어가 자유롭게 작품을 관람하게끔 되어있다. 눈치 주는 사람도 없고, 시간 제한도 없으니 느긋하고 자유롭게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제 1전시장은 다양한 작가들의 대관 전시가 다채롭게 기획되며, 제 2전시장은 상설전시공간으로 관장님의 사진을 만날 수 있다. 스튜디오 갤러리이자 카페는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종종 사진 아카데미 수업과 세미나가 열리기도 한다. 안주인은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한다.

새벽 4시 반부터 8시까지 하루를 빼놓지 않고 25년째 관장님은 혼자 정원을 만들고 가꾸고 계시다. 초기에 열심히 잡초를 뽑고 관리해줬더니 이제 안정화되어 많이 힘들이지 않고도 통제 가능하다고 한다. 이 정원에는 화학비료나 제초제 등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만 관리한다. 정원의 재료들도 손으로 만들어 자연스럽고 신선하다.

한여름의 정원에는 왕원추리가 시선을 끈다.



정원은 계절에 따라서도 모습을 달리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이고 다른 모습을 띤다. 특히 새벽 무렵 축축한 이슬과 함께 둘러보는 정원, 그리고 한밤의 적막한 정원은 또 매력적이라 사람들도 그것을 느껴보게 하고 싶어 ‘숲속의 집’ 게스트하우스 두 채를 지어 조용히 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정원을 걷고 있으면 자작나무 가지 위에서 작은 새의 노랫소리가 들리고, 청명하고도 높은 하늘을 한 번 더 지긋이 올려다보게 된다. 그렇게 여유롭게, 그리고 자유롭게 자작나무 숲이 있는 순백의 정원을 찾아 명상과 사색을 즐겨보자.

살바토레 펜션

위 치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157-102
 면 적 약 220평(대지번적)
 조 성 2004
 가드너 가족(부부, 시부모님)



클래식이 있고 사계절 꽃이 피는 정원 ‘살바토레 펜션’

대관령 청정 고원지대에는 꽃향기 가득한 펜션이 자리하고 있다. 대관령에 놀러왔다가 그 풍경에 반해서 주인장은 젊은 나이에 귀촌해서 부모님, 아내와 함께 12년째 정원을 가꾸고 있다. 모든 정원이 다 그렇지만 정원은 주인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 정원에는 클래식 음악이 늘 흘러나오고, 책과 사진을 좋아하는 주인장 덕분에 매 순간 정원은 기록되어 주인장의 블로그(<http://blog.naver.com/yyjew>)에서 다채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펜션 뒤에 폭 내려간 땅에 자리한 메인 정원인 ‘엘레나의 정원’은 왼쪽으로는 클래식이 흐르는 ‘카페 마고’가 자리하며, 앞으로는 측백나무 생울타리로 둘러싸여 아늑한 느낌이 든다. 서양식 목재 건물과 어울리게 정원에는 원예종 식물이 많으며, 3월초부터 10월까지 다양하고 화려한 수백 종의 꽃이 피고 진다.



투숙객들에게만 공개되는 정원은 꽃과 정원에 관심있는 매니아 층이 즐겨 찾고, 특색을 더한다. 2년 전부터 주인장은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꽃들을 투숙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외국에서 꽃씨를 직접 들여와 온실에서 길러 식재하고 있다. 씨앗을 심어 싹이 트는 모습에서부터 식물을 바라보게 되니 더욱 애착이 간다고 한다.

10년 넘게 정원을 가꾸고 관리한 노하우로 대관령의 기후에서, 매달 해야 할 정원 일들을 짚어준다. “2월에서 3월까지의 과중하여 온실에서 재배하고, 눈이 많이 오고 추운 이 지방에서는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는 구근을 식재해야 하고...” 하지만 고생보다 즐거운 마음이 들고, 정원 일에 더욱 매진하는 것은 매년 새로운 꽃을 정원에서 식재하여 그 꽃이 피길 기다리는 설렘을 즐기기 때문이다.

7월은 나비가 특히 좋아하는 붓들레아, 히메노칼리스, 디기탈리스가 보였고 에키네시아, 히비스쿠스, 델피니움 등 다양한 색상의 꽃이 엘레나의 정원을 풍성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더불어 수많은 종류의 백합이 짙은 향기를 품어내고 있었다.

오경아 정원학교

위 치 강원 속초시 중도문길 24
 면 적 약 250평(대지번적)
 조 성 2014
 가드너 오경아, 임종기(부부)



설악산 국립공원 입구인 강원 속초시 중도문길의 오래된 마을에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 선생님이 시골생활을 시작하면서 정원학교를 열었다. 고향이 아닌 곳에 터를 잡아 살게 된 것은 일 때문에 속초에 들렀다가 이 땅이 이끄는 포근한 기운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곳은 3년 째 비어 있었던 오래된 한옥 집과 마당, 축사에는 잡초만 가득했다고 한다.

안주인의 일을 종종 도우며 취미 삼아 시작했던 목수일이 전문가 수준에 이른 바깥주인은 직접 한옥 개조공사를 맡아 1년간 집을 고쳤다. 파란색 슬레이트 지붕 등 외관은 그대로 두어 세월의 흔적을 남기고, 정원으로 튀어나온 부분에 정원 스튜디오를 두었다. 그리고 집 옆에는 목공소를 만들고 축사를 뜯고 정원 용구를 보관하는 창고 건물과 온실을 지었다. 튀지 않고 오래된 듯 자연스러운 집과 정원을 만들고자 했다.



앞마당에는 텃밭정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실험정원, 모델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정원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시도되고, 매년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다. 목공소와 나란히 자리한 휴게공간에서는 정원 수업이 이뤄지기도 한다.

답장을 따라서는 여름정원, 자갈정원, 하얀정원이 차례로 펼쳐진다. 여름정원에는 장미와 포도나무, 보리수나무, 해바라기, 생강, 토란이 식재되어 있다. 자갈정원은 서늘하고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고산지대 식물들이, 그리고 하얀정원에는 백묘국, 흰줄무늬 억새, 보리사초, 조팝나무, 무늬조팝나무 등 흰색 잎과 꽃을 지닌 식물과 무늬종 식물이 식재되어 있다. 하얀정원 옆으로는 목재로 만든 다양한 나비 집이 있어 새와 나비가 머물다 가기를 기다린다.

정원에 대한 많은 고민과 시도가 공간에서 느껴졌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시골문화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가든 디자이너의 꿈을 마음 속 깊이 응원한다.

설악문화센터

위 치 강원 속초시 관광로 439
 면 적 약 150평
 조 성 2013
 가드너 설악문화센터 직원



설악문화센터 뒷마당에는 정원 디자이너 임춘화 선생님이 설계한 좌우대칭의 르네상스식 텃밭정원이 자리한다. 정원의 앞으로는 숲이 배경이 되어 정원을 아늑하게 감싸고, 양쪽 가장자리에는 자두나무, 모과나무, 매실나무, 산수유, 백당나무, 블루베리 등 다양한 유실수들을 풍부하게 식재하여 아늑함을 더했다.

정원 내부는 회양목으로 만든 매듭화단이 정형적 식재공간을 만들며, 토마토, 가지, 깻잎, 열무, 고추, 치커리, 상추 등의 채소들을 매년 다양하게 심어 가꾸고 있다. 그리고 좌우대칭의 정원 중앙에는 조명등이 조각 작품처럼 놓여있다.



직원들은 가족의 먹거리를 기르는 심정으로 매년 씨앗을 파종하고, 잡초를 뽑고, 수확하는 일련의 정원일을 하고 있으며, 정원에서 나오는 신선한 재료는 1층 한식당의 식재료로 활용

하고 있다.

정원은 관리와 안전을 위해 개방되지 않지만, 관람을 원하면 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전원 민들레 180



허브힐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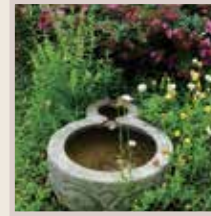
초원의 집 188



꿈에 그린 정원 192



뿌리 깊은 나무 196



마노하우스 200



아미미술관 204



근흥중학교 208

충청

전원 민들레

위 치 충북 충주시 동량면 지등로 1055
 면 적 약 250평(대지면적)
 조 성 2003
 가드너 안일배(아버지), 안연혁·안연철(형제)



바닥에는 자연스럽게 자리잡은 바위취가 인상적이다.

형제애로 피어난 너른 정원과 퓨전 한옥 카페 ‘전원 민들레’
 ‘전원 민들레’ 카페는 충주호를 바라보며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2003년 1월에 문을 연 카페에서 안연혁·안연철 형제는 카페 내·외부의
 인테리어를 담당하며 모난 곳은 손보고, 싫증이 나지 않게 매년 새롭게 카
 페를 바꾸는 일을 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정원을 관리하신다.

상호명인 ‘민들레’는 ‘힘들고 어려워도 민들레의 강인한 생명처럼 굳게 다
 시 일어서라’는 뜻으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라 한다. 뒷마
 당에 가득 채워진 장독대에는 어머니가 만드신 장들로 채워져 있다.



앞마당 뒷마당할 거 없이 굵직한 교목들(느티나무, 단풍나무, 백목련, 산수유, 왕벚나무, 모과나무, 은행나무)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다.

한옥이 있는 곳이라면 늘 자리하는 소나무 대신 그늘을 많이 드리우는 단풍나무로 채워진 앞마당에는 데크를 두었다. 마당은 비워져야 하고, 멋진 수형의 소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등 전문가들의 많은 조언들이 있었지만 정원은 형제의 뜻대로 자연스럽게 실용적으로 가꾸어지고 있다. 뒷마당에는 왕벚나무를 식재하였고 왼쪽에는 장독대와 텃밭이, 오른쪽에는 세미나실이 자리하고 있다. 직접 목공작업을 하여 만든 세미나실, 목재시설풀 등이 화사한 색으로 마무리되어있다.

039

허브힐

위 치 충북 괴산군 감물면 충민로 662
면 적 약 40평
조 성 1998
가드너 양명우·남신자(부부)

정원 입구. 카페 건물 앞에 온실을 덧대었다. 청록빛 풍겐스가문비가 문 뒤로 슬쩍 보인다.



괴산에서 수안보로 가는 도로 옆에 유리온실 창너머 꽃이 심긴 화분이 보이고, 그 옆으로 난 작은 문을 들여다보니 화사한 꽃들이 가득한 정원이 보인다. 영국 시골집에 놀러온 듯, 동화속 장면 같이 아름다워 대뜸 사진기를 꺼내들게 되는데 정원을 먼저 둘러보고 사진을 찍을 때는 주인장에게 공손히 부탁드립니다.

정원에 들어서면 마당에 한가득 허브 식물이 피어 코끝으로 그 향기가 전해지며, 파스텔 톤의 다양한 종류의 허브식물들이 찬란하게 펼쳐진다. 정원은 3동의 건물(한옥 주거 공간, 흰색으로 칠해진 별채 주방, 1자형 카페건물)로 둘러싸여 아늑하고, 영국의 시골정원처럼 자연스러운 스타일이다.



6월의 정원에는 분홍 빛의 베르가못, 붉은 빛의 포피, 보라빛의 콘플라워 등이 가득하다.

부부는 외국 여행길에 우연히 만나게 된 허브에 반해 독학으로 재배법을 익혀 30년간 가꾸고 있고, 서울에서 괴산으로 귀촌하여 18년 동안 정원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 정원과 농장에서는 허브와 복숭아나무를 농약과 화학 비료 한번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으로 정직하게 길러 잼, 비누, 차를 만들어 판매한다.

정원은 5월 중순부터 말까지 보랏빛을 머금은 붓꽃류가 만개하며 특히 아름답다고 한다. 우리가 찾았던 6월 초의 정원에는 새콤달콤한 향을 가진 붉은 색의 베르가못과 포피, 디기탈리스, 텔피니움, 아스틸베, 블루실비아, 캐모마일, 물망초 등이 한창이었다.

040

초원의 집

위 치 충북 괴산군 칠성면 연풍로 쌍곡길 25-6
면 적 약 500평
조 성 1990
가드너 이재욱



전국에서 수집한 돌과 수목이 있는 정원 '초원의 집'
괴산 8경 중의 하나인 쌍곡계곡 입구에 자리한 '초원의 집'은 주인장의 마음을 돌로 빚어낸 정원이다. 자연에 존재하는 소재 중 가장 견고하고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돌, 그런 돌이 좋아 그저 혼자서 돌을 쌓아 정원을 만들었다.



돌과 나무로 이루어진 500 여평의 정원에는 안개나무, 분꽃나무, 노란주나무, 꽃댕강나무 등 다양한 자생수목들이 돌의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앞으로 2,000 종의 나무를 더 수집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정원에는 우리나라 태극기를 담아낸 돌담, 한반도 지형 모양의 돌탑, 향아리탑 등의 석공예품 등 볼거리가 많다.

정성스레 쌓아올린 돌탑 앞에서 두 손을 모으면 어지러운 마음이 금세 정갈해진다. 돌로 빚어낸 정원을 거닐며 차분하고 고요해지는 마음을 느껴보자.



꿈에 그린 정원

위 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642
 면 적 약 7500평(대지면적)
 조 성 2009
 가드너 이상광



대림조경을 운영해 온 주인장은 회사 옆에 오래도록 꿈꾸던 어린이를 위한 정원을 만들었다. 기본설계에서부터 눈높이를 어린이에 맞춰 시설물 등을 설계하고 넓은 잔디밭을 두어 편안하게 뛰어 놀 수 있도록 했으며, 쓸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만들었다.

입구에 들어서면 정원 산책로를 만나는데, 정원을 거닐다 보면 나무로 만든 인형과 동물, 풍차 등 아이들의 관심을 끄는 소품들과 널뛰기, 맷돌, 절구, 그네 등 전통 문화를 모티브로 한 놀이 시설, 휴게공간, 넓은 잔디밭, 모래 놀이터, 토끼 사육장 등이 있어 어린이들의 다양한 관심을 끌고 있다. 잔디마당에는 여러 명이 올라탈 수 있고 밀면 움직이는 나무로 자동차도 만들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정원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여 회원제로 운영되며, 10가지 체험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 번씩 다양하게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여름에는 야외 수영장, 겨울에는 온실에서 체험수업이 진행된다. 텃밭은 어린이집 별로 구획되어 씨앗을 뿌려 채소가 자라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도록 했다. 정원 가운데에 위치한 원형극장에서는 영화관람, 부모참여수업과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자연에서 놀며, 쉬며, 배우는 아이들을 위한 자연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좋아 2000명 정도의 어린이회원이 있다. 정원은 연중무휴로 밤 10시까지 개방하여 야간에도 은은한 달빛과 조명 아래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뿌리 깊은 나무

위 치 충북 옥천군 안내면 장계실 221-3
 면 적 약 3000평(대지면적)
 조 성 1997
 가드너 백운배·김수옥(부부)



400년 된 상수리나무가 있는 정원.

대청호를 따라 굽은 산길을 들어가면 호수가 내려다 보이고 산으로 둘러 쌓인 곳에 정원이 자리하고 있다. 주차장에서 내려 뭔가 비밀을 간직한 듯한 정원 입구로 들어서면 앵두나무가 식재된 내리막길이 펼쳐진다. 길을 따라 두 동의 건물이 눈에 들어오고 야외 오븐과 모닥불, 그리고 나무 장작이 우리를 반겨 준다.

주인장은 금강과 속리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경관에 반해 산골짜기 외딴 곳에 땅을 구입하여 전원주택을 지으려다가 사람들과 아름다운 풍경을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레스토랑과 카페를 열었다. 그리고 반하게 했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며 건물을 짓고 정원을 가꾸었다.



특히 금강변의 산책로와 400년 된 아름드리 상수리나무가 주인장의 마음을 끌었다. 그래서 카페의 이름도 ‘뿌리깊은 나무’로 짓고, 나무를 잘 보살피고 있다. 상수리나무를 만나러 가는 강변 산책로에는 역사를 비롯한 그래스류들이 균락을 이루며 시원하고 멋진 경관을 자아내고 있다. 주인장은 이른 봄 보리가 올라올 때 그 푸릇푸릇함이 가장 맘에 든다고 하지만 강변 산책로는 어느 계절, 어느 시간이든 늘 좋을 것 같다. 산책할 수 있는 길과 작은 의자, 나무 구조물 등만 소박하게 놓여진 강변 산책로는 최대한 기존 경관을 보존하고자 노력한 마음이 곳곳에 배어있는 듯하다.

카페 안 정원은 야생화를 좋아하는 안주인이 정성스럽게 가꾼다. 옥잠화, 무늬등굴레, 조팝나무, 산수국, 섬초롱꽃, 솔나리, 비비추 등을 비롯한 야생화가 저마다 편한 자리에 들어앉아 있다. 항상 긍정적인 기운을 내뿜는 주인장을 만나러 가보자.



400년 된 상수리나무

043

마노하우스

위 치 충북 옥천군 군북면 환평길 16
면 적 약 600평(대지면적)
조 성 1998
가드너 최혜자·서성진



산으로 둘러싸인 고풍스러운 정원 ‘마노하우스’

한적한 시골 마을에 고딕과 르네상스 양식이 혼합되어 외관이 잘 꾸며진 고급스런 저택을 만날 수 있다. 카페의 이름인 ‘마노’는 ‘영주의 저택’이라는 뜻으로, 이름처럼 기품이 서려있다.



1998년에 조성된 마노하우스는 레스토랑이
자 숙박이 가능한 곳으로 산을 배경삼아 자
생수목과 초화류가 가득 식재되어 있다.
정원을 걷다보면 산수국, 꽃양귀비, 큰달
맞이꽃, 노랑어리연꽃, 붉은인동, 능소화
같이 알록달록한 꽃들이 지천으로 피어 있
어 그림 같은 풍광을 선사한다. 앤틱 소
품을 좋아하는 주인장의 취향대로 정원
곳에 고풍스러운 트렐리스, 테이블, 쉼터 등
이 놓여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며 동화처럼 소박하게
살았던 타샤 투더 할머니처럼 마노하우스의
정원도 주인장의 따스한 손길이 느껴진다.

정원에 적합한 문구가 오랜 여운을 남긴다.

‘밧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으며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다’

아미미술관

위 치	충남 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753-4
면 적	약 4500평(대지면적)
조 성	1994, 2010(미술관 개관)
가드너	박기호·구현숙(부부)



당진 아미산 자락 아래에 위치한 미술관은 폐교된 초등학교였다. 서양화가 박기호와 설치미술가 구현숙 부부가 1994년부터 들어와 하나하나 바꾸기 시작하여 2010년에 미술관으로 개관했다. 현재는 인스타그램에서 인기를 모아 당진에서 가보고 싶은 곳 1위로 주말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이다.

당진은 박기호 관장님의 고향이다. 옆집 아저씨처럼 포근한 관장님은 충청도 사람답게 느긋해 보이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자연에서 재료를 찾아서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세련된 감각을 갖고 계시다.



공간은 여느 초등학교처럼 넓은 운동장과 교사, 교사 뒤의 카페와 레지던시 참여 작가의 숙소로 구성되어 있다. 넓은 운동장은 그대로 비워두고 잔디를 깔았다. 기존 은행나무와 단풍 나무 등은 그대로 보존해 공간을 아늑하게 감싼다. 지금은 큰 나무 아래서 다양한 수국이 증식되고 있다. 내년에는 수국을 주제로 한 정원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신다. 운동장에서는 어린이 미술제, 작은 음악회 등의 다양한 행사가 매년 열린다.

교사는 전시장과 작업실로 쓰이는데, 외관이 흰색 벽으로 칠해져있고 아이비를 올렸다. 입구에 짙은 초록색으로 Ami Art Museum이라고 쓰여있는데, 이제는 시간이 흘러 아이비가 이글씨마저 삼켜버렸다. 별 다른 꾸밈없이 소박한 운치를 자아내는데도 자연이 만드는 작품이 흰색 벽에 칠해지는 듯하다. 전시장에서는 현대 미술이라는 큰 주제 아래 매년 1년간 머물렀던 레지던시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교사에 있는 화장실도 가 볼 만하다. 화장실 타일의 일부를 떼어내고 조개껍질, 병조각 등으로 장식해 놓았다. 서해안 어디서 먹었던 조개, 배낭 여행 중 바닷가에서 가져온 조개 등 관장님만 아는 사연들이 조개껍질에 서려있다. 오래된 느낌이 나는 재활용 소재들, 자연의 산물들을 활용해서 하나 하나 손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유일한 정원이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같다.

교사 뒤에는 한 단 높은 곳에 카페 지베르니와 한옥 숙소가 있다. 건물의 시공까지 직접 한 카페 지베르니에는 나뭇잎 형태의 웬스와 우주를 상징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둥근 철제 조각품이 벽에 붙어 있다. 지베르니에서 바라보는 한옥마당 풍경에 목련나무가 인상적이다. 카페와 마당에는 맨드라미 꽃이 툭툭 자연스럽게 피어 한옥과 어우러진다.

“내가 만드는 정원은 커다란 캔버스에 붓가는 대로 그리는 클래식한 풍경화이다.” 라는 관장님 말처럼 미술관 정원은 관장님의 손이 닿은 세상의 유일한 작품인 듯하다.



045

근흥중학교

위 치 충남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690
면 적 약 10,000평(대지면적)
조 성 2009
가드너 최기학(교장선생님)



근흥중학교 최기학 교장선생님은 “아름다운 환경에서 아름다운 생각이 싹트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아름다운 미래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2009년부터 ‘전원학교 사업 및 학교 숲 가꾸기’를 통해 학교 외부공간을 가꾸어 왔다. 그 결과 2014년에는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과학교사였던 교장선생님은 2006년 「태안반도의 식물」이라는 도감을 낼 정도로 식물과 생태에 대한 지식이 깊어 학교 정원을 만들면서 생태연못, 벽면녹화 와이어, 태안의 환경에 맞는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등 새로운 소재와 공법을 시도하기도 했다.



야생화가 피어있는 길로 학교를 오르면 여느 학교처럼 운동장이 교사 앞에 펼쳐진다. 운동장에는 천연잔디가 깔려있는데, 바닷가 옆에 위치한 학교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바다 바람에 강한 갯잔디와 금잔디를 혼파하였다. 잔디는 환경에 잘 적응하여 푸릇푸릇한 모습이다.

교사 측면에는 아이비, 담쟁이덩굴, 붉은인동, 멀꿀 등의 식물이 벽면을 기어올라 벽을 푸르게 만들고 있다. 덩굴식물의 지지대는 토목에서 다리를 지지할 때 사용하는 스테인강 와이어인데, 사선 격자무늬로 독특하게 디자인 한 이 구조물은 교장선생님의 아이디어라고 한다. 산양과 토끼, 닭이 있는 돌봄농장과 오리가 있는 다꿈농장을 지나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핀 오르막길을 오르면 생태정원이 펼쳐진다.

남산 아래 위치한 생태정원에는 500여종의 식물과 잔디마당, 팔각정이 있다. 잔디마당 가장 자리에는 익산돌로 만든 스탠드가 있는데, 여기서 월요일 아침마다 30분간 ‘생태조회’를 한다. 생태조회는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근흥중학교 생태체험학습장과 운동장을 한바퀴 돌아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잔디마당 스탠드에 둘러서서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진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며 눈을 감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생각해보고, 이번 한 주를 어떠한 마음으로 보낼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고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고 함께 눈을 감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명상의 시간을 가진다. 생태조회는 무엇보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기고 느끼면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인성교육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호응을 얻고 있다.

스탠드에 올라서니 저 멀리 태안 바다가 시원하게 눈에 들어온다. 스탠드 뒤로는 팔각정까지 산책로가 이어진다. 산책로에는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놓여 있고, 연못도 마주하게 된다. 이 연못은 하트모양으로 생각하는 의자가 놓여있고, 교장선생님의 아이디어가 담긴 생태연못이다. 사계절 관리하지 않아도 물이 맑아 가재도 연못에서 자란다. 연못 시공의 포인트는 넓게 파서 자갈을 잔뜩 붓는 것이다.

교장선생님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연을 거닐며 스스로 자연을 즐기고 느끼게 하고 싶었다. 근흥중학교 정원은 지극히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 속에는 교장선생님의 과학적 첨단 지식 이 바탕에 놓여있었다.





상하농원 214



천치산방 218



다임찻집 222



죽화경 226



하늘마루 정원 230



금성명다원 234



영산나루 카페 238



효산리 정원 242



쌍산재 246



수련산방 250



순천복음교회 254



홍매화집 258



임프정원 262



손자를 위한 정원 266



육천동백정원 270



다심정가 274



스토리가 있는 한국정원 278



음악이 있는 정원 282



정광문화 286



한상훈 선생님댁 290



필에서 숲으로 진화한 정원,
죽암농장 정원 294



꽃님이네 펜션 298



꽃밭 415 302



갈릴리 장로교회 306



해창주조장 310

전라

046

상하농원

위 치 전북 고창군 상하면 상하농원길 11-23
면 적 약 30000평(대지면적)
조 성 2016
가드너 농장직원



상하키친 건물에서는 플랜터에 채소를 길러 식자재로 활용한다.

상하농원은 매일유업에서 운영하는 ‘농촌체험형 테마파크’로 한국형 6차 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8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올해 초 오픈했다. 농원에서는 유기농작물을 수확(1차 산업)하고, 햄·빵·과일·발효 공방에서 가공(2차 산업)하며, 유기농 목장 체험을 비롯해 건강한 식생활 확대를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3차 산업)도 운영된다.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촌이, 건강한 가치로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련된 농촌 체험 모델이다. 설치미술가 김범 작가가 아트디렉터로 합류해 농원 개념을 비롯한 설계, 건축을 담당하였고, 통일된 양식으로 건물을 디자인하고 자연 속의 마을을 조성했다.



주차장 가장자리 빗물정원에는 털부처꽃, 은쭉, 테누시마나래새 등이 식재되어 있다.

특히 주차장에서부터 만나는 빗물정원은 기능면에서 우수하고 시각적으로도 아름답다. 주차장을 비롯하여 모든 건물의 지붕아래에는 빗물정원을 조성하여 2개의 큰 저류지로 모이도록 설계되었다. 모인 빗물은 화장실 중수로 활용되고 있다. 빗물 정원에는 물푸레나무, 만병초, 노랑일본조팝, 붓꽃, 골풀, 털부처꽃 등 축축한 곳에서도, 건조한 곳에서도 잘 견디는 식물을 식재하였다.

입구인 농원회관에는 지역 농산물, 공방에서 만든 제품들, 매일유업에서 만든 먹거리를 직거래하는 파머스마켓과 상하농장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전시실이 있다. 입구를 통과하면 논과 밭 정원이 수평으로 펼쳐진다. 청보리밭이 가운데 있고, 그 너머로 배추, 고추 등 농작물과 허브류가 식재된 텃밭이 옹기종기 펼쳐진다. 그리고 주변으로 멋스러운 목재로 만든 공방 건물이 둘러싸고 있다. 유럽의 시골마을 같으면서도 한국적인 느낌이다. 이곳에서 기른 채소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상하키친과 한식당인 농원식당에서 식재료로 사용된다. 상하키친 건물에 들어서면 천장의 일부가 유리로 되어 있어 플랜터에 채소를 기르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카페 젤라또는 목장에서 갓 생산된 우유로 만드는 젤라또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입구에 로즈마리로 생울타리를 만들어 휴게쉼터를 조성했다. 실내 천장은 식물을 매달아 조명기구와 함께 리듬감있게 디자인되어 인상적이다. 카페 뒤에 위치한 작은 목장에는 상하농원의 주인공인 젓소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천치산방

위 치 전남 담양군 용면 가마골로 2
 면 적 약 1200평(대지면적)
 조 성 2006
 가드너 신현수



계곡을 따라가는 산책로의 사면에는 차나무를 식재하였다.

‘마음을 비우고, 바보가 되어야 자연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한 주인장은 그의 집과 정원에 “천치산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돌을 쌓는 일업으로 하는 분이지만 집으로 들어가는 경사로에 쌓아놓은 자연석 담장은 빼뜩빼뜩하다. 식물이 돌 틈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벽면이 녹색으로 변하는 경관을 상상하며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고 한다.

집을 지을 때 풍경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주변 산의 경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집을 앉혔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집은 특히 벚꽃이 만발하는 봄에 신록과 함께 절정의 경관을 이루지만, 붉은 단풍이 질 때도, 평평 눈이 올 때도 모두 아름답다. 그래서 주인장은 이 정원에서는 “마음을 비우고 풍경을 즐겨라”고 강조한다.



이른 봄 매실나무가 정원을 하얗게 물들인다.

앞서 삐뚤삐뚤 쌓은 돌담에서 느껴지듯 정원은 ‘있는 듯 없는 듯, 가꾼 듯 안가꾼 듯’ 자연스럽다.

입구에 빨간 우체통을 보고 오르막길을 따라 집으로 오르는 사면에는 돌을 쌓고 식물을 심고, 폭포를 만들었다. 집으로 오르는 중간에 만나는 평평한 땅은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거라고 한다. 집안에서 창을 통해 보면 앞산이 한쪽의 그림으로 들어오는데, 집을 지을 때 풍경을 많이 고민한 흔적이다.

주차장에서 계곡으로 길을 오르면 잿빛 파란 벽을 만나는데, 지인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활용되는 건물이다. 계곡부로 데크를 내긴 테이블을 두어 사람들이 찾아오면 자연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계곡에는 수영장도 만들고, 좁은 산책로를 냈다. 산책로를 따라 오르면 사면 가득 심어진 차나무의 푸릇함이 상쾌하다. 경사로를 오르면 저 멀리 작은 정자가 보인다. 조만간 약용식물을 소재로 한 암석원을 만들거라고 하신다.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촌길 29-12
 면 적 241평(대지면적)
 조 성 2010, 2013(찻집 오픈)
 가드너 김진철·김정숙(부부)



다임茶廬. 차를 생각하다.

남도지방 차의 고장 담양에 자리잡은 다임은 시골마을에 자리한 한옥 찻집이다. 남촌은 안주인의 고향인데, 남편이 퇴직하고 귀농하여 살게 되었다고 한다. 아직 정원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사코 책에 나오는 것을 거절했지만 불쑥 찾아간 정원은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았고 주인장의 정성이 정원 구석구석에서 느껴졌다. 두 사람이 정원을 즐기며 관리하기에 이 정도의 규모가 딱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담쟁이덩굴이 감고 올라간 문주 사이로 들어서면 한옥이 정원의 중심에 자리하고, 잔디가 깔린 앞마당이 펼쳐진다. 그리고 담장 가장자리로 수선화, 매화, 철쭉, 마가렛, 배롱나무, 백일홍, 감나무 등의 식물이 가득 식재되어 있다. 잔디밭은 아이를 데리고 오는 가족 손님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마당을 좀 더 가까이 즐기기 위해 한옥 앞에 작은 목재데크를 두었다. 앞마당의 동쪽으로 난 폭이 좁은 계단을 오르면 가장자리에 배롱나무를 비롯한 목본류가 가득 식재되어 아늑함을 주는 비밀의 공간이 자리한다.

부부의 성격처럼 차분하고 욕심없는 정원은 한옥과 어우러져 소담스럽다.



정원을 조성한지 6년 되었고, 지인들의 권유로 찻집을 운영한지는 올해 3년째다. 덕분에 조용했던 마을에 정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침부터 문을 열어 손님을 맞이했는데, 정원을 돌보는데 매진할 수 없어 점심시간 이후에 문을 열기로 했다.

부인은 다도를, 남편은 대나무 공예를 배워 취미생활로 즐기고 있다. 찻집 내부에는 남편의 공방도 있고, 동그랗고 네모난 상자를 비롯한 다양한 대나무 공예품을 볼 수 있다.

049

죽화경

위 치 전남 담양군 봉산면 유산길 11-7
면 적 약 4500평
조 성 2012
가드너 유영길



2012년에 오픈한 죽화경竹花景은 이름 그대로 대나무와 식물을 주제로 하여, 삼각형 대나무 기둥 360여개와 200여 품종의 장미로 이루어진 정원이다. 대나무 기둥이 삼각형인 것은 힘을 하나로 모운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주인장은 조경을 전공하고 2013년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The castle & Line”이라는 작품을 낸 전문가로, 산림공무원이셨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식물에 관심이 많았다.





© 최승윤

정원은 완경사의 오솔길을 따라 거닐도록 되어 있으며, 산책로 중간 중간에 정원에서 느낀 감정을 시로 적은 글이 목판에 손글씨로 쓰여 있어서 글을 읽으며 차분히 정원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길을 거닐다 보면 수생식물이 식재된 연못도 만나고, 덩굴식물이 식재된 트렐

리스, 삼각형 대나무 기둥에 식재된 장미, 황금네군도, 산사나무, 자귀나무 등의 나무와 다양한 초화류를 볼 수 있다. 정원에는 ‘삼각형 대나무 기둥과 장미, 시가 적힌 정원북’ 세가지 디자인 요소가 형태를 달리하며 반복되므로 산책을 하면서도 하나의 공간으로 입혀진다.

5-7월에는 장미축제를 여는데, 연간 15,000명의 사람이 방문할 정도로 지역에서 인기가 많다. 정원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온실에는 미니정원만들기, 식물표본만들기, 천연비누만들기, 화분그림그리기 등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하늘마루 정원

위 치 전남 담양군 용면 가마골로 2
 면 적 약 4000평(대지면적)
 조 성 2003, 2010(카페 오픈)
 가드너 송진국·김선아(부부)



정원 앞으로는 광주시내와 무등산이 저 멀리 아래에 보이고, 옆으로는 계곡이 흐르고, 뒤로는 병풍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산과 물을 모두 접하고 있는 정원은 주변의 자연을 마음껏 보고 느낄 수 있으며, 저 멀리 도시의 경관도 볼 수 있다.





13년 전에 전원생활을 시작한 부부는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으로 6년 전부터 홍차 전문카페를 운영하며 정원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부부는 주변 산에 자생하는 자귀나무, 때죽나무, 산벚나무 등이 자아내는 사계절 수채화 같은 자연의 풍경 그대로를 살리려고 노력했기에, 주차장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집 앞으로 정원을 집중적으로 조성했다. 주차장에서 정원으로 들어오는 길의 마가렛(팔루고숨국화 ‘미니어처 마거리트’) 군락은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장관을 이룬다.

이른 봄에는 다양한 색상의 튤립이, 봄에는 벚나무가, 여름에는 마가렛과 자귀나무가, 가을에는 감나무가 매력적이다. 사계절 다 아름답지만 주인장은 산벚나무와 튤립이 만개하는 4-5월의 화려한 정원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하신다. 내년에는 나비가 좋아하는 누리장나무를 주제로 정원을 만드는 즐거운 생각으로 가득 차있다.

금성명다원

위 치 전남 나주시 향교길 36-10
 면 적 약 150평(대지면적)
 조 성 1995
 가드너 송영건



담장 너머 농소화가 피어있다.

나주향교 옆에 위치한, 토담이 둘러진 정원은 전통차를 만드는 주인장이 21년째 가꾸는 정원이다. 향교가 있는 오래된 마을의 붉은 빛이 도는 흙으로 만든 담이 아름다웠다.

주인장은 최소한의 인공물이 더해진 자연스러운 정원을 지향한다. 정원에 들어서면 담장 너머로 큰 은행나무와 가래나무가 한눈에 들어오고 돌담을 따라 정원 가장자리로 농소화, 마삭줄, 범부채, 무화과나무, 단풍나무, 매실나무, 차나무 등이 자리하고 있다. 삼백초, 비비추, 섬초롱꽃, 매발톱, 둥굴레, 참나리, 노랑망나리, 섬말나리 등 야생화가 가득하다.



정원 중앙에는 동백나무가 있다.

정원 내부로 들어서면 시원하게 뽀은 파초가 한눈에 들어오며 정원 중심에는 동백나무가 있다. 동백나무를 빙둘러 기와로 원형 베드를 만들었는데, 모든 기운이 동백나무를 중심으로 뻗어간다고 여겨 이렇게 조성했다고 한다. 뒷마당의 대나무 울타리에 올려진 마사줄이 한여름에 향기를 더한다.

한여름 약을 치지 않은 정원에서 모기를 물렸는데, 찻잎을 지근지근 씹어 발라주신다. 신기하게도 가려웠던 부분이 금새 잠잠해진다. 옛날 민간요법의 효능이 바로 통하는 경험은 이 정원과 무척 닮아있다.

봄에는 매실나무가 장관이니 봄에 다시 놀러오라고 하신다.



영산나루 카페

위 치 전남 나주시 주면1길 14-9
 면 적 약 13000평(대지면적)
 조 성 1991
 가드너 반재철·이희정(부부)



영산강가에 위치한 정원에는 오래된 벽돌 건물과 큰 나무 한 그루가 자리하고 있다. 세월의 흔적이 쌓여있는 이 공간은 찻집, 레스토랑, 펜션이 함께 운영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정원에는 4개의 건물이 자리한다. 문을 들어서 맞은편에 레스토랑 ‘세인트리’가, 그 오른쪽에는 벽돌건물 ‘영산재’와 목조 가옥 ‘성류정’이 있고, 레스토랑 뒤에는 펜션 ‘나루재’가 정원을 둘러싼다. ‘영산재’는 100년 된 붉은 벽돌의 2층 건물로 일제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 영산포지점 문서고 건물이었는데, 현재는 차문화 공간으로 활용되며, 내부에 들어서면 고풍스러운 서양식 테이블과 찻잔들이 놓여있다. 영산재 오른쪽의 약간 높은 지대에 위치한 ‘성류정’은 일본식 목조가옥인데, 홍차 교육을 하는 전통찻집으로 활용된다.





정원 역시 두 개의 근대 건물과 어우러져 조성된 나무가 많고 근대 정원의 양식이 보인다. 정원 가운데는 수령 250년이 된 팽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이 땅의 역사를 말해주듯 중심을 지키고 있다.

큰 나무 그늘 아래에는 테이블을 두어 따뜻한 날 식사를 하거나 야외결혼식 등 행사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숙소이자 숙박시설인 '나루재'는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1층 방과 통하는 뒷마당에는 텃밭이 있다.

잔디밭을 비롯하여 정원에는 잡초 하나 없을 듯 깔끔했는데, 그 비결은 새벽부터 정원을 분주하게 움직이는 부부와 직원들의 정성 때문이었다. 주인장은 특별한 기교 없이 영산강가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야생화 정원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하신다.

효산리 정원

위 치 전남 화순군 도곡면 고인돌1로 262-2
 면 적 약 2400평(대지면적)
 조 성 2008
 가드너 임경혜·이택균(부부)



30여 년간 꽃꽂이 선생으로 활동해온 안주인은 남편의 퇴직을 앞두고 광주에서 화순으로 귀촌을 결심했다. 부부는 오랫동안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아 잡풀이 무성했던 폐허를 옛 한옥과 감나무 세 그루만 남기고 모두 갈아엎었다. 울창했던 대숲을 밀어내고 정원의 구획을 나누었다. 모종을 실어 나르며 꽃밭 사이사이에 편편한 돌을 깔아 길을 만들고 소나무 백여 그루를 심어 지금의 정원을 만들었다. 농가주택은 뼈대만 남기고 하얀 벽에 빨간 지붕의 찻집으로 리모델링했다. 벽에는 담쟁이덩굴이 올라가 자연스러움을 더하고, 창으로는 연잎이 가득 들어온다. 플라스틱 통에다 연을 가득 심어 창가에 바짝 배치해 두었는데, 한여름 시원하고 화사한 풍경을 선사한다.



샤스타데이지가 길가에 가득한 입구 ‘효산리정원’이라 쓰여진 표지판을 보고 낮은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백합류, 에키네시아, 접시꽃, 가우라, 슐패랭이꽃, 호스타류 등이 어우러진 화려한 꽃밭이 펼쳐진다. 꽃은 원예식물이 많아 화려하게 피고 지지만 향아리, 전등 등의 소품을 활용하여 소박하면서도 정겨움이 묻어날 수 있게 디자인하였다. 정원을 둘러본 손님 중 안주인에게 꽃을 배우겠다고 한 사람도 몇몇 있었다.

주인장은 영국 시골풍의 풍경식 정원을 꿈꾸며 정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 꽃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정원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하시며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 있다.

054

쌍산재

위 치 전남 구례군 마산면 장수길 3-2
면 적 약 4500평(대지면적)
조 성 200여년 된 고택, 2006 개방
가드너 오경영



해주 오씨 6대손 오경영씨가 가꾸는 200년 된 정원은 고조부님의 호인 ‘쌍산’을 빌어 고택의 이름이 지어졌으며 10년 전부터 고택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일반인들에게 개방했다.

집으로 들어서기 전 우물이 하나 있는데, 멀리서도 물을 길으러 오는 사람이 많다. 그 이유인 즉, 구례군 상사마을은 장수 지역으로 손꼽히는데, 그 이유가 이 ‘당물샘’이라고 한다. 지리산 자락의 약초 뿌리가 녹아 흘러드는 당물샘에서 넘쳐나는 감로수는 천년의 세월을 지나왔지만 이끼가 끼지 않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맑게 솟아 그 맛이 달다고 한다. 그리고 조상들은 일부러 마당 밖에 우물을 두어 동네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물을 퍼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한다.



우물가를 지나 아담한 대문으로 들어가면 안채와 사랑채가 마주 보고, 오른쪽에 무심한 듯 비껴 앉은 건너채가 있다. 좀 더 들어가면 양지바른 곳에 흙담으로 둘러진 장독대가 놓여져 소박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장독대 뒤로는 쪽쪽 뺀 왕대가 자라고, 왕대숲 사이로 좁은 돌계단이 보인다. 계단을 한단 한단 오르면 양 옆으로 왕대가 펼쳐지고, 아래에는 차나무가 식재되어 시원하면서도 어두운 분위기가 느껴진다. 대나무 아래서 피우는 차나무, 그 유명한 ‘죽로차밭’이다. 대숲이 끝나고 동백나무 터널을 지나면 갑자기 넓은 하늘과 초록의 잔디밭이 펼쳐진다. 잔디밭은 예전에는 텃밭으로 사용되었으나, 펜션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고 하늘의 별을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잔디밭 가장자리에는 모란이 일렬로 식재되어 인상적이며, 잔디밭 옆의 좁은 길을 따라 오른쪽에는 동백나무에 둘러싸인 서당채를 마주한다. 서당채를 지나 경암당 옆으로 난 작은 문을 나서면 ‘사도지’라 불리는 저수지와 만나게 된다. 고즈넉한 한옥에서 별을 보고 싶다면 구례로 가보자.

수련산방

위 치 전남 순천시 월등면 농곡길 1-4
 면 적 약 600평(대지면적)
 조 성 1889, 2010(수련산방 오픈)
 가드너 장경진·염현(부부)



‘수련산방(樹蓮山房), 나무와 연이 있는 산 밑의 방’이라는 이름처럼 봉두산 자락 아래에는 연못이 멋진 한정식집이 있다. 주인장이 태어난 농곡마을 고향집에 마련한 식당은 100년 넘은 한옥을 기반으로 세월이 묻어 있어 고풍스럽다. 지금의 주차장은 1979년도 부부의 신혼방이 있었던 자리라고 한다.

‘樹蓮山房’이라 쓰여진 솥을대문 현관을 보고 들어서면 식사를 할 수 있는 한옥이 먼저 보이고 차를 즐길 수 있는 한옥이 그 앞에 자리한다. 두 한옥 사이에는 산에서 내려온 물이 모이는 연못이 있다. 연못에는 수련과 물수세미가 있고, 주변으로 늘어지는 매실나무, 비스듬하게 누운 소나무를 비롯하여 돌단풍, 사초류 등의 다양한 식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



한옥식당 안의 창을 액자삼아 보면 바깥 정원은 하나의 작품이 된다. 맞은편 “들꽃 피는 뜰방”이라 이름 붙은 한옥으로 가면 차를 마실 수 있다. 다실에는 옹이가 움푹 파인 나무를 그대로 활용한 테이블과 꽃 그림, 솟대, 오래된 찻잔 등 세월과 이야기가 있는 물건들이 가득하다.

다실 뒤에는 오래된 느낌이 나는 “농곡정”이라는 고풍스러운 정자가 있다. 사방이 뿔러있고, 차를 마실 수 있는 낮은 테이블이 있어 주변의 정원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정원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순천복음교회

위 치 전남 순천시 왕지로 113
 면 적 약 1200평
 조 성 2012
 가드너 양민정(목사님), 장로·집사님 관리



© 김동민

2012년에 순천복음교회는 전원 풍의 교회를 꿈꾸며 새로운 곳에 터를 잡았다. 계단식 논·밭이었던 땅에 마사 600트럭분의 흙을 부어 정원을 만들었다.

교회 입구에는 단풍나무가 군으로 식재되어 있으며 서예가 무창이해근 선생님의 글씨로 쓴 표석이 놓여 있다. 교회건물로 향하는 길을 걸으며 양쪽으로 나무들이 만드는 숲을 자연스럽게 오르락 내리락 두 번 반복하면서 몇 가지 경관을 마주하게 된다. 산책로의 자연석 포장은 예상롭지 않다. “십자가의 길”로 이름 붙여진 이 길은 십자가를 형상화 하여 교차되는 긴 사선과 이를 중심으로 작은 판석으로 처리하였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십자가가 담겨있는 연못을 만난다.





연못은 계류에서 물이 흘러 담기며, 가장자리에 자연석과 함께 이끼, 사초류, 석창포 등이 자연스럽게 식재되어 편안한 느낌이 들고, 가장자리에 석재로 만든 십자가는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연못 주변으로 매화나무가 가득 식재되어 있어 사계절 다양한 경관을 보여준다.

연못을 지나 교회로 향하는 산책로는 계류를 따라 걷는 길이고, 산책로 옆 뺨뺨하게 식재된 나무들이 이루는 숲 아래에는 편평한 자연석이 툭툭 놓여있어 정원에 잠시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정원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교회 입구에 다다른다. 앞으로는 우리꽃을 곳곳에 심어 야생적인 색채를 더할 것이라고 한다. 목사님은 누구든지 편안하게 교회에 와서 함께 정원을 느껴보길 권하신다.

© 김동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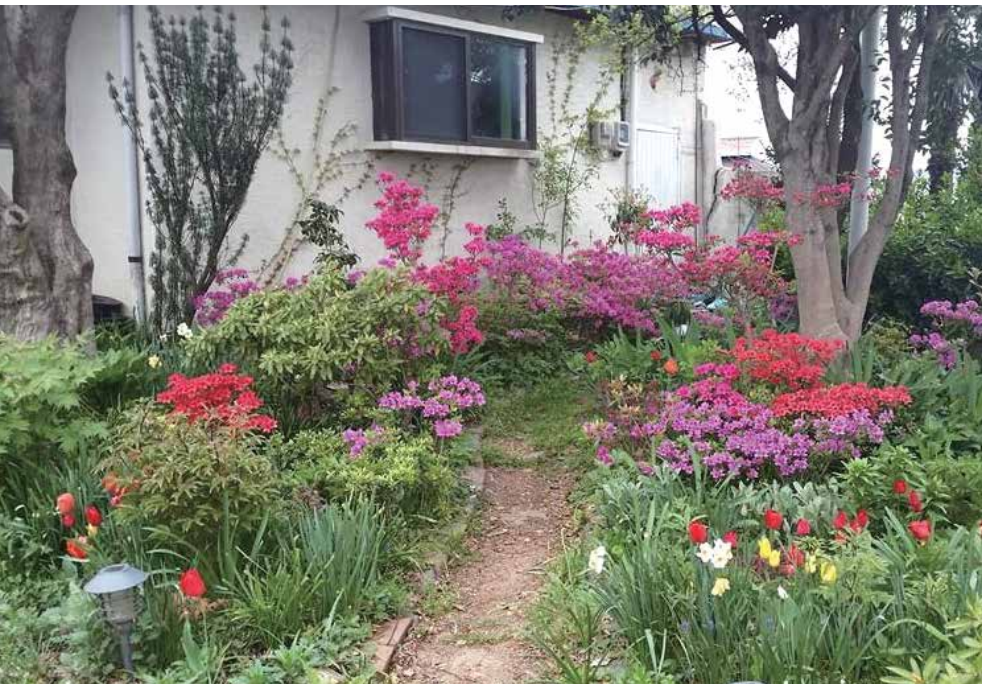
홍매화집

위 치 전남 순천시 매곡길 196(매곡동 경로당 오른쪽 언덕 위의 집)
 면 적 약 500평(대지면적)
 조 성 2012
 가드너 김준선·조경희(부부)



매화나무가 많아 ‘탐매마을’이라 불리는 곳에 자리한 정원은 마을 안내판에 주인공 아버님이신 “김관수 주택 매화”로 표기되어 있다. 정원에는 선암사에서 온 30년 된 선암매가 자리하고 있어 여러번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동네에서는 이 집의 선암매를 보고 붉은색 꽃이 피는 매실나무를 심기 시작하여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까지 동네는 붉은 색으로 물든다.

지금은 아들 내외가 고향집으로 들어와 정원을 가꾸며 살고 있다. 우뚝 솟은 언덕에 위치한 집과 정원은 길가에서는 보이지 않고, 텃밭 뒤로 낮은 대문과 무성한 나무들이 보인다. 대문을 열고 오르막길로 오르면 아담한 잔디마당과 집이 자리하며, 앞마당 가장자리의 선암매와 애기동백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고, 아래로 사계절 다양한 꽃이 피고진다.



높은 곳에 자리한 정원이라 집 앞 테이블에 앉아 앞을 바라보면 나무들과 저 멀리 산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주인장은 사시사철 꽃이 있는 정원, 매년 다른 모습의 정원을 꿈꾸며 다양한 식물들을 실험중이다. 1-2월 매화와 이른 봄 애기동백을 시작으로 봄의 동백나무, 산수유, 튤립, 무스카리, 수선화, 여름의 라일락과 치자, 백합, 장미 그리고 가을의 국화, 금목서 등이 정원에 자리한다. 특히 홍매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튤립이 정원을 가득 채우는 이른 봄이 매력적이다. 주인장은 보다 자연스러운 정원, 코티지 가든을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정원을 가꾸고 있다.



잉꼬정원

위 치 전남 순천시 매산동길 6
 면 적 약 400평(대지면적)
 조 성 1956
 가드너 박월심



잉꼬정원은 순천 기독교 선교 역사의 주요 거점인 매산동에 위치하고 있다. 정원을 가꾸기 시작한 남편은 목사님이셨는데, 외국으로 선교활동을 다녀오실 때마다 그 지역의 종자를 가져와서 정원에 키운 나무들이 지금 울창한 숲을 이루었다. 정원은 전문가의 솜씨를 빌리지 않고 60년간 부부가 가꾸었다. 부인은 여전히 정원을 섬세하게 가꾼다.

부부애가 가득하여 “잉꼬정원”으로 이름 붙여진 정원의 입구에는 결혼 기념으로 식재한 피라칸사가 멋스러운 수형으로 사람들을 맞이한다.



정원은 구부러져 포장된 길을 따라 가거나, 작은 흠길을 오르며 감상할 수 있다. 정원에는 향나무, 섬잣나무, 팽팡나무 등 상록수를 이용하여 닭, 타조, 거북이 등을 형상화한 토피아리 작품이 많은데, 사계절 푸르고 이색적이 분위기를 자아낸다. 구부러져 우뚝하게 솟은 소나무, 구부러진 배롱나무, 둥그란 모양의 동백나무, 불 붙은 모양의 로즈마리, 위로 솟아 아래로 열매를 늘어뜨리는 빨치럼 양쪽으로 봉긋한 향나무, 버섯모양의 향나무와 소나무 등 다양하게 자랄 수 있는 나무의 가능성을 이 곳 정원에서 감상해봐도 재미있을 듯하다.



손자를 위한 정원

위 치 전남 순천시 상사면 흘산2길 11
 면 적 365평(대지면적)
 조 성 1996
 가드너 김성신



앞마당은 손자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잔디밭으로 조성하고 축구골대와 미키마우스 돌 의자를 두었다.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 높은 지대에 자리한 정원은 경사면에 자연석 쌓기를 하고 돌 틈에 영산홍을 다양한 모양으로 다듬어 식재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관리가 잘 된 깔끔한 잔디마당이 펼쳐진다. 잔디밭에 서서 보면 산과 들이 한눈에 들어와 시원하다.



일본식 정원의 모습을 지향한 이 정원에는 분재를 좋아하는 주인의 취향에 따라 소나무를 다듬어 다양한 형태로 가꾸어 놓았다. 반송, 향나무, 철쭉, 팡팡나무 등 목본 위주로 구성된 정원은 남성적인 느낌이 강하다. 앞마당에는 기울어진 소나무가 운치를 더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활용하여 만든 연못에는 수련이 식재되어있다.

연못 뒤 사면에는 자연석을 쌓고 산철쭉을 중간 중간에 식재하여, 봄이 되면 울긋불긋 화려하게 물든다.



옥천동백정원

위 치 전남 순천시 옥천길 67
 면 적 321평(대지면적)
 조 성 1986
 가드너 민경봉·장길순(부부)



‘민안과대’으로 알려진 옥천동백정원은 물소리가 사계절 내내 들리는 옥천변에 자리하고 있다. 부부가 50년간 가꾼 정원에는 묘목에서부터 길러온 상록수가 울창하게 자라 정원 속에 집이 위치해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한여름에 정원을 찾았을 때에도 하천의 기운 때문인지 울창한 나무 때문인지 정원은 시원했다.



시멘트 벽돌 담장은 사이사이 가로세로 10센치 정도의 공간을 두고 쌓았는데 안에서 밖에서도 시선과 공기가 통하게끔 되어 있다. 천변을 걷다보면 담장의 틈 너머로 장관을 이루는 큰 나무들이 이 집이 살짝 보인다.

계단을 올라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집 현관까지 들어가는 구들장으로 포장된 길이 있는데 입구부터가 울창하다. 민 할아버지는 동백나무를 좋아해 일본에서 다양한 품종을 들여와 현재 정원에는 15종류의 동백나무가 있으며 정원에 가장 많이 식재된 수종이기도 하다. 현관 옆에는 40년된 금목서가 자리해 가을이면 집안에 가득 향기를 채운다. 집 뒷마당 역시 동백나무, 철쭉, 영산홍, 나한송, 협죽도 등 목본류고 가득 채워져 있고, 작은 텃밭정원이 있다.

다시 앞마당으로 돌아오는 건물 모퉁이에 L자 모양의 양어장을 만들었는데, 지하수를 뽑아서 물을 채우고, 현재는 잉어 3마리가 살고 있다.

061

다심정가

위 치 전남 순천시 은하길 79-1
면 적 약 220평(대지번적)
조 성 1982
가드너 강동윤



골동품수집가였던 주인장은 어렸을 때부터 정원 가꾸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34년째 정원에서 지내며 오늘도 쓸고, 닦고, 다듬고, 기분 좋게 정원을 가꾸며 안내해주신다.

이 정원에는 주로 향아리, 다듬이들, 마삭줄을 정원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단순한 재료가 다양하게 변형되어 정원에 통일감을 준다. 정원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각각 모양이 다른 다듬이들이 쪽 놓여있다. 동선의 재료로, 때로 의자로도 활용되는 다듬이들은 40년간 수집한 것으로, 총 1200개의 다듬이들이 정원에 사용되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바닥에는 다듬이돌이, 측면에는 장독대와 낮은 기와담장, 생울타리가 길을 안내한다. 식당으로 활용되는 건물 앞에는 향아리로 만든 수경시설이 있고 정원 곳곳에 물확과 플라스틱 통에 연꽃이 담겨 있어 정원은 청량감이 가득하다. 연꽃은 식재료로도 활용되며 정원의 훌륭한 경관요소가 되고 있다.

정원에는 1년 내내 푸르고 관리하기 쉬운 상록수종(자나무, 금목서, 무화과, 오죽, 마삭줄 등)이 주로 식재되어 있으며, 정원의 세월만큼 오랜 세월 자라 푸르고 풍성하다.

정원의 중심에는 무대와 다듬이돌로 쌓아 만든 의자가 놓인 작은 음악회장이 있다. 가끔씩 지인들의 가야금, 색소폰 등 연주가 열린다.

음악회장 뒤로는 주인이 가장 아끼는 왕대를 휘어 지붕을 만든 작은 휴게공간이 있는데, 평상이 놓여있어 누우면 집 뒤 하천에서 흐르는 물소리와 왕대 숲이 만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스토리가 있는 한국정원

위 치	전남 순천시 교량1길 14
면 적	약 300평(대지면적)
조 성	1982
가드너	김수연·윤대현(부부)



이사천이 감아 흐르며 도사대평 들판이 펼쳐진 곳에 위치한 정원은 일제 강점기에 하천을 따라 뚝길이 조성되면서 길보다 낮은 지형에 선큰 형식으로 자리잡았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서면 하늘과 정원만 오롯이 보인다. 이 정원은 2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6대째 살고 있는 고택으로, 탈곡장이었던 마당을 부부가 부지런히 정원으로 가꾸었다.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정원에는 소소한 이야기가 가득하다.



왕대를 쪼개서 만든 대문을 들어서면 우리나라 지도 모양의 잔디밭과 가장자리를 자연적으로 쌓은 화단이 있다. 화단 안에는 구들장을 놓은 산책로가 있는데, 돌 가장자리에 붉은 색 꽃을 피우는 버베나가 지피식물로 활용되고 있다. 걷다보면 동백나무, 보리수나무, 산수유, 금목서 등을 만나게 되고 주인장은 어디서 나무를 가져오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등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내년에는 나무 이름과 이야기를 적은 안내판을 만들어 유치원 아이들이 놀러오면 읽어 볼 수 있도록 할 생각이시다. 나무 아래는 파종하고 삼목한 어린 식물을 두어 야외 증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산책로를 돌아 잔디마당으로 다시 나오면 절구통, 장독대, 평상이 놓여 있어 생활공간의 편안한 모습이 보인다.

잔디밭의 오른쪽의 화단에는 5대째 내려오는 키가 큰 종려나무 1그루가 빼죽 솟아 있으며 향나무, 애기동백, 산철쭉, 영산홍 등 목본류가 식재되어 잔디밭을 아늑하게 감싼다. 처마 아래에는 빗물 저금통을 놓아 텃밭 식물을 가꾸는데 활용하고 있다.

뒷마당으로 가면 왕대 숲과 텃밭이 있으며 모과나무, 초피나무, 무화과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유자나무, 감나무 등 다양한 종류의 유실수가 있어 먹거리로 활용하고 있다.

이곳은 과거와 현재의 시간 층위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정원 구석구석 세월의 손때가 따뜻하게 묻어 있는 정감어린 시골 정원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음악이 있는 정원

위 치 전남 순천시 신평길 19
 면 적 약 320평(대지면적)
 조 성 2012
 가드너 구옥례·서길원(부부)



부부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05년 고향으로 돌아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정원가꾸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부부는 건강을 회복하고 정원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다.

정원으로 들어서면 아담한 2층집이 있고, 잔디마당이 펼쳐진다. 잔디마당 가운데는 키가 작은 공작단풍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뒤로 왕대 숲을 배경으로 목재로 만든 작은 건물이 하나 있다. 작은 건물은 부부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 음악실이다. 이 음악실은 하루종일 정원에 머무르게 하며, 늦게까지 음악을 연주하고 들어도 동네를 시끄럽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늦게까지 즐길 수도 있는 만능 공간이다.



음악실에 들어와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우리나라 지도가 눈에 들어온다. 굵은 마사를 깔고 수석으로 만든 지도는 한가운데서 시원한 물이 뿜어져 나온다. 지도 뒤에는 잘 생긴 소나무가 한 그루 우뚝 솟아 있으며 그 아래 두 개의 석등이 있다. 정원의 오른쪽 가장자리에는 분재로 만든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다. 보통 분재는 화분에서 기르는데, 이 정원에는 가장자리에 식재해 둠으로 관리도 편하고, 전시효과도 보고, 잡초도 해결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정원에는 초봄 수선화를 시작으로 홍매, 철쭉, 국화류와 꽃무릇, 동백나무까지 계절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식물들을 식재했으며, 묘목부터 기른 나무들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위 치 전남 보성군 벌교읍 원징광길 134-5
 면 적 약 4000평(대지면적)
 조 성 1979
 가드너 한무논·차정금



징광문화는 1979년 고(古) 한상훈 선생님이 전통적인 의식주에 관련한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려는 꿈을 안고 설립한 장소로, 1979년부터 논밭을 정원으로 가꾸기 시작했다. 현재는 부인과 아들 내외가 산속에서 생활하며 야생차밭, 매실밭을 가꾸고 있다.

집과 정원은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여 자리하는데 한 단 높은 터에 자리한 기와집과 아래 터에 자리한 정원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다. 정원에 들어오면 북쪽 집과 남쪽의 차음식체험관 건물이 정원을 둘러싸 지형적으로는 분리되지만 중정의 아늑한 느낌이 든다.



마을에서 정광옹기로 진입하는 길에는 큰 돌과 작은 돌이 자연스럽게 어루러져 운치있는 돌담이 있다. 돌담에는 줄사철나무가 올라가기도 하고, 국화과 식물이 돌담 위 아래에서 빼곡이 고개를 내밀기도 해 자연스러우면서도 무게감이 느껴진다. 돌담 뒤로는 매실나무를 둘러 생울타리를 만들었다. 돌담을 따라 가면 양쪽으로 크게 두 개의 공간이 보인다.

왼쪽으로 계단을 오르면 옹기가마와 옹기굴, 옹기항아리가 잡석 바닥에 빼곡이 전시되어 있다. 입구부에 놓인 마삭줄을 올려놓은 옹기 화분이 인상적이다.

오른쪽으로는 평평한 땅에 잔디가 심어진 정원이 펼쳐진다. 잔디밭에는 옹기가 기울어진 소나무와 초화류가 함께 멋스럽게 전시되어 있고, 좀 더 들어가면 큰 방지와 정자가 운치있게 자리한다.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 만든 방지에는 수련이 가득하여 6-8월이 아름답다고 한다.

내년에는 초본류보다는 손이 덜 가고 화사한 다양한 수국을 수집하여 정원을 변화시켜볼 생각이라고 하신다.



한상훈 선생님댁

위 치 전남 보성군 벌교읍 원정광길 134-4
 면 적 40평
 조 성 1981
 가드너 차정금



징광문화에서 산길로 차를 몰고 3분정도 올라가면 마을 안쪽에 고즈넉한 한옥이 자리하고 있다. 이 한옥은 한남동에 있었던 한옥인데, 1980년 도로확장으로 인해 철거 대상이 되자 고(古) 한상훈 선생이 매입하여 징광리에 옮겨 지어졌다.

흙으로 쌓은 돌담 사이로 한 그루의 나무가 삐죽히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다. 주변의 자연을 모두 보존하여 한옥이 지어졌음이 느껴진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ㅡ형태의 누마루가 있는 사랑채가 자리하고 있다. 누마루 뒤로는 경사가 있어 1단의 화계가 조성되어 있고, 화계 옆 돌계단을 오르니 ㄱ자 형태의 안채가 사랑채 뒤에 자리한다. 집 뒤에만 있을 것 같은 화계가 기존 지형을 살리느라 집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식재된 식물은 돌담 높이를 넘지 않아 안채에서 바라보는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 화계는 지형의 높이 차를 자연스럽게 완화시키면서 누마루에서 즐길 수 있는 경관 요소가 된다. 돌계단 가장자리에는 큰 동백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서 길을 아늑하게 한다.

“안채 마당에는 나즈막한 소나무 한 그루, 물확 하나, 괴석 하나가 낮게 자리하고, 가장자리로 낮은 석등하나가 들어오는 입구에 놓여있다. 안채는 숨어 있으면서도 시원하고, 사랑채는 드러나 있으면서도 아늑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자연스러운 느낌이 이 집 전체를 감싸고 있다(황두진 외(2007) 「한옥에 살어리랏다」, 파주: 돌베개).”

주인은 홍매화가 피는 이른 봄이 가장 아름답다고 한다.



펼에서 숲으로 진화한 죽암농장 정원

위 치 전남 고흥군 동강면 죽암로 244-27 죽암농장
 면 적 500000평
 조 성 1978, 2013
 가드너 김종욱·유종희(부부), 김재왕



갯벌이었던 땅이 1965년 간척사업으로 쌀을 생산하는 농장으로 바뀌었고, 그 농장은 지금 나무를 심기 시작하면서 숲으로 진화하고 있다.

농장 정원은 부부의 생활공간 정원과 직원들의 휴식공간이 있는 공장 정원, 두 개로 구분된다. 생활공간은 입구 왼쪽에 자리하는데, 마운딩으로 공간을 아늑하게 감싸 두 공간을 구분하고 있다. 자연스러운 언덕 길을 따라 주거공간으로 들어서면 오른쪽에 연못이 보이고, 왼쪽으로 넓은 잔디밭이 펼쳐진다. 북쪽에는 주택과 조상님의 업적을 기록하고 전시한 '우석기념관'이 나란히 자리한다. 마당의 산책로를 따라 나즈막한 지형을 넘으면 공장 정원으로 이어진다.



농장으로 쪽 직진하다보면 오래된 시골집을 만난다. 이 곳은 주인장의 아버지가 살았던 집으로, 집 앞에는 구부러진 돌과 감나무가 인상적인데, 어린시절을 추억하며 그대로 보존해 놓았다. 길을 걷다 보면 양지바른 곳에 차나무를 심은 차밭이 보이고, 좀 더 걸어가면 연못을 만난다. 하늘에서 바라보면 연못은 우리나라 전도 모양으로, 굴곡진 연못 안에는 섬과 디딤돌이 놓여있고 수련과 그래스류가 식재되어 있다.

벼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죽암농장은 여름에는 농사를 짓고, 가을과 겨울에는 정원 일을 한다. 살아온 역사를 보존하고 친환경농법의 가치가 담긴 정원은 점차 필에서 숲으로 진화할 것이다.



농장으로 들어서면 은행나무와 메타세쿼이아, 단풍나무가 양쪽으로 식재된 길을 마주한다. 농장의 가로수는 수종을 각각 달리하여 식재하였다. 메타세쿼이아 길, 단풍나무 길, 편백나무 길, 은행나무 길, 모과나무 길은 2열 혹은 군락으로 식재하여 길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아늑함을 주고 점점 자라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가을에 찾은 정원에서 모과나무를 군식한 길에 주렁주렁 매달린 노란색 모과가 산뜻하면서도 독특한 풍경을 자아낸다.

입구로 들어서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면 잔디가 깔린 넓은 축구장이 보인다. 이 곳은 직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평소에는 운동공간으로 쓰이고, 때로는 야유회, 농장의 행사들이 열리기도 한다. 축구장으로 진입하는 공간에는 장미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꽃님이네 펜션

위 치 전남 여수시 소라면 가사안길 27
 면 적 약 800평(대지면적)
 조 성 2000, 2008(카페 오픈)
 가드너 김숙희·강장원(부부)



가사마을로 들어서서 네이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들어가는데, 가파른 경사와 몇 번의 방향틀기 후, 여기가 맞아? 하고 안내판을 따라 가면 주차장이 나온다. 주차장 옆에 비닐로 지어진 온실이 보이는 걸보면 제대로 찾아온 게 맞는 것 같다. 주차를 하고 올라다 보니, 다양한 종류의 식재된 나무들이 꽤 보인다. 맞게 찾아온 것 같아서 안심하며 차에서 내리니 주인 부부가 환한 얼굴로 마중을 나오셨다. 이 정원은 귀농한 부부가 16년째 가꾸고 있는 꽃이 가득한 정원이다.

주차장에서 정원으로 오르니 주택 앞에는 잔디가 깔려있고, 가장자리 빼곡이 꽃들로 채워져 있다. 정자에서 바라보면 들판과 비봉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정자는 풍경을 바라보는 프레임의 역할을 하며 정원을 가장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장소이다.



안주인은 정원에서 꽃들의 조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옆에서 바깥주인이 “민주주의 정원이요”하고 거드신다. 꽃들끼리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는 정원을 꿈꾸며, 하루 2시간 이상 손으로 물을 다 준다고 한다. 정원에는 원예 식물도 많고, 화분에 심어진 식물도 많아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돌봐야 하지만 즐겁다고 하신다.

안주인은 어렸을 때부터 꽃을 좋아했다. “정원 일을 하지 않고는 못살겠어요. 어릴 때부터 늘 꽃이 함께 했었죠” 꽃을 좋아하는 유전자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산에 핀 진달래, 춘란을 가져다 집 앞마당에 심고 가꾸고 즐겼다고 한다. 그리고 꽃이 가득한 마당에서 사는 꿈을 늘 꾸었다고 한다. 결혼하고 아파트 생활을 할 때도 베란다에는 꽃이 가득했다고 한다. 남편이 퇴직 한 후 여수로 귀촌하여 정원을 본격적으로 가꾸기 시작했다. 정원을 취미로 가꾸고 혼자서 즐기다가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2008년부터 카페를 열었고, 펜션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위 치 전남 여수시 화양면 대옥길 2
 면 적 약 500평(대지면적)
 조 성 2002, 2011(카페 오픈)
 가드너 정영희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한참 달려 카페가 문을 닫을 때 즈음 정원을 찾았다. 정원 입구에는 나무로 만든 카페가 있고, 정원은 카페 앞 경사지에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하얀색 문을 통과하면서 정원은 시작된다. 정원은 한 사람이 지나다닐 정도로 좁은 길을 따라 둘러보게 되어 있으며, 주변으로 꽃이 가득 심어져 있어 그야말로 ‘꽃밭 사이로’ 거닐도록 구성되어 있다. 길을 따라 가다보면 파고라가 있는 휴게공간, 온실 등을 마주하게 된다.



여수가 고향인 주인장은 어렸을 때부터 오동도를 자주 갔다고 한다. 동백꽃이 가득한 오동도는 주인공의 눈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거기서 영감을 받아 오랫동안 꽃꽂이를 하셨다. 대회에서 여러 번 수상도 하고, 꽃꽂이 선생님이로 활발하게 활동하셨다. 꽃꽂이 분야에서 큰 나무, 작은 나무, 초본을 조화롭게 식재하여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한 식재방법인 botanical style에 전문가라고 하신다. 그래서 꽃밭도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2002년 월드컵을 할 당시에 시골 집을 사서 꽃꽂이 수업용 소재를 위해 정원에 꽃을 심기 시작하여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다. 2011년부터 카페를 열어 사람들에게 공개했다.

카페를 열고나서 신경 쓸 일이 너무 많다고 하신다. 하루종일 가꾼 정원의 꽃이 밟힐까 가족 단위 손님이 많아 어린이들이 종종 카페에 들르는데 넘어질까, 뽕족한 모서리에 다칠까 걱정이라고 하신다.

주인장은 새벽 4시부터 정원일을 시작하여 잠시 카페 문을 열고 또 다시 어둑해질 때까지 꽃밭을 가꾸신다. 그야말로 24시간 정원사이다.



갈릴리 장로교회

위 치 전남 여수시 돌산읍 계동해안길 70
 면 적 약 300평(대지면적)
 조 성 2007
 가드너 김순현·조미현(부부)



바닷가 옆 길가에 회벽에 자연석이 박힌 오래되어 보이는 작은 교회가 있다. 교회 건물 앞에는 큰 팽나무가 한그루 있는데, 교회 건물과 어우러져 꽤 운치가 있다. 교회로 들어서니 ‘몽돌이’가 젤 먼저 나와 사람을 반긴다. 앞마당은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마당에는 화분에 심겨진 식물로 가득했다.

목사님은 낚시·카누가 취미였다가 꽃에 꽃히셔서 지금은 정원사로도 활동하고 계시다. 목사님의 명함에는 ‘목사/번역가/정원사’로 적혀있다. 하루 2시간 정도는 늘 정원으로 나서는 목사님에게 부인은 이렇게 말한다. “또 연애하러 갑니까? 정원씨와...”



일본 하코네에서 본 베고니아 정원에 인상을 받아 다양한 베고니아 품종을 정원에 들이기 시작하여 지금 300종 이상의 베고니아가 정원을 가득 채우고 있다. 정원에는 재활용 재료가 많다. 바닷가라는 장소적인 특성으로 부표를 화분으로 활용하고, 건설기계 캐터필러, 깨진 화분, 물확 등도 꽃을 담는 용기로 사용한다.

목사님은 정원을 가꾸는 기쁨과 자연에서 느끼는 이야기를 일요일마다 설교하시면서 그 기쁨을 다른 곳으로 확산하고 싶어 “한 교회 한 정원가꾸기”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려고 한다. 근엄하기 보다는 자유로운 사고를 하시는 유머러스한 목사님의 생태 설교는 어떤지 꼭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해창주조장

위 치	전남 해남군 화산면 해창길 1
면 적	약 850평
조 성	150년(기록된 것), 2007(4대 주인 귀촌)
가드너	오병인·박리아(부부)



해창(海倉). 바다의 창고.

주조장 앞으로는 바다로 이어지는 삼산천이 흐르고, 그 주변으로 너른 들판이 펼쳐진다.

해창주조장에는 1927년에 일본인 시바다 히코헤이가 이 마을로 들어와 살면서 지은 2층 목조건물과 정원이 있다. 지금은 오병인·박리아 씨 부부가 주조장을 매입하여 4대 주인이 되었다. 부부는 좋아하는 술을 빚으면서,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한적한 시골집으로 귀촌하였다. 해창주조장은 이층 목조건물을 중심으로 앞마당과 뒷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마당에 들어서면 삐죽 솟은 소나무 한그루가 우리를 맞이한다. 현관 앞에는 은목서가 종과 막걸리통을 매달고 있다. 누군가 이 집을 방문하면 종을 치거나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도록 도와주는 문지기 나무다.



오래된 세월만큼 정원에는 거목들로 가득 차있고, 짙은 그늘을 드리워 이끼가 살기에 딱 좋은 습도를 유지하고 있다. 실화백, 가시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아왜나무, 모과나무, 칠엽수, 춤추듯 뒤틀린 오래된 배롱나무 네 그루가 멋지게 연못가에 심겨있다.

정원 중앙에는 부정형의 연못이 있는데, 앞선 주인이 자녀를 위해서 수영장으로 바꿨고, 지금 주인이 다시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뒷산에서 물을 끌어와 연못을 조성했다고 한다.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채워지는 연못에는 가운데 징검돌이 있고, 물이 흘러나오는 입수구 대나무 통 아래에 물을 담아 떨어뜨리는 물확이 있다.

정원에는 5개의 작은 산이 있다. 5개의 산은 수석을 놓아두거나 돌단을 쌓아서 완만하게 솟아있는, 유심히 살펴보면 쉽게 분별할 수 있다. 마당에 산을 끌어들여 작은 우주를 만들어 두었다. 쌓은 돌은 휴식을 위한 공간이 되기도 하고, 이끼나 단풍이 내려앉아 사계절 다른 경관을 자아낸다.

정원에는 황국신민의 맹세가 적힌 탑도 있고, 일본의 주신 수수보리의 장인정신을 기리기 위한 무자의 입석도 있다. 집과 정원은 일제 강점기 조성 당시 아픈 역사를 잊고 없애기보다는 최대한 잘 보존하고자 하는 4대 주인장 부부의 역사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



시크릿가든 316



비슬문화촌 320



다강산방茶康山房 324



꽃자리 328



목언예원 332



명가원 정원 336



어머니의 정원 340



산정울수원 344



개미와 벵장이가 정답게 사는 정원 348



비채움정원과 시원時園 352



연꽃인연 356



주말의 힐링정원 360



소담수목원 364



산방산비원 山芳山 秘園 370



무심정원 374



소담정원 378



카사벨라 정원 382



오륙도가원(嘉苑) 386



흙시루 식물원 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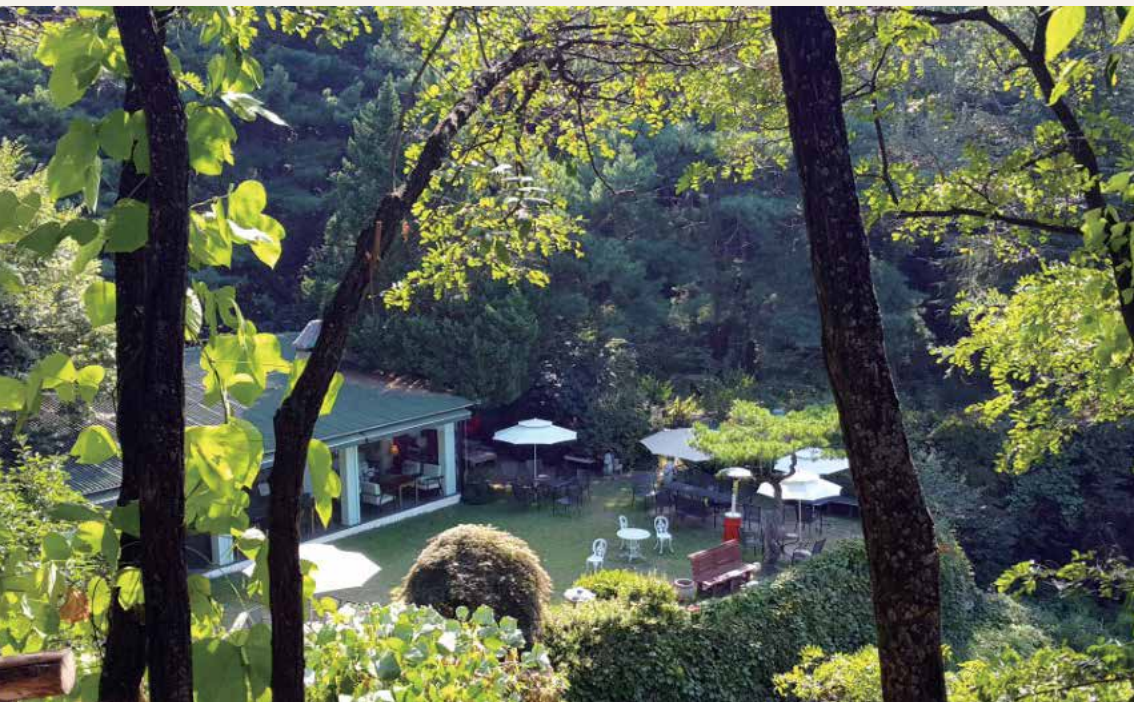
통영맛집 정원 394

경상

시크릿가든

위 치 경북 칠곡군 동명면 득명2길 97-21
 면 적 약 5000평(대지면적)
 조 성 1986, 2015(카페 운영)
 가드너 하영섭

※다음 카페 운영_ 아름다운 나의 정원 <http://cafe.daum.net/hays0044>



팔공산 깊숙한 곳에 자리잡은 시크릿가든은 이름 그대로 산골짜기의 숨겨진 보물 같은 정원이다. 어릴 때부터 꽃이 좋아 집 안에 작은 정원을 가꾸었던 주인장은 이제 산골짜기에서 5000평이나 되는 큰 정원을 20년째 가꾸고 있다. 도시 사람들이 정원에 와서 자연을 느끼고 자연으로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년부터 카페를 열고 정원을 공개했다.



계곡을 끼고 산으로 둘러싸인 산골짜기 정원에는 자연스럽지만 과감하고, 감각적이다. 정원을 들어서는 입구 계곡부 사면에 식재된 짙은 왕대, 그리고 정원 한가운데서 마주 보는 산 중앙에 하얀 수피의 은사시나무는 숲 속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강렬한 인상을 준다. 주인장은 계곡부에 최대한 자연스러운 숲을 유지하고자 했다. 카페 앞 잔디밭은 숲의 다양한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여백의 공간으로 남겨두었고, 언덕 위에는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된 유럽식 정원에 화려한 일년생 초화류를 가득 식재하였다.



주인장은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짙게 연결되어 항상 꽃이 가득한 정원을 꿈꾸며 파종시기, 초화류의 색과 질감, 공간연출 등 식재방법에 대해 숭한 실험을 했다. 언덕 위 정원에는 나무로 만든 작은 집이 있는데, 그 곳은 씨앗을 파종하고, 삼목하고, 실험하는 주인장의 식물연구실이다. 끊임없는 실험과 관찰로 잡초를 관리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꽃의 월동, 사계절 정원 연출법, 관리법 등을 경험으로 체득했다. 꽃이 얼어 죽는 이유는 기온보다는 바람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담벼락에 수국을 차폐용으로 심은 것은 그의 실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원의 매력 중 하나는 매년 변화하는 일년초 정원이라고 하며, 매년 과감한 시도를 한다. 정원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있을지 해가 지날수록 기대된다.

비슬문화촌

위 치 경북 청도군 각북면 혈티로 1328
 면 적 약 900평(대지면적)
 조 성 1995
 가드너 정인표·김영자(부부)



비슬산 아래, 세미나 등 학술모임, 미술전시, 음악공연 등 지역에 열린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장소가 있다. 비슬문화촌은 부부가 운영하는 문화공간이다. 안주인은 생활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이고 바깥주인은 비슬문화촌 촌장이다. 두 부부가 가꾸는 정원은 2개다. 비슬문화촌 정원과 주거공간과 전시관이 있는 정원. 두 정원은 느낌이 전혀 다르니 비슬문화촌에서 촌장을 만나고 주택정원까지 둘러보길 권한다.



비슬문화촌 정원.

비슬문화촌 정원은 사방이 건물로 둘러싸인 중정형으로 회양목을 전정하여 중정의 가장자리에 둘러져 있다. 중정에는 둥근 데크가 있고 그 주변으로 키가 큰 소나무가 5그루 식재되어 있다. 흰색 3층 건물 벽에는 푸른빛의 연꽃이 그려져 있고, 앞에는 연꽃 빛깔의 솜대가 식재되어 있다. 알고보니 그림은 건물의 1층으로 들어가는 미닫이 문이었다. 그림을 밀면 그랜드피아노와 콘트라베이스가 놓인 세미나실이 있다. 건물 뒤에는 수련이 가득한 연못이 있다.

주택과 전시관 정원.

문화촌에서 나와 골목을 따라 걸어가면 배롱나무가 보이고, 기하학적 문양의 길고 하얀 철제 대문이 있는 곳이 보인다. 하얀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 하얀 대문과 어우러져 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5그루의 큰 소나무가 심겨진 동산이 있고, 전시관과 주거 공간으로 나뉜다. 집 앞 큰 팽나무에는, 다락방처럼 나무 위에 오를 수 있도록 사다리를 설치하고 사방이 트인 공중 평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손녀들을 위한 그네도 걸었다.

정원 안으로 들어가면 도예전시관이 있고 앞으로 잔디밭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마당에는 안주인의 도자기 작품이 군데군데 놓여져 있어 마당이 곧 야외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예전시관으로 들어가면 ‘소’를 주제로 한 안주인의 라쿠 도조 작품을 볼 수 있다.

주거공간 뒤로는 솜대와 군락과 군식된 대나무 숲, 자연형 연못,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가면 기와집이 한 채 깊숙이 숨어있다. 게스트룸으로 이용되는 한옥으로 계단을 오르면 굴뚝을 아내의 도자기로 감싼 예술품이 들어오는 아늑한 공간이다.



다강산방茶康山房

위 치 경북 청도군 각북면 오산7길 11-31
 면 적 약 150평(대지면적)
 조 성 1999
 가드너 기종희·김재호(부부)

※다음 블로그 운영_ 다강산방(茶康山房) <http://blog.daum.net/ckrgml>



비슬산으로 올라가는 구불구불한 험티재 고갯길 중턱에 위치한 다강산방은 이름 그대로 산 속에서 자연을 즐기며 차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산방 들어가는 입구에는 슬림하게 잘생긴 검은색의 솟대를 만나게 되는데, 알고보니 그 솟대는 바깥 주인의 작품이었다. 산방으로 오르는 길 가장자리에는 옹기와 화분들이 자연스러운 높낮이로 적절하게 놓여져 있다. 집 앞의 큰 암석은 아마 집을 지으면서 그대로 살린 것일텐데 지금은 바위 주변으로 식물들이 식재되어 바위를 더 멋스럽게 만든다.



산방에 들어서면 계곡 경관이 한눈에 들어오는 테라스와 규방공예 작품이 있는 내실이 있다. 테라스 창가에는 나즈막하게 야생화를 분에 심어 뒤집어진 장독대를 바탕으로 배치했다. 내실에는 액자로 전시한 조각보, 집 주인의 재주를 담은 솟대와 꽃을 수놓은 발, 주머니, 바늘집 등 안주인의 규방공예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다기, 도자기, 솟대 등도 볼 수 있다.



074

꽃자리

위 치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도주관로 177
면 적 약 2000평
조 성 2006, 2010(카페 운영)
가드너 이태호·장영순(부부)

※네이버 블로그 운영_꽃밭에서 노닐다 <http://blog.naver.com/hoho3382>



앞마당에는 물안개꽃을 지피식물로 식재하였다.

청도읍성 옆에는 500여 종의 식물이 심어져 있는 한옥 카페가 있다. 작은 마을에서 이렇게 많은 꽃을 보며 주변 사람들에게 산책할 수 있는 여유를 준 주인은 꽃을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원예학과 출신으로 작은 읍성 옆 초지였던 땅에 정원을 만들겠다는 꿈으로 비닐하우스 온실을 먼저 지었다.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씨앗부터 증식하고 키워 사계절 꽃이 피는 꽃밭은 점점 확장되어갔다. 꽃이 너무 좋아서 시작한 정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운영하는 비용이 필요했다. 그래서 읍성과 어울리는 한옥을 지어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



뒷마당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풍성하게 피는 꽃 산책로가 펼쳐지는데 꽃밭을 바라보며 즐기는 정자가 있고 산책로에는 서정주 등 유명 시인의 명시가 나무판에 손글씨로 쓰여있다. 우리가 방문한 여름에는 샬스타데이지가 장관을 이루고 있었고, 꽃양귀비, 기린초, 노랑일본조팝, 펙티나투스유리오프스, 펜스테몬 등이 군락으로 식재되어 화려함을 자아내고 있었다. 8월 말에서 9월초에는 상사화 등 백합과 식물이 장관을 이룬다고 한다.

뒷마당의 한켠에는 온실이 있는데, 비닐로 지어진 온실에는 테크 산책로, 연못, 세미나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고, 5월부터 9월까지 둘째주 토요일 저녁에 꽃자리 음악회와 함께 팝파티가 열린다고 한다.



정원에는 두 채의 한옥(카페 'icked헌'과 부부가 기거하는 '청향정사')이 중심을 잡고 있고, 앞마당, 한옥 뒤의 꽃밭 산책로가 있다. 앞마당 입구 양 옆에는 키가 큰 두 그루의 소나무가 고사목처럼 서있다. 공사장에서 구해 온 이 두 나무에는 능소화가 올라타 여름에는 장관을 이룬다고 한다. 목각 장승, 원두막, 석상, 석물 등이 앞마당에 꽃들과 함께 배치되어 있고, 장대석 포장길이 카페로 이끈다. 마당의 지피식물로 자갈하게 핀 흰 꽃과 노란 물안개꽃이 화사하고 인상적이다.

목언예원

위 치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53
 면 적 약 700평(대지면적)
 조 성 1999
 가드너 민병도·정경화



목언예원木言藝苑은 시조시인이자 화가이신 민병도 선생님과 제자 정경화 선생님이 가꾸는 정원이다. 늦봄에 정원을 찾았을 때 정경화 선생님은 잡초를 뽑으며 시상詩想을 생각하고 계셨고, 민병도 선생님은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내면의 여유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과 제자는 정원을 가꾸면서 종종 시상을 떠올린다. 정원 뒤편으로 금천으로 이어지는 강가 산책로는 괴테가 좋아한 철학의 길처럼 사색하기 좋은 장소라고 한다.

갤러리 건물은 모던한 흰색 건물로 이를 배경으로 잘생긴 소나무가 양 옆으로 식재되어 정원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갤러리 앞에는 시낭송회와 음악, 미술 등의 행사를 위한 잔디밭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고, 들어가는 입구와 건물의 가장자리는 식물들로 채워져 있어 비움과 채움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정원에는 벽수, 물확, 디딤돌, 자연석, 돌로 만든 테이블과 의자 등 오래된 느낌이 나는 돌들이 많은데, 우리 전통 돌을 수집한다고 하셨다.

선생님은 보름달이 잔디밭을 비추일 때가 정원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시며, 그런 날 정원에서 청도 문인들과 함께 음악회나 시낭송회를 하면 환상적이라고 하신다.



들풀 -민병도-

허구한 날
베이고 밟혀
피 흘리며
쓰러져놓고

어찌자고
저를 벤 낫을
향기로
감싸는지...

알겠네
왜 그토록 오래
이 땅의
주인인지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은 거리를 두고 보아야 더 잘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 시골로 들어왔습니다. 바람과 조우하는 나뭇잎을 보게 되었습니다. 맑은 물과 더러운 물이 하나로 손잡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가올 시간을 예비하며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들풀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흙에게 거름이 되어 갇음하는 썩은 나무를 보았습니다. 모두가 진정한 소통이자 화해라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 민병도(2013) 『장국밥』, 경기: 시인생각. -

명가원 정원

위 치	경남 함양군 지곡면 지곡창촌길 3
면 적	약 120평(대지면적)
조 성	약 350년 된 고택
가드너	정천상·박홍선(부부)



명가원 정원은 영남지방의 대표적인 선비마을인 개평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일두 정여창 선생의 고택이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유산을 찾아 사람들의 왕래가 잦다. 개평마을에는 전통주를 빚는 박홍선 명인이 있다. 명인은 정씨집안 종가집 며느리로, 집안 대대로 보존되어 350년이 된 고택에 거주하면서 가양주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명가원이라는 술도가를 운영하고 한옥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정원은 크게 한옥 앞마당과 장독대가 있는 뒷마당으로 나뉜다. 앞마당에는 잔디가 넓게 펼쳐져 있고, 대문에서 한옥까지 자연석 디딤돌이 두개의 입구를 향해 갈래로 놓여져 있다. 술문화관을 운영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정원에 들르는데 잔디 마당은 아이들이 놀러오면 편안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한 배려이다.



앞마당의 잔디밭에는 우물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담쟁이덩굴이 가득 우물을 덮고 있고, 석류 나무가 그 옆에 주홍빛 꽃을 피우며 어우러져 있다. 안주인이 정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석류나무라고 하는데, 주홍빛이 도는 오묘한 색상과 열매가 매력적이라고 한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면 개구리밥이 가득하고, 개구리가 그 사이에서 따뜻한 별을 맞으며 수영하고 있다. 말라버린 우물에 자연스럽게 빗물이 담겨 만들어진 연못이다.

흙담 가장자리에는 반송, 소나무, 공작단풍, 주목이 뼈대를 잡고 산철쭉, 무늬둥굴레, 비비추, 옥잠화, 돌단풍, 송엽국 등의 초화류가 함께 빼곡하게 식재되어 있고, 와편굴뚝, 자연석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 중간 중간에 식재된 원예 식물은 개화기가 짧은 야생화를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꽃을 보기 위한 것으로, 부부의 정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보여진다.



기와 담장 위에 썬바귀가 자연스럽게 자리잡았다.

어머니의 정원

위 치 경남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2번길 24
 면 적 약 200평(대지면적)
 조 성 1976
 가드너 김점약

늦봄의 담장에는 분홍인동덩굴 향기가 가득하다.



스페키오사달맞이 '로제아', 프리티코사달맞이 '엘로 리버'와 어우러진 석잠플

어머니의 정원은 멀리서도 마당이 흰히 들어오는 낮은 돌담으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5월에는 붉은꽃인동덩굴(셀페르비렌스 인동, *Lonicera Sempervirens* L.)과 송엽국, 산괴불주머니가 돌담에서 화려한 색을 발하고 있었다. 자연석 돌담에 올려진 와편지봉은 어디에도 없는 형태일 것 같은데 가족이 함께 맘에 들 때 까지 몇 번이고 쌓아올려 완성한 담이라고 한다.



연못에는 노랑어리연꽃, 부들이 주변으로는 달맞이 꽃류, 꽃양귀비, 송엽국 등이 가득하다.

40년 전에 이 땅으로 이사와 대가족이 함께 살고 있고, 정원은 어머니의 취미 공간이다.
 어린시절 뒷동산에서 본 풍경을 기억하며 기린초, 달맞이꽃, 송엽국, 섬초롱꽃, 달맞이꽃류
 등 들에서 흔히 보는 야생화를 심었다.

진흙으로 만든 자연스러운 형태의 연못에는 노랑꽃창포, 어리연꽃, 수련 등이 식재되어 있다.

매년 5월에는 무료로 꽃을 나눠주는 행사를 한다. 지난 4년 동안 나눈 꽃은 사람들과 함께 좋아하는 꽃을 즐기고 싶다는 할머니의 순수한 마음에서이다. 할머니의 아들답게 둘째 아들 서광민씨 역시 숲과 산, 자연이 좋아 '씨밀레 숲 학교'를 열어 아름다운 우리 숲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산청율수원

위 치 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6
 면 적 약 1000평(대지번적)
 조 성 2013
 가드너 직원(이순희 등)



산청율수원이 자리한 단계마을은 옛 돌담이 멋스러운 마을이다.

율수(律修)는 “스스로 배우고 덕을 닦아 도의 경지에 이르러”는 뜻이 담겨있는데, 머무는 모든 사람들이 율수의 삶을 살아가길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공간은 크게 7개의 동(안채, 안사랑채, 바깥사랑채, 식당채, 광채, 목욕채, 대문채)과 후원(정자, 연못, 채마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원은 풍수적 원리에 따라 녹지, 연못의 위치와 형태 등 큰 골격을 정했다고 한다. 비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동북쪽에 수림을 조성하고 하천이 있는 주택의 동쪽으로 연못을 만들어 생기와 음기를 보완했다고 한다.



각 건물마다 담장을 배경으로 경계녹지를 조성하고 감나무, 대추나무, 석류나무 등 유실수를 식재하여 공간의 실용성을 높였다. 마당은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큰 나무를 식재하지 않고 마사토 포장만을 하여 정갈하게 비웠다.

안채 뒤뜰의 화계와 돌담, 장식굴뚝, 안사랑채와 안채를 구별하는 내외담은 꽃담으로 조각되어 특히 눈여겨 볼 만하다. 후원에는 창덕궁의 ऐ련지를 모방하여 만든 네모난 연못과 연못 안의 둥근 섬, '방지원도'가 있는데, 입수구에는 크고 평평한 돌을 포개 놓고 그 위에 물도랑을 내어 계단식 낙수 형태를 만들었다.



개미와 베짦이가 정답게 사는 정원

위 치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939-5
 면 적 약 4500평(대지번적)
 조 성 2006
 가드너 김명숙·유성열(부부)



주인장은 잠깐 지내려 온 산골마을이 마음에 들어 덜컥 포크레인으로 땅을 정리하고 살 집을 지었다고 한다. 그리고 연고지가 없는 낯선 곳에서 호미를 들고 정원을 만들었다.

“집 지을 때 심은 백목련이 10년 만에 이렇게 커지다니 놀랍지 않아요?”

내년에는 데크를 좀 늘려야 할 것 같아요.

잔디밭에 저 단풍나무도 묘목이었는데 이렇게 자랐다니깐요.”

최근에는 집에 덧대어 차 마실 공간을 테라스형으로 만들었다. 처음에는 정원일에 관심 없었던 남편도 스스로 공방을 만들어 목공도 하고 테라스에서 커피를 직접 로스팅해 마시며 음악을 들으며 취미생활을 즐긴다.



해가 갈수록 도시를 그리워하기 보다는 시골의 여유로운 삶을 가든파티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한다. 정원에서 있었던 큰 아들의 결혼식, 그리고 멋지게 차려입고 행해진 댄스 파티. 시골에서의 삶이 얼굴에 기미가 잔뜩 늘어나는 노동으로 다가오지 않고 이렇게 세련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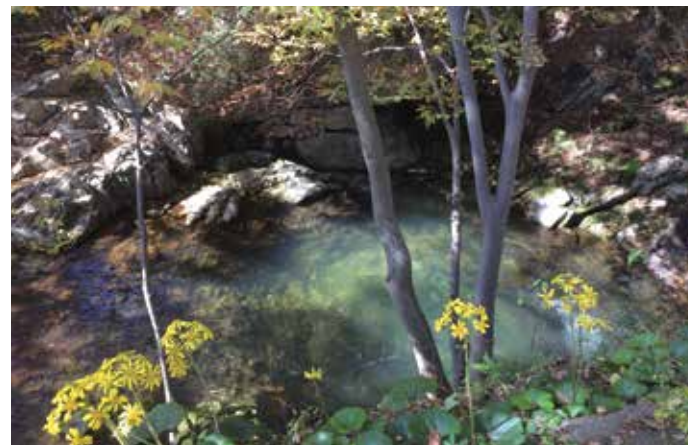
올해는 손주들을 위해 정원에 바람개비와 그네를 놓았다. 매년 부부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진정한 취미의 공간으로서 정원을 느낄 수 있었다.

비채움정원과 시원時園

위 치 경남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904
 면 적 약 5000평(대지면적)
 조 성 2006
 가드너 박귀전·손진기(부부)



산철쪽으로 유명한 황매산. 아름다움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의 가회(嘉會)면에 자리한 이 정원은 모산재 아래 천연 계곡을 끼고 있는 ‘석정’지역과 산 아래 대기저수지를 내려다보는 ‘구실’지역으로 나뉜다. 석정지역에는 연수원을 품은 비채움정원이, 구실지역에는 산과 저수지 사이에 위치한 시원(Poem Garden)이 자리하고 있다.



비채움정원

“비우고, 채우고, 움 킷운다”는 뜻의 비채움정원은 (주)한들 회사의 연수원 건물이 자리한 정원이다. 뒤로는 맑은 계곡물이 흘러 온 몸을 시원하게 한다. 계곡의 편평한 바위에 앉아 자연에 대한 시를 읊어야 할 것 같은 절경의 계곡 풍경이다. 연수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자연석을 켜켜이 쌓아 경사를 해결하고 부뚜막과 굴뚝을 만들었다.

시원(時園)

안주인은 시를 쓰신다. 그래서 꿈꾸는 정원은 시적 영혼을 교감할 수 있는 정원이다. 시원은 비채움정원에서 좀 떨어진 곳에 모산재 아래 저수지를 바라보며 차분이 자리하고 있다. 산과 저수지 사이에 위치한 이 정원은 남편이 퇴직 기념으로 부인에게 선물한 정원이다. 구절초가 세 줄로 심어져 있는 길을 따라 가면 토속적인 정자도 있고, 허브와 약초가 식재된 정원을 만날 수 있다. 정원의 가장자리에는 자연석 담장 위에 차나무 울타리, 그 뒤로 왕대가 식재되어 있다.



좀 더 올라가면 단풍나무가 식재된 잔디밭이 펼쳐지고, 자연석으로 테이블과 의자를 만들어 휴식 공간을 마련해두었다. 정원에서 모산재를 오르는 길에는 정원을 만들려고 땅을 파면서 발견하게 된 묵상하는 바위, 구암지를 만날 수 있다. 올라가는 거북과 유명한 거북, 두 마리 거북의 형상을 한 자연석과 그 뒤에 위치한 절벽 바위에는 100년 전에 쓰인 것으로 추정하는 “..후손에게 전하노라..덕을 베풀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정원을 만들면서 마을과 정원의 역사적인 흔적들을 발견하면서 부부는 이야기거리로 기뻐하고,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완성해간다. 내년에는 안주인 시를 돌에 새겨 정원 곳곳에 두는 것이 남편의 꿈이라고 한다. 정원은 사계절 다 아름답지만, 이른 봄 짙은 잎이 움 틀 때, 가을에 낙엽이 질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한다.



연꽃인연

위 치	경남 합천군 삼가면 소오길 40-7
면 적	약 10000평(대지면적)
조 성	2000
가드너	박상언·임은주(부부)



이 곳은 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원 곳곳에 물을 담아 연꽃을 심고, ‘연꽃인연’으로 이름 붙였다. 정원은 풍수를 기반으로 조성되었는데 바깥주인은 명리학을 전공하였고, 사람들에게 강의와 상담을 한다. 또한 안주인은 발효음식을 만들고, 손님에게 대접한다. 하룻밤, 혹은 장기간 묵어 명상을 할 수도 있고, 전통차를 마시러 가볍게 들를 수도 있다.

찾집과 명상센터는 지대가 높은 곳에 자리잡아 정원은 오르막길로 올라가며 점진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오르는 길에 생긴 사면은 자연석을 쌓고 위에 기와장을 올렸는데, 전통을 현대화한 모습이다. 담의 윗부분에는 암키와를, 식재구역 가장자리에는 수키와를 쌓거나 놓았는데 정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오르는 길에는 담장으로 구획을 한 비워진 두 개의 전망공간도 만나고, 설치미술품처럼 보이는 철로 만든 바람개비도 만나게 된다.



찾집에서 나와 숙박시설을 지나면 부부의 생활공간을 만날 수 있다. 생활 공간 입구에는 양쪽으로 나무가 식재되어 대문 역할을 한다. 오른쪽으로 는 탑이 있고, 마당은 잔디로 비워져 있다. 옆으로는 울엄마텃밭이 있고, 앞으로는 한단 아래 줄지어진 수많은 장독을 볼 수 있다.

넓은 면적임에도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것은 몇 가지의 통일된 재 료와 점진적인 풍경 감상, 그리고 그 아래 깔려있는 동양 철학의 힘이 아 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정원을 오르면 오른쪽에는 숙박시설들, 왼쪽에는 찾집이 있다. 찾집에 드러서기 전 암키와 로 구획한 장독대를 볼 수 있고, 찾집을 지나면 왕대 숲을 만나게 된다. 왕대 숲을 들어가기 전에도 장독대를 만난다.

한옥으로 지어진 찾집에 들어서면 운동주의 「내 인생의 가을이오면」, 법정의 「귀한 인연이 기를」, 「무소유」 등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명시들이 적혀있다.



주말의 힐링정원

위 치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640
 면 적 약 150평, 2100평(농장)
 조 성 2010
 가드너 김재왕·김명복(부부)



섬진강을 벗삼아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가다 지리산 자락으로 오르면 김재왕·김명복 부부의 주말정원이 있다. 김재왕 선생님은 순천대학교에서 평생 조경을 담당하고 은퇴하여 순천 지역의 많은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분이다.

정원은 농장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오랫동안 조경을 하면서 구하거나 생긴 나무들을 모아 농장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 농장 옆에 작은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면서 부인과 함께 주말에 머물며 책도 읽고 명상을 하는 장소가 되었다.



집 앞에는 구부러진 소나무 아래 일본식 고산수정원과 흡사한, 암석이 강조된 정원이 있다. 키 작게 전정된 산철쭉을 배경으로 세 개의 돌이 세워져 있는데, 이 돌은 벌교 제석산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세워진 돌과 누워진 돌, 석등, 고사리류와 산철쭉, 자갈, 굵은 마사토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이끼. 섬세하게 관리되고 있음이 느껴지는, 정적인 공간이다. 그 옆으로 가족들이 먹을 정도의 채소를 가꾸는 작은 텃밭이 있다. 내년에는 입구부분 지대가 폭 내려간 평상이 놓여진 공간에 연못을 만들 거라고 한다.

이른 봄 정원에는 수선화가 올라오고, 봄이 되면 매화와 철쭉으로 정원 주변 산이 울긋불긋 물이 들어 한 폭의 수채화를 감상하듯 자연이 만든 아름다운 그림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소담수목원

위 치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산로 592
 면 적 약 30000평(대지면적)
 조 성 1978
 가드너 성만기·이성숙(부부)



소담수목원은 38년간 한 사람이 고독하게 일구어낸, 미래를 생각한 수목원이다.

고향 아버지 밭을 빌려 묘목을 심은 것이 오늘의 수목원을 만드는 자원이 되었고,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수목원은 만들어졌다. 도로에서 현관을 보고 오르막길을 오르면 국내에서 보지 못한 몇몇 수종이 보이고 좀 더 오르면 저 멀리 카페가 보이고 카페로 가는 길에 정원이 펼쳐진다. 본격적인 수목원은 카페 뒤에 위치한 언덕에서 시작된다. 언덕에는 오래 되고, 외국품종을 비롯한 다양한 수종이 있다.



소담수목원에는 몇 가지 원장님의 철학이 배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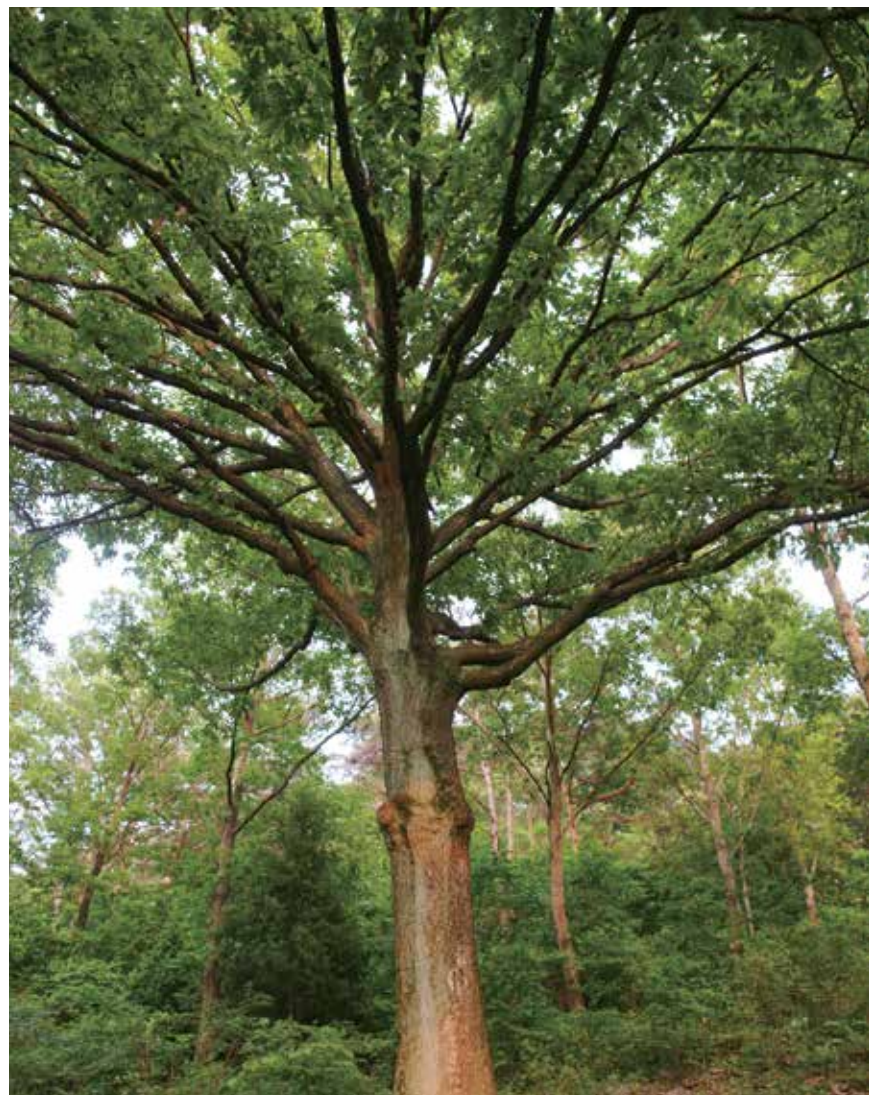
첫째는 천천히 식물에서 배우고 만드는 정원이다. 식물의 생육환경을 고려하여 식재하고 관리하며, 최대한 지역의 수종을 활용하여 인위성을 배제하고자 했다.

둘째는 ‘완성’은 없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식물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늘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있다.

셋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수목원을 만드는 것이다. 누군가 수목원을 방문해서 기존에 가졌던 생각과 철학이 달라질 수 있는 장소를 꿈꾸신다. 또한 그 실천으로 한 곳에 집중하여 식물을 심기보다는 군데군데 수종을 배치하거나 소나무를 대체할 수종으로 대왕참나무(*Quercus Palustris* Münchh. Pin oak)를 길 사이사이에 식재한 것은 미래를 생각하여 나무를 식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소담수목원은 국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수목원이지만 현지외 보존기관으로서 개인의 땀이 묻어있는 미래세대를 생각한 아름다운 곳이다. 산을 배경으로 꽤 넓은 면적을 성원장님 혼자 30년간 고독하게 이루고 있는 노력을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바란다. 원장님의 고집 아래에는, 부드럽고 감성적인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배어있다.



산방산 비원 山芳山 秘園

위 치 경남 거제시 둔덕면 산방리 197
 면 적 약 50000평(대지면적)
 조 성 1995, 2008(오픈)
 가드너 직원



‘비원(秘園)’. 비밀스럽게 숨겨 놓은 정원의 이름처럼 세 면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서쪽은 들판으로 열린 금계포란형 터에 계단식 논이었던 땅을 1995년부터 정원으로 가꾸었다.

매표소에서 정원의 안내도를 들고 순서대로 산책로 코스를 둘러보는 것을 권장하신다. 코스별로 둘러보면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된 주제정원을 만날 수 있다. 길을 따라가다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곳은 물레방아 분수대이다. 산방산을 배경으로 호수 둘레를 자연스럽게 수목이 둘러싸는데 산방산의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진다. 작품전시관에서는 분재 작품을 볼 수 있다.



전시관을 나와 오르막길을 오르면 시커먼 통나무 면이 돌담에 박힌 독특한 형태의 담과 그 뒤로 초가집이 보이는데, '세한곡수원'이라 이름 붙여진 정원이다. 두 단어의 조합이 이 공간을 설명하는데, '세한'은 오래된 소나무 몇그루와 초라한 집 한 채가 그려진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에서 유래하였고, '곡수원'은 물이 굽이쳐 흐른다는 뜻으로 황토 초가집 앞으로 냇물이 흐르고 있다.



정원에서 나와 길을 따라 걸으면 잔디밭이 펼쳐진 고인돌 광장과 목조로 지어진 3층 건물이 있는데, 레스토랑과 전시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좀 더 오르면 잔디밭에 분재를 전시한 고희 분재원을 만나고, 경사지를 좀 더 오르면 시원하게 물이 떨어지는 높이 10m가 넘는 폭포를 보게 된다. 산책로를 따라 가면 추모의 언덕과 쭉부쟁이 군락지를 보는데, 정원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내려오는 길에는 식물을 주제로 한 비비추 군락, 수국길, 수련 연못과 진달래길을 만나게 된다. 계곡을 건너면 계곡부에 나무로 우거진 전망데크와 정자를 만나게 되고 연꽃연못, 분수대연못, 보리원을 보고 계류를 건너면 정원을 모두 둘러보게 된다.

무심청원

위 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추곡1길 493-13
 면 적 약 3000평(대지면적)
 조 성 2001
 가드너 박기룡·강미영(부부)



정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북면(구 마산)과 함안군이 만나는 광려산 남쪽사면 내추마을에 위치해 있다.

무심청원(無心靑園)은 정원 이름에서 보듯 마음을 비우고 사색할 수 있는 곳이고, 상록 활엽수가 소재인 정원이다. 주인장은 과거 계단식 논이었던 이 곳을 매입해서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서쪽 가장자리는 작은 계곡이 면하여 있고 크고 작은 돌들이 많아 층층이 쌓은 논둑은 정원의 경계가 되고 집에서 내려다보면 앞은 선큰가든(sunken garden) 형태로 정원의 전체를 높은 곳에서 조망할 수 있게 된다. 화려한 꽃들을 자랑하는 차나무과 식물들, 매혹적 향기에 취하게 만드는 녹나무과 식물들, 붉은 열매가 환상적인 감탕나무과 식물들이 주로 식재된 정원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제가 있는 정원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계단을 따라 쉼터가든으로 내려가면 정원을 가로지르는 산책길과 돌담 아래로 정원의 속살을 느낄 수 있는 오솔길을 만나게 된다. S자 형태의 산책로를 지나다 보면 다양한 붓꽃들이 바위 사이를 채우며 정원을 더욱 화려하게 수놓고 있다. 집 앞 쪽 정원이 일본 정원을 닮았다면 집 뒤로 형성된 정원은 박스와 직선을 강조한 유럽풍의 작은 정원이다. 정원의 소재들은 주로 먹을 수 있는 채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인장이 연구하는 대극속 식물과 돌나물과 식물들이 바위와 보도블럭 사이를 메우고 있다.

주 정원을 지나 집 뒤로 올라가다보면 계곡의 작은 폭포를 만나고 그 옆으로 펼쳐진 상록 정원에는 10여 년 전에 심은 어린 묘목이 벌써 고개 들고 보아야할 성목인 된 굴거리나무, 후박나무, 가시나무들이 어우러진 모습을 맞이하게 된다.

두 부부는 미래의 한국정원을 그리고 있다. 내추마을의 지형을 그대로 살린 자연스러우면서도 소박한 정원, 일본과 서양 정원들에서 느껴지는 인위적인 요소들을 최소화하여 나무와 꽃들이 자유롭게 자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정원을 꿈꾸며 오늘도 나무를 심고 돌담을 쌓고 있다. 이른 봄 동백꽃을 찾아온 직박구리, 늦가을부터 호랑가시 열매에 매료되어 찾아온 물까치 식구들, 겨울 정원을 파헤쳐놓고 간 멧돼지들 모두가 조화롭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정원을 꿈꾸고 있다.

소담정원

위 치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안양로 72-66
 면 적 약 300평(대지면적)
 조 성 2013
 가드너 김민근·류명희(부부)



“소담笑談”은 웃으며 답소를 나눈다는 의미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공간을 꿈꾸며 지은 이름이다. 정원 입구에는 철도 침목과 그 사이 쇠석을 깔아 만든 철로길이 있는데, 주인장은 정원에 들어서는 것이 짧은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한다. 입구에는 빨간 우체통과 두 마리 양이 정원을 맞이한다.

정원의 양쪽 끝에는 건물이 있어 정원의 영역을 한정짓는데, 북쪽 건물은 주택이고 남쪽의 세 개의 건물은 직접 만든 갤러리, 창고, 서재 겸 다실이다. 두 건물을 잇는 하나의 굽은 길은 정원의 틀이 되는 선으로 자연석을 툇툇 놓고 사이를 마사로 채웠다. 그리고 굽은 길로 들어서는 주택의 입구에 석상을 마주보게 배치하고, 길을 따라 둥근 소나무를 띄엄띄엄 식재하여 동선이 드러나도록 했다.



정원의 서측 경계에는 집을 지을 때부터 있었던 큰 팽나무가 사면을 꽉 채우고 나무 아래에는 나리류, 국화류, 금강초롱꽃 등이 계절별로 피고 진다. 팽나무 아래 평평한 땅에는 연못을 만들어 연과 수련을 그득히 담아 운치를 더했다.

갤러리에 들어서면 중앙 테이블 위에 안주인의 닥종이 인형과 도자기 작품들, 벽에는 바깥주인 바틱 기법으로 완성한 모던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창고 입구 양옆으로는 미국담쟁이덩굴이 자리를 잡았고 창고 겸 온실 안에는 속새가 크게 자라있다. 정원에는 노랑할미꽃, 범부채, 산부추, 금강초롱꽃, 우산나물 등 귀한 야생화가 꽤 많은 편인데 기청산식물원과 인연을 맺어 사거나 얻은 식물이라고 한다.

정원의 백미는 무엇보다 주택에서 갤러리 방향으로 보면 마주하게 되는 무척산이다. 무척산이 정원의 든든한 배경으로 자리 잡아 새벽녘의 안개와 가을의 단풍 등 매일과 계절의 변화를 준다.



카사벨라 정원

위 치 경남 김해시 율하로 346번길 41
 면 적 약 500평(대지면적)
 조 성 1986, 2012(레스토랑 오픈)
 가드너 김용국·정미순(부부)



“카사 벨라(Casa Bella)”는 이탈리아어로 “아름다운 집”이라는 뜻이다. 이름에서 느껴지듯 정원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외부공간이고 레스토랑 뒤에는 주인장의 주택 정원이 자리하고 있다.

‘고향에 주민들의 자부심을 느끼는 정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레스토랑 정원을 만들기 시작하여 주차장 아래 공개공지에도 정원을 만들어 레스토랑에 오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주차장 측면에는 분재원과 다육원이라고 이름붙인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꽤 많은 종류의 다육식물과 분재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전시되어 있다.

바깥주인은 대학시절부터 분재에 관심을 갖고 독학으로 ‘근대분재학’이라는 책으로 시작해 30년 동안 나무를 취미로 가꾸어왔다. 결혼할 때 기념으로 소사나무를 아내에게 선물했는데, 아직도 그 나무는 정원에 자리하고 있다. 바깥주인이 좋아하는 나무는 소사나무, 뜰보리수, 팽나무, 모과나무 4종인데 바닷가 주변에 자생하는 잎맥이 뚜렷한 소사나무를 특히 좋아하신다. 침목으로 포장된 길을 따라 정원을 둘러보면 식재 가장자리와 벽체 윗부분 재료로 수키와를 활용하여 토속적인 분위기를 내었는데, 그 기와는 재실에서 사용했던 기와를 재활용한 것이라고 한다.



주택정원으로 들어서니 다양한 야생화와 함께 좀 더 정교하게 정원이 가꾸어져 있다. 굽이지는 동선은 정자로 발길이 닿게 하고 모과나무를 중심으로 암석과 해국, 바위솔, 바위취, 원추리, 매발톱 등의 야생화가 어우러져 있다. 현관으로 들어가는 주택의 앞마당은 아내의 전용 공간인 텃밭이 자리하는데, 보리수나무와 매화나무가 중심을 잡고 구불어진 길을 따라 배추가 마당을 꽉 채워 빼곡히 심겨져 독특한 패턴을 만든다. 30년 동안 묵묵히 취미생활로 나무를 가꾸어 오다가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정원이다.

오륙도 가원(嘉苑)

위 치 부산 남구 용호동 894-55
 면 적 약 3400평(대지면적)
 조 성 2011
 가드너 최광림, 문성모



오륙도 가원(嘉苑). 오륙도 바닷가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

정재현 건축가와 김용택 조경가가 설계한 레스토랑은 바닷가를 바라보며 자리하고 있다. 전문가를 믿고 존중하는 주인장은 정원에 나무를 보식하거나 시설물을 둘 때 늘 설계가의 의견을 물어 최대한 설계의도에 벗어나지 않도록 고민하며 정원을 가꾸고 있다. 이제는 웬만한 전문가 못지않게 식물도 잘 알고 시공하는 방법에 대한 조예도 깊다.

정원을 처음 설계할 때 설계자의 의도는 다음과 같았다.

“골강관으로 된 가벼운 건축과 대응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기하학적인 지형을 만들었다. 지형이 단순한 형태로 다듬어지면서 바다풍경이 대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해송으로 이루어진 뒷 숲에는 산책로를 내어 돌 조형물과 야생화 숲의 신선함을 체험하게 된다. 넓은 데크와 수반은 시원하면서도 섬세한 정원풍경을 만들어 낸다. 입구에 심은 큰 느티나무는 바람에 견디지 못했다. 다시 벚나무를 심어 기존의 벚나무숲과 연결되도록 했다.”

-knl 환경디자인 스튜디오 포트폴리오 initiative 40 중-



정원을 만들거나 가꾸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시원하게 땅을 비우는 것은 쉽지 않다. 설계의 도처럼 시원하게 비워진 정원과 단순한 지형 덕분에 건물 뒤 소나무 숲에서 오류도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건물의 중정에 위치한 사각형의 큰 수반은 달을 빠뜨리는 건축가의 의도대로 하늘의 모습을 담는다. 바다를 담기위해 비워진 잔디밭에는 바다와 하늘, 그리고 주말에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다. 가장자리의 목재데크 길 역시 시원한 느낌에 한 몫 더한다.

바닷가 옆 정원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 식재에 신경을 써야했다. 그래서 사면에는 역세를 균식하여 바람이 느껴지도록 했고, 가장자리에도 그래스류를 많이 활용하였다.

건물 뒤편, 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있는 해송 숲에는 산책로를 내고 하부에 로즈마리, 체리세이지 등의 허브류와 아주가, 양귀비, 마가렛 등의 초본류를 식재하여 계절별로 꽃이 가득하다. 봄이 되면 양귀비와 마가렛이 장관으로 펼쳐진다고 한다.



흡시루 식물원

위 치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451번길 28
면 적	약 4000평(대지면적)
조 성	1998
가드너	김경호(대표)



‘시루’는 주로 떡을 찌는데 사용하는 용기로, 뜨거운 김이 시루 안으로 통할 수 있도록 밑에는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있다. ‘흡으로 만든 시루’라는 이름에서도 느껴지듯 흡시루 식물원은 토속적인 음식과 황토토굴, 초가, 원두막, 기와집 등의 토속적인 건물에 어울리는 정원이다.

사실 이 곳은 지역에서 유명한 18년이나 된 한식당으로, 정원은 식당에서 줄서서 기다리는 고객들을 위해 15년 전부터 가꾸기 시작했다. 정원은 초가집, 토굴, 너와집, 기와집 등 식당 건물에 부속된 정원과 식당 동쪽에 위치한 식물원, 크게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식물원에 들어서면 양쪽으로 큰 단풍나무 두 그루가 반긴다. 단풍나무 뒤로 비닐하우스 온실이 2동 있는데, 들어서면 가운데는 분경들이 전시되어 있고 화분 등을 파는 파머스마켓이 자리하고 도자기로 만든 시골집 미니어처, 실내에서 활용 가능한 식물 액자 등의 정원용품들, 의자가 놓인 작은 쉼터 정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 온실 앞에서는 매년 봄에는 야생화 및 분재 전시회를, 가을에는 국화전시회를 한다.

온실을 나오면 산책할 수 있는 정원이 펼쳐진다. 기왓장 뒤로 으름 덩굴이 식재된 터널이 있고, 그 뒤로 연못이 자리한다. 다시 길을 돌아 정원의 중앙으로 나오면 ‘못난이들의 합창’이라고 이름 붙여진 찌그러진 장독들이 모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원을 좀더 산책하면 쉬고 머무를 수 있는 정자가 자리하고, 산수국, 나무수국, 떡갈잎수국, 나비수국 등 다양한 수국품종이 식재된 수국길을 만나게 된다.

입구에 기울어진 소나무가 보이는 식당 건물로 들어서면 초가, 토굴 등 건물과 함께 마당에는 절구와 물확, 박, 장독대, 물레방아가 있는 연못 등이 있다. 정원 한 켠에는 민속관이 있는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썼던 도자기와 골동품, 의복, 비녀, 농기구 등이 전시되어 있고, 1950-70년대 교복과 책, 담배, 동전 등 향수를 자극하는 골동품도 전시되어 있다. 마당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마다 고소한 콩고물로 인절미를 만드는 떡매치기 행사를 한다.



통영맛집 정원

위 치 경남 통영시 봉수로 50
 면 적 약 60평
 조 성 2006
 가드너 정효순



‘정원’을 음식점 이름으로 내놓고 사용하는 것처럼 음식점 앞마당은 꽃으로 가득하다. 정원을 가꾸지는 올해 10년째인 주인장은 틈만나면 정원에 있다. 입구에는 양 옆으로는 능소화가 식재되어 있어 여름철 화려한 경관을 자랑할 것 같다. 열어둔 대문 사이로 꽃들이 보인다.



정원에 들어서니 식당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을 제외하고 담장 끝까지 빼곡이 꽃들이 식재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주인장은 심고 싶은 꽃들이 너무 많은데 땅이 부족하다고 하신다. 주택 앞으로 5그루의 필리페라워싱턴야자 (*Washingtonia filifera* (Linden ex Andre') H. Wendl.)가 일렬로 시원하게 뻗어있다.



필리페라워싱턴야자, 소나무, 목서, 금목서, 감나무, 보리수나무 등 정원의 뼈대를 형성하는 큰 나무는 집 지을 때 주로 식재된 나무이고, 초본류들은 매년 다양하게 식재되고 있어 정원의 풍경은 매년 갈 때마다 바뀌는데, 주인장은 4-5월의 정원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한다. 동근 디딤돌 포장 사이는 백리향이 땅을 덮고, 그 뒤로 아주가, 꿀풀, 도라지, 라바테라, 디기탈리스, 양귀비, 에키네시아, 원추리 등 화사한 색상의 초본류가 가득하다.



김영갑갤러리 두모약 400



카멜리아힐 404



청재설현 408



오설록 정원 412



갤러리&카페 테라 416



7그루 진귤나무가
있는 제주정원 420



에월 파라다이스 426



촌부의 정원 430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들꽃정원' 434



선홍꽃밭 438

제주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위 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로 137
 면 적 약 2600평(대지면적)
 조 성 2002
 가드너 박훈일



폐교였던 삼달분교를 개조하여 만든 김영갑갤러리 두모악은 2002년 여름에 문을 열었다. 사진작가 김영갑 선생님은 부여에서 태어났지만 제주도에 매혹되어 1985년 아예 제주에 정착하여 바닷가와 중간산, 한라산과 마라도 등 섬 곳곳의 풍경을 사진에 담았다. 영혼과 열정을 모두 바쳐 사진 작업을 하고, 버려진 초등학교를 구하여 초석을 다질 무렵 선생은 루게릭 병에 걸리셨다. 하지만 손수 몸을 움직여 폐교를 갤러리 정원으로 가꾸셨다.

한라산의 옛 이름이기도 한 '두모악' 정원에는 선생이 좋아하셨던 제주 중간산의 모습이 담겨있다. 아이들이 뛰어 놀았던 운동장은 하나하나 쌓은 까만 돌담과 그 사이를 지나는 좁은 산책길, 그리고 팽나무, 감나무, 느릅나무, 가막살나무, 대추나무 등이 식재되어 고요히 휴식하고 명상할 수 있는 정원이 되었다. 선생은 삶에 지치고 일상에 쫓기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곳에 와서 혼자 명상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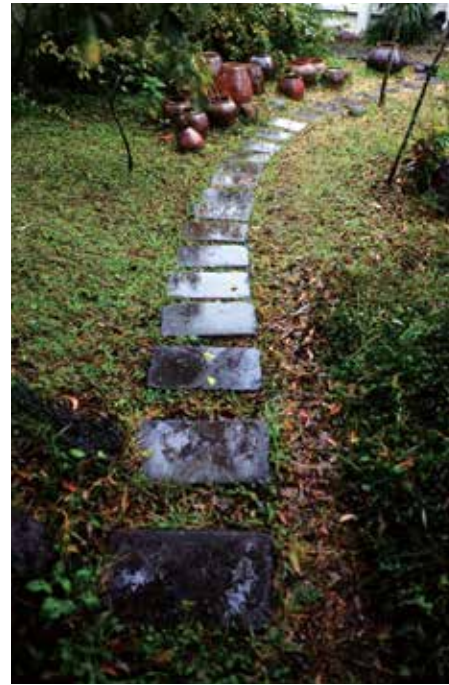


선생이 작고하신 후 2005년부터 제자 박훈일 관장이 이 곳을 책임지고 공간을 가꾸어 나가고 있다. 학교 건물의 뒤편으로 무인차집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있는데, 산책길은 오롯이 한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좁은 명상의 길이다.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길을 거닐며 삶을 회고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만들었다.

정원의 사계는 이른 봄의 수선화, 한여름의 울창한 나무들, 가을에는 감나무, 겨울에는 돌담이 아름답다고 한다. 내년에는 다양한 수국을 심어 한 여름의 울창함에 색을 더할 생각이 시다.

“정원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 하는 일입니다.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개입해야 하는 시점이 있지요” 라는 관장님의 말에서 드러나듯 정원은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이 물씬나며, 정원 관리는 가지를 잘라주고, 잡초를 뽑아주는 정도로 간단하다.

정원 뒷마당 잔디밭은 두모악에서 유일하게 여백의 장소로 남겨둔 공간인데, 한 줌의 잔디와 세월이 지금의 푸른 잔디밭을 만들었다고 한다.



카멜리아힐

위 치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병악로 166
 면 적 약 60000평
 조 성 2009
 가드너 양언보



정원의 이름처럼 이 곳은 약 500 품종의 동백나무를 볼 수 있는, 동백나무를 주제로 한 정원이다. 주인장은 70년대 후반부터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제주 중간산의 6만평이나 되는 땅에 온통 동백나무를 심었다. 국내 각 지역의 동백과 전 세계를 돌며 특이한 동백을 모았다. 그래서 현재 다양한 색상과 향을 지닌 500종류의 동백나무가 정원에 있다. 사업을 하다 어려움을 겪을 때면 동백꽃에서 시련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정원은 여느 정원과 달리 동백꽃이 만개하는 겨울이 가장 아름답지만 한 여름에도 10여 품종의 수국 꽃이 화려하게 피고 선선한 숲의 기운으로 쾌적하게 산책하기 좋다.

동백 숲 사이로는 제주 화산송이를 깔아놓은 산책길이 놓여있다. 야생화 길, 새소리 바람소리길 등의 정원 산책길에는 “오늘만은 느리게 천천히” 등의 일상생활에서 잊혀지는 여유로움과 소중한 마음을 지닐 수 있는 메시지가 새겨져 있어 생각하며 걷기에도 좋다.



동백의 꽃말이 “그대만을 사랑해”인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당신과의 산책” 등 사랑의 속삭임이 느껴지는 문장들과 소품들이 산책로 곳곳에 있어 연인들이 좋아하는 데이트 장소이기도 하다.

청재설헌

위 치 제주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135-18
 면 적 약 7500평(대지면적)
 조 성 1997, 2000(B&B house 오픈)
 가드너 김주덕

※ 홈페이지 운영_ <http://www.bnbhouse.com/>
 책 발간_ 김주덕(2008) 『힐링가든』, 서울: 다빈치.



주인장은 남편과의 사별 후 상실의 고통을 땅에서 정원을 가꾸고 농사를 지으며 위로받았다고 한다. 주인장의 정원 에세이집 『힐링가든』에는 “소비형 인간에서 노동하는 생산형 인간으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가치 있는 길”이라고 씌여있다.





청제설현은 5개 숙박공간을 갖추어 B&B로 운영되고 있다. 노출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은 세련된 느낌을 주며 건물과 맞닿아 있는 연못에 비친 배롱나무의 모습이 사계절 내내 장관이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제주도에 오셨네요. 제주도는 가을이 가장 예뻐요” 제주의 가을을 카메라에 담으러 오름에 올랐다는 주인장이 한마디하신다. 홈페이지를 보건, 책을 보건 이 집 주인장의 사진은 참 편안하고도 감각적이다. 꽃향유가 그득하고 해국, 용담, 산부추가 빛을 더한다. 검은색 제주 돌담 앞 감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감은 또한 매력적이다.

정원의 전신이 농장이었던 만큼 정원에는 150종류의 나무가 있고, 온실, 텃밭, 산책로에 다양한 식물들이 자리하고 있다. 제주도 나무들이 육지로 나간다고 소문이 들리면 팔 걷어붙이시고 이 농장으로 사들고 오신단다. 제주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시다.

이 집 정원에는 텃밭이 크게 자리하고 있지만 정원에 먹거리와 꽃차, 약용식물이 지천이다. 양지바른 곳의 장독대와 자연 건조되고 있는 버섯은 정원의 풍요로움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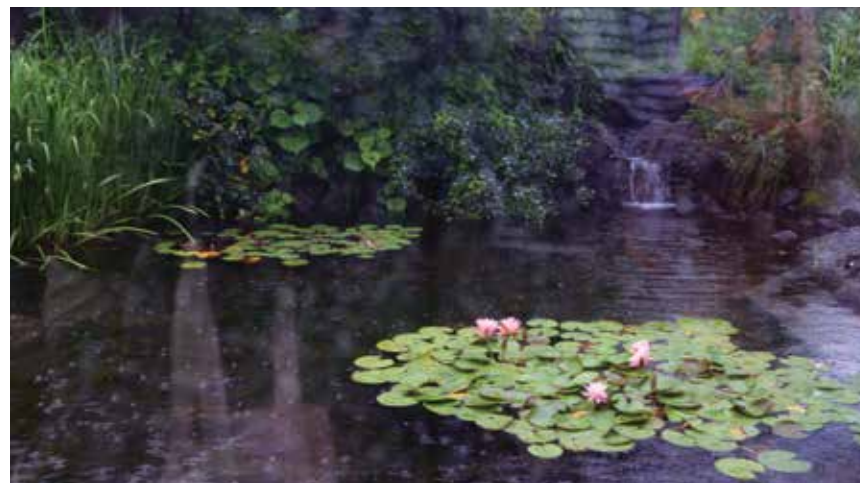
오설록 정원

위 치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15
면 적	약 11200평(대지면적)
조 성	2013
가드너	직원(아모레퍼시픽 조경팀)



오설록은 차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자 오설록 제품과 이니스프리 제품을 선보이는 쇼룸으로 서광다원을 바라보며 자리하고 있다.

오설록 정원은 오설록 티뮤지엄, 오설록 티스톤,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 세 개의 건물이 있으며 제주 곶자왓을 모티브로 제주 자생식물이 주로 식재되어 있다. 조경설계 서안에서 설계·시공하였으며 아모레퍼시픽 조경팀이 관리하고 있다.





가을에 정원을 찾았을 때는 동백나무 아래 관중과 털머위가 군락으로 식재되어 화사한 경관을 만들고 있었고, 산책로변에는 빠알간 먼나무 열매 아래 벌개미취와 해국이 억새를 배경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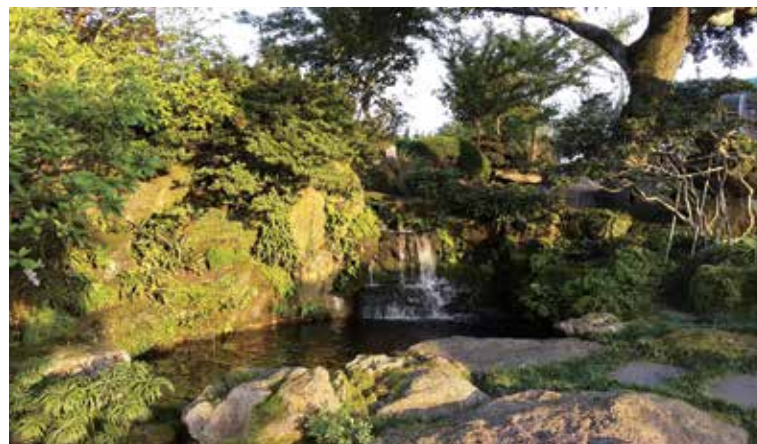
정원은 사계절 아름답다. 이른 봄에는 수선화가 꽃을 피우고, 봄에는 뒷 산의 왕벚나무를 정원까지 연계하여 왕벚나무가 장관을 이룬다. 여름에는 산수국이 파란 꽃을 피워 시원한 느낌을 주고 겨울에는 동백나무가 빨간 꽃을 떨어뜨리고 건물 앞의 팽나무가 수형을 자랑한다.

정원의 구조와 분위기를 형성하는 밀바탕에는 제주 화산석이 있다. 사방이 유리로 된 티스톤 건물 뒤에는 물이 담긴 수반이 있는데, 화산석 돌이 자연스럽게 연못 안으로 스며들고 건물 뒤 산책로에는 제주 화산석을 기반으로 한 꽃자왈 정원이 있다. 그늘진 정원에는 이끼, 관중 등 고사리류가 사이에 자라고 햇볕이 드는 곳에는 억새와 국화과 식물들이 자리한다.

넓은 정원임에도 하나의 인상적인 이미지가 머릿 속에 남는 것은 군식된 식물로 시원한 경관을 구성한 것과 서광다원 녹차밭의 쪽 뺨은 시원한 경관 때문일 것이다.

갤러리&카페 테라

위 치 제주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 평화2길 10
 면 적 약 900평(대지면적)
 조 성 2001, 2011(카페 오픈하면서 재정비)
 가드너 손영백



애월읍 유수암리에는 평일 정오에서 오후 4시 반까지만 운영하는 제주에서 가장 영업시간이 짧은 카페가 있다. 카페 정원은 오랜시간 조경과 분재를 전문으로 하신 시아버지 손영백 선생님이 만들었고, 현재 며느리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아이의 육아로 영업시간이 짧다고 한다. 정원의 모습 역시 카페 운영과 닮아 욕심없이 적당한 비율로 식물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숨은 고수의 손길이 느껴진다.

흙, 땅, 대지라는 뜻의 테라Terra.

이름에서부터 흙에서 비롯된 많은 것들이 펼쳐질 것 같다.



정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아름답리 동백나무가 양쪽으로 식재되어 있고, 나무 뒤로 고풍스러운 유럽풍 기와를 사용한 2층 집이 보이는데, 1층은 카페로 이용하고 2층은 주거 공간이다. 오르막길이 끝나는 곳의 왼쪽에는 연못이 있는데, 두 단의 폭포에서 시원한 물이 흐른다.



이 정원의 백미는 순환하는 자연스러운 계류와 연못으로, 주변에 우산나물, 섬백리향, 해국을 비롯하여 콩짜개덩굴, 봉의꼬리, 도깨비쇠고비, 개부처손, 세뿔석위 등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도서에 자생하는 고사리류가 원래 있었던 것 마냥 자연스럽게 식재되어 있다. 연못 내부에는 송이고랭이와 어리연꽃, 털부처꽃이 적절하게 식재되어 있다. 이 정원의 새로운 시도는 소엽맥문동을 잔디 대용으로 식재하여 넓은 면적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정원의 끝에는 우람한 섬단풍나무가 군식되어 가운데 평상을 놓고 쉼터로 사용하고 있다.

7그루 진귤나무가 있는 제주정원

위 치	제주 제주시 해안마을 5길 46-59
면 적	약 2300평(대지번적)
조 성	2000
가드너	김학우·허진숙(부부)



구불구불한 마을길을 달려 대문에는 주인장 전화번호가 손글씨로 적혀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정원에 오는 손님을 환영한다는 메세지이다.

이 집에는 역사적인 보물이 숨겨져 있다. 동네에서는 이 집을 ‘과원’이라 부른다. 정원의 전신이 굴농장이기도 했지만 약 250년전 임금에게 진상되었던 진귤나무 7그루가 정원 안쪽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나무인 만큼 수형과 빛깔에서 깊이감이 느껴진다. 귤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서만 생산되고 진귤나무는 과일로 먹기보다는 껍질인 진피를 말려 한약재로 이용되기에 임금께 바쳐졌다.



주인장은 오래된 진굴나무를 살려 정성껏 관리하고, 제주 재생식물을 주로 식재하여 꽃자왈을 비롯한 제주 자연을 정원에 고스란히 담았다. 꽃자왈에서 나오는 오래된 나무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어디든 달려가서 가져왔다. 정원에는 죽절초, 새우난초, 용머리, 산수국, 발풀고사리 등 제주 식물이 가득하다.



정원은 안담과 바깥담 이중으로 담장이 둘러있는 만큼 꽤 넓은데, 담장 기와는 제주창고 사리, 세뿔석위, 낙시고사리, 쇠고비, 도깨비쇠고비 등 다양한 고사리류가 자연스럽게 식재되어 있다. 안담 밖으로는 연장창고와 채소를 기르는 텃밭이 있다. 연장창고에는 목공연장에 서부터 철 가공 연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장들이 있는데, 주인장은 정원에 놓인 작은 소품에서부터 테이블, 의자 등을 직접 만든다. 집 뒤에는 와편으로 만든 옷음을 한가득 주는 해학적인 굴뚝이 자리하고 있다.

봄에는 진굴나무 아래 새우난초, 금새우난초, 앵초류가 가득하다.



애월 파라다이스

위 치 제주 제주시 애월읍 하소로 557-10
 면 적 약 4000평
 조 성 2006
 가드너 조연자, 조태환



숙박시설에서 좀 더 내려가면 생태연못이 있는데 연못 주변으로 삼백초와 해당화가, 물 속에는 연, 선물수세미 등을 군락으로 심어놓았다.

제주도 애월읍 유수암 마을에 위치한 리조트 단지, 애월 파라다이스는 유수암 마을을 제주만의 색을 지닌 생태체험 휴양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주인장의 뜻이 담겨 있다. 여행사를 운영하는 주인장은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정겨운 골목길 문화가 너무 좋았고, 30여년 전에 제주도로 발길을 이끌었다. 일본의 아기자기한 이야기가 있는 작은 산촌 마을인 유후인 마을을 모델로 미술관, 아기자기한 가게와 카페, 레스토랑, 숙박시설이 갖추어진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한 여행지를 제주도에 담은 것이 꿈이다.



빌라타입의 숙소 정원에는 굴거리나무를 비롯하여 남부지방 수종이 식재되어 있다.



언덕에 핀 큰금계국, 도라지, 원추리

그 첫 시작으로 10년 전 문을 연 애월 파라다이스는 산림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잡은 리조트 단지이다. 타샤튜더의 정원 책을 보고 영감을 받아 주인장은 그녀를 만나러 미국 버몬트주에 찾아갔다. 어렵게 30분간의 시간을 얻어 타샤튜더를 만나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원은 끈기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만든 애월 파라다이스 정원은 제주 민가 돌담으로 단지의 틀을 자연스럽게 소박하게, 사계절 조화로운 정원을 만들었다.

리조트로 들어서면 차 한 대가 지나다니는 오르막길이 있다. 오르막길 오른편으로는 언덕이 있는데, 언덕에 오르면 저 멀리 애월항이 어렴풋이 보인다. 주인장은 저녁 노을 질 때 언덕에서 애월항을 바라보는 풍경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신다. 오르막길의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면 개별 빌라 타입 숙박시설이 길을 따라 자리잡고 있다. 빌라타입 숙박시설 돌담 안에는 넓은 잔디밭과 토속적인 쉼터 정자, 굴거리 나무가 그늘을 드리운 독립적인 정원이 있어 정원을 편안하고 조용히 즐길 수 있다.

촌부의 정원

위 치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진길 7-20
 면 적 103평(대지면적)
 조 성 1990
 가드너 이시우



강렬한 색상의 마소노름애기범부채가 눈에 띈다.

촌부의 정원은 함덕 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소박한 제주 주택이다.

이 집은 소박한 제주도민의 삶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돌담집 위로 동백 나무 생울타리가 돌담 높이만큼 둘러져 있다. 안으로 들어가면 돌담으로 지어진 집이 있는데, 담을 타고 오르는 줄사철나무가 인상적이다. 나무를 심은지 15년 되었다는데 벽에 딱 달라붙어 자연스럽게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



제주 화산석으로 식재베드를 만들고 독특하게 생긴 돌, 향아리 등을 모아 식물과 함께 배치했다. 정원에는 먹을 수 있는 토란, 깻잎, 박하, 더덕, 곰취, 방풍, 취나물, 파, 치커리, 곤드레, 가지, 음나무 등 식물들로 가득하다.



돌담에는 줄사철나무와 세덤류가 식재되어 있다.

하루의 대부분을 정원에서 보내고 있는 주인장은 돌담 사이에 식물을 심고 담장 밖 집 앞에도 꽃을 심어 동네로 정원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들꽃정원'

위 치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진길 7-18
 면 적 약 300평
 조 성 2002
 가드너 학교 시설과 직원



한여름 정원에는 별개미취와 노루오줌이 만개해 있다.

한적한 동네에 자리잡은 함덕 초등학교 선인분교를 누군가는 블로그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라고 불렀다. 학교를 한바퀴 둘러보면 돌하르방과 정남으로 이루어진 정문과 천연잔디 운동장, 담을 대신하는 나무, 뒤뜰의 친환경 농장까지 자연친화적이다. 뿐만 아니라 규모도 도시학교보다는 작고, 학생수도 30명 정도밖에 안되니 아기자기한 느낌이 든다. 학교를 천천히 둘러보며 어린시절을 추억해도 좋을 것이다.



제주도 모양의 연못에는 연, 수련, 모시풀, 고랭이가 식재되어 있다.

교사 뒷편에 위치한 들꽃정원은 2002년부터 세 분의 선생님과 아이들이 힘을 합쳐 3년에 걸쳐 만든 생태 교재원의 역할을 하는 정원이다. 학교를 아름답게 가꾸어 학생들에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고, 자연 관찰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의도로 선생님의 제안으로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다. 방과 후면 페타이어와 벽돌 등을 구해와서 정원의 모양을 갖추었고 학부모들도 적극 동참하여 집에서 기르던 식물들을 가져왔다.

정원의 형태는 좌우 대칭으로 가운데는 제주도 모양의 연못을 만들어 부레옥잠, 어리연꽃 등을 심고 물방개 등의 수서곤충을 길러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했으며 가장자리에는 텃밭을 만들어 복숭아와 먹을 수 있는 채소류를 심었다.



여름의 정원에는 참나리, 꼬리풀류, 루드베키아가 가득하다.

정원을 만들 때 시행착오도 많았다. 제주 토양은 화산재 토양으로 물빠짐이 심하고 양분이 부족하여 많은 식물이 다시 꽃을 피우지 못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야생화이다. 산수국, 꿀풀, 산꼬리풀, 기린초, 비비추, 털머위 등 자생식물을 채집하거나 기증받아 심었다. 현재는 조성 당시만큼 활발하게 정원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2년마다 선생님이 바뀌어 조성 당시 정원문화를 이끌었던 담당자도 없고 지금은 학교 시설을 담당하는 분이 정원을 관리한다. 하지만 야생화 강인함으로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정원은 계절마다 풍성한 꽃을 피운다.

100

선흘꽃밭

위 치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306-1
면 적 약 10000평(대지번적)
조 성 2012
가드너 김형식·오순덕(부부)



“선흘꽃밭”이 어느 주택정원과 다른 점이 있다면 꽃밭을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부터 일주일간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잔칫날처럼 즐긴다는 것이다. 조용한 행사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꽃밭 축제는 마을이 생긴 뒤 가장 많은 사람이 그 마을을 찾았을 정도로 큰 축제가 되었다.

꽃밭 축제에 대한 생각은 부부가 땅을 구입하고, 정원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떠났던 인도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받은, 본인들이 만들었지만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게 변한 정원에 대한 인상 때문이었다. 부부는 사회에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사람들과 함께 꽃밭을 나누고 있다.





2006년에 구입한 땅은 10년 동안 부부가 찾았던 곳이었다. 퇴직하기 전 많은 땅을 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땅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 곳은 작은 언덕이 있어 하늘과 대화할 수 있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지금 언덕에는 제멋대를 기초로 한 제주다운 정자가 있다. 정자에는 “담박명지 영정치원(澹泊明志 寧靜致遠)”가 쓰여있다. 제갈공명이 아들에게 한 말로, 담박해야 뜻을 밝힐 수 있고, 편안하고 정숙해야 원대함을 이룬다는 뜻이다. 주인장과 함께 정원을 거닐며 두고두고 강조하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 속에 남아있다.



바깥주인은 나무를 안주인은 꽃을 가꾼다. 안주인은 어린시절 아버지의 꽃밭을 기억하며 하루종일 정원에서 꽃과 지낸다. 새로운 종자를 가져와 매년 색다른 정원을 만든다. 바깥주인이 담당하는 나무는 잔 손길이 많이 필요없으니 주로 전각 작업을 하며 보내신다. 천연인주를 고집하며 집중이 필요한 전각 작업은 혼자할 수 있는 예술활동이자, 고전의 글귀 하나하나를 되새기며 생각을 다듬을 수 있는, 인생을 배우는 취미라고 한다. 주인장은 몇 가지를 강조하셨다. 혼자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꼭 가지고. 그리고 바보처럼 살라고(대지약우大智若愚: 크게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은 듯하다).